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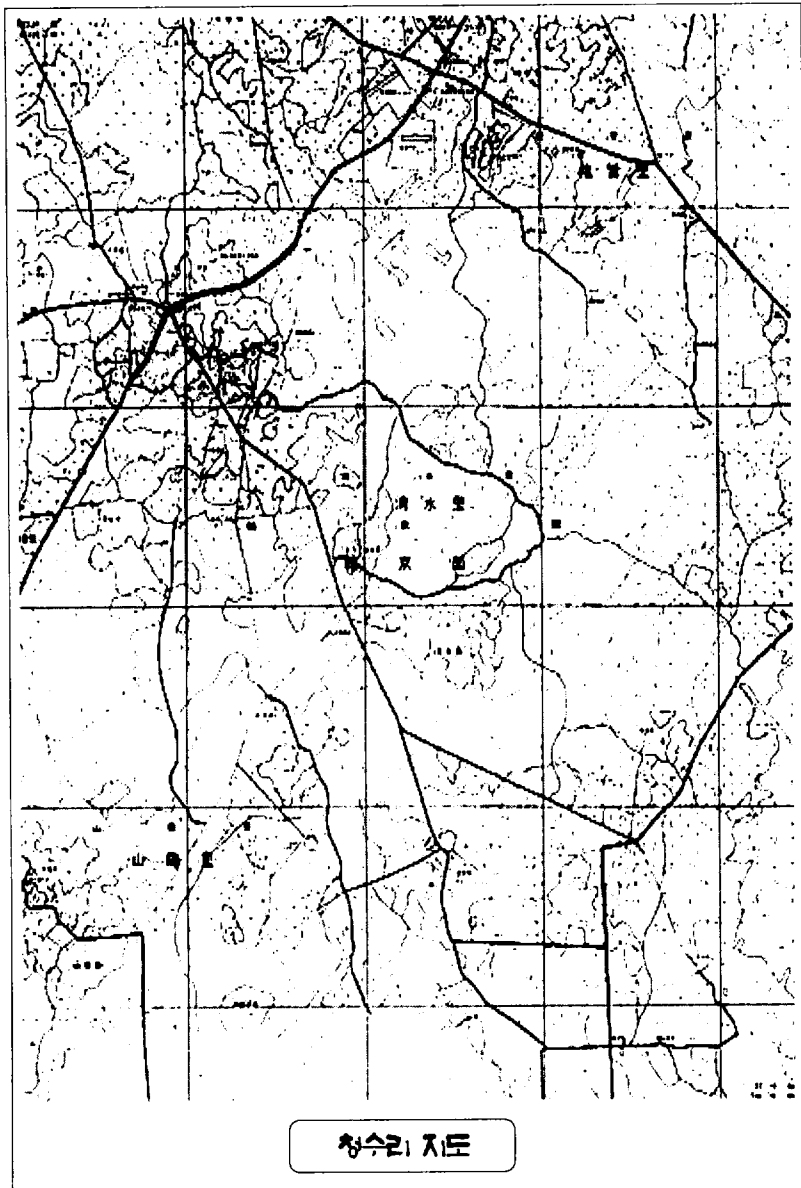
北濟州郡 翰京面 清水里

現地學術調查報告

(2004. 7. 30. ~ 8. 2.)

1. 조사경위
2. 마을개황
3. 방 언
4. 민 요
5. 설 화
6. 신 앙

• 청수리 부근 지도



調查經緯



1976년부터 매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올해로 26번째가 되었다. 그 동안 현지 학술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익힌 이론을 실제로 적용시켜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마을개황, 방언, 민요, 설화, 신앙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 지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으며, 국문학의 시야를 넓히는 좋은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학술조사는 2004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3박 4일 동안 北濟州郡 翰京面 清水理에서 이루어졌다. 사전 답사 경위와 조사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번 학술 조사지는 5월 말에 선정되었다. 조사지를 청수리로 선정한 이유는 마을지가 발간되어 있지 않은 청수리에 우리가 조사한 자료들이 마을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아울러 학술조사의 근본 취지와도 부합된다고 판단했기에 청수리를 택하게 되었다. 사전 답사반은 학생회장, 집행부, 각 반 반장들로 구성하였다.

본격적인 사전답사를 가기전 청수리가 고향인 3학년 고안나 학우(신양 반장)와 함께 마을회장님(김석진)과 노인회장님(강성현)을 만나 학술조사 전반에 관한 협조를 부탁드렸다. 그리고 6월 11일 학과장님(현승환 선생님)과 함께 저청초중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숙소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

1차 사전 답사는 6월 3일에 이루어졌다. 각반 반장들과 함께 리사무소를 찾아가 리장님과 노인회장님, 노인회 총무(강명원), 임경재 할아버지를 만나 청수리 마을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함께 제보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2차 사전 답사는 7월 10일에 이루어졌다. 각 조사반장들과 함께 지난주 파악했던 제보자를 만나볼 수 있었다. 강정여 할아버지와 문도하 할아버지를 만나 지명유래, 설촌유래, 민요, 설화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고 학술조사 당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

왔다.

3차 사전 답사는 7월 17일에 이루어졌다. 신앙반은 종교(천주교, 기독교, 불교)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다른 반들은 각각 제보자 확보에 노력을 하였다.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은 이두우 할아버지와 김이월 할머니는 동네 어르신들의 얘기를 듣고 집의 위치만 파악하였고 동네를 돌면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직접 찾아 뵙고 조사 당일날 많은 도움을 부탁드렸다.

4차 사전답사는 7월 24일에 이루어졌다. 4차 사전답사에는 마을개황 반장과 집행부로 이루어져 저청초중교 교장선생님을 만나 학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다시 한 번 협조를 부탁드렸다.

청수리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부녀회에서 노인분들께 점심을 대접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때 대부분의 노인분들께서 노인회관에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학술조사 당일날 더 많은 제보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당일날 사전답사 동안 파악했던 제보자외에 많은 어르신들과 만날 수 있었다.

본 조사에는 재직교수,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재직교수로는 최규일, 김태곤, 안성수, 문성숙, 손오규, 현승환 교수님, 국어교육과 총동문회(회장 김양택) 임원진과 동문들로는 변성구, 강영기, 고상수, 고진선, 강현영, 양정환, 고정녀, 김나영, 양현숙, 범설아, 김지연, 현미주, 장은주, 조선덕, 김윤희 그리고 현대문학 연구회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원우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특히 학과장님(현승환 교수님)과 강정식 선생님은 사전 답사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고, 본 조사에서도 숙식을 같이 하며 3박 4일 동안 모든 반을 지도하여 주셨다.

그리고 참가 재학생은 아래와 같다. (()안은 학년)

- 마을개황 : 김순화, 한혜경, 김동률(3), 김보경, 김선영, 이민희, 차은미(2), 고석범, 최현식, 양유아, 신재연(1)
- 신 양 : 고안나, 이은정, 고경림, 김정옥(3), 강희진, 김지현, 문경미, 임하

- 정, 김수홍(2), 이재호, 정은진, 조나리, 김세호(1)
- 설 화 : 강민정, 홍원정, 강희경(3), 송윤정, 이예슬, 고흥주, 고진선, 강수현, 김진철(2), 양철석, 김나래, 변종환(1)
- 방 언 : 강경탁, 강소은, 이승조, 고미지, 조서현(3), 양보라, 양희욱, 홍기환, 강성봉(2), 이승훈, 김현구, 김정옥, 김정숙(1)
- 민 요 : 김성희, 강지연, 우기성(3), 구어진, 함지영, 김이랑, 박윤미, 현준영(2), 문정현, 강주화, 정은지, 김희현(1)

마을개황

〈 목 차 〉

- | | |
|-----------|---------|
| 1. 자연환경 | 4. 산업환경 |
| 2. 역사적 배경 | 5. 세시풍속 |
| 3. 인문환경 | |

1. 자연환경

청수리는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45km에 위치한 중산간 마을이다. 이 마을은 (동)동경 126°11'에서 (서)동경 126°10', (남)북위 33°22'에서 (북)북위 33°23' 사이에 위치하며 동북쪽에는 한림읍, 남쪽은 대정읍, 서쪽은 신창리 환경면사무소가 인접해 있다. 이 곳의 평균 기온은 15.7℃이고 강수량은 평균 1,296mm이다.



팽나무

저지와 산양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청수리는 눈과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다. 밭농사를 많이 하며 마을 위쪽으로는 과수원도 흔히 볼 수 있다. 이 마을에는 65만평의 광활한 목장과 32ha의 감귤 수출단지가 있으며, 가마오름과 이계오름이 있다.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노거수로는 팽나무가 있으며 이는 구 마을회관 앞에 서식하고 있다.

청수리는 1930년경 255호에 1538명의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었는데 제주의 큰 비극인 4·3사건으로 인해 1948년 12월 전 주민은 해안으로

소개(疏開)되고 마을 전체가 초토화 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지로 재건되어 1949년 불타버린 마을을 복원하였다.

처음 청수리는 저지리에 속해 있다가 분향되었고 한 때 '청효수'로 표기하다가 1892년경 청수리라 칭하고, 1914년 청수리가 1, 2구로 구분되어 1구는 청수리로 2구는 수룡동, 연화동, 월광동, 자룡동, 다리왔동으로 행정구역을 분리하다가 1956년 1구는 청수리로 2구는 산양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용수상황을 보면, 예전에는 흑숫물, 청수물 등의 봉천수에서 물을 떠다가 썼다고 한다. 그리고 식수로는 쓰지 않고 목욕물 또는 소 먹이는 물로만 사용하였던 문가굿물과 호꾼물이 있었는데, 현재 호꾼물은 도로포장공사로 물이 나오지 않는다. 당시 물이 부족하여 가는 물줄기를 국자로 바가지에 담고 그 물을 다시 허벅에 담아 길어다 마셨다고 한다. 현재 농업용 지하수로써 모진홀 관정, 시귀리 관정, 축밭 관정, 뱅뒤 관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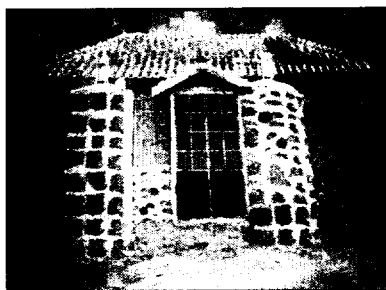
상권은 주로 마트를 이용하는데 한림, 모슬포, 대정 등으로 퍼져있다. 예전에 마을에서 운영하던 '구판장'이 있었는데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해 없어졌다가 최근 다시 보전시키려고 계획 중이다.

2. 역사적 배경

1) 설촌유래

설촌시기는 약 1650년경 청수리회관을 중심으로 남쪽에 제주 고씨와 진주 강씨, 동쪽에 임씨, 북쪽에 강씨와 고씨가 거주하며 취락구조를 형성하여 '설물촌'이라 하였다. 연대로 보아 강씨, 임씨, 이씨, 고씨가 12대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취락 연대를 300여년 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중 좌씨는 한일합방 훨씬 이전에 고산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후손이 없다. 특이한 점은 모두가 물가를 찾아 분포된 점으로 수원을 근거로 취락을 형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수물(淸水物)이라 함은 현재 청수리 1434번지 내의 작은 샘물로서 우기(雨期)엔 빌레름으로 맑은 물이 나와 주변 사람들이 식용수로 이용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며, 서기 1650년 좌씨의 설촌으로 닷대동산 아래 향도왓(상뒤왓)을 중심으로 여러 성씨가 거주해 왔다. 그 후 식용수(食用水)



구 마을회관

를 따라 공동사를 논의할 때에는 향도왓에서 집회를 하였고, 1810년경 구 마을 회관 터에 석조기와로 향사를 짓고 이를 중심으로 집단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한 때 청수(淸秀)로 표기하던 때도 있었으나 설촌 당시부터 청수리(淸水里)로 표기되어 고종 11년 제주목사 시절에는 구우면(舊右面) 청수리(淸水里)로 일제 때에는 한림면(翰林面) 청수리(淸水里)로 불리웠다. 이웃간에 즈냥 정신을 바탕으로 수놓음 등을 이루어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930년 경에는 255호에 1538명의 주민들이 거주하였다. 그 후 제주의 큰 비극인 4·3사건으로 1948년 12월 전 주민은 해안으로 소개(疏開)되고 마을 전체가 초토화(焦土化)되었으나 그 다음 해 3월부터 주민들의 불구의 의지로 재건이 시작되어 불타버린 마을을 다시 복원하였다.

2) 행정구역 변천

처음에는 지지리에 속해 있다가 분향되었다. 1914년 청수리가 1, 2구로 구분되어 1구는 청수리로 2구는 수룡동, 연화동, 월광동, 자룡동, 다리왓동으로 행정구역을 분리하다가 1956년 1구는 청수리로 2구는 산양리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청수·저지·조수 중에서 청수가 가장 늦게 설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은 지금으로부터 410년 전 청수·저지·조수로 부락을 이루어 흩어져 살기 전에 집단거주 하였던 용선달이가 있었다. 낙천, 청

수의 경계선인 용선달이에서 탕기남목 → 진트곶 → 알동네(고래모들 뒤) → 청수본동과 같은 과정을 거치다 보니 저지, 조수 보다 3~4대가 늦게 마을이 형성된 것이다.

3) 문화 유적과 특이지형

(1) 동전과 토기

지금으로부터 410년 전 청수·저지·조수로 부락을 이루어 흩어져 살기 전에 집단거주 하였던 용선달이가 있었다. 다음은 당시 용선달이에서 출토된 동전과 토기이다.



▶ 좌로부터 평생(平生), 평천(平天), 평왈(平臼)이라고 새겨져 있다

(2) 교과서

75년 전 청수·저지·조수·낙천 학생들은 조수보통학교에 다녔다. 여기서 청수분교로 떨어져 나왔다가, 저지와 청수지역을 합쳐서 저청초등학교가 생겼다. 오른쪽 교과서는 조수보통학교 시절에 쓰여졌던 교과서이다. 좌측에 있는 것이 '보통학교 한문독본' 6학년 교과서이며, 우측은 5학년 교과서이다.



교과서

(3) 가마오름

한경면 청수리에서 대정읍 무릉리를 잇는 지방도로(1120번)가에 위치하고 있는 오름이다. 주봉인 남쪽 봉우리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뺀 등성마루에는 언덕같은 봉우리가 솟아있고, 완만한 동사면은 북동쪽으로 말굽형 화구를 이루며 얇고 넓게 벌어져 있다. 이 오름은



가마오름

붉은 화산재 퇴적층이기 때문에 화구도 붉은 송이로 이루어져 있다. 해송과 잣목이 어우러져 숲을 이루고 있으며, 풀밭에는 슬패랭이꽃도 여기저기 보인다. 이 오름은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지금도 인공적으로 파놓은 수직굴이 여러개 산재해 있다. 산불 때문에 가마오름 꼭대기에 나무가 없으며, 관리인이 특정 철에 꼭대기에서 상주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 오름명의 유래·어원 : 오름산 모양이 가마솥을 엮어 놓은 모양과 같이 생겼다 하여 가마오름 혹은 부악(釜岳)이라 부르고 있으나, 학자들의 어원적 해석에 의하면 '가마'는 '감'에서 유래한 말로, '감'을 북방어로 신(神) 또는 신성하고 거룩하다는 뜻을 지닌 '곰' 계통의 말로 해석하고 있다. 즉, 가마오름은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4) 평화박물관(가마오름 땅굴)

가마오름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대가 주둔했던 땅굴진지였다. 현재 박물관 관장 이영근씨는 일제치하에 징집으로 노역을 했던 부친을 생각하며 이 곳에 평화박물관을 세웠다고 한다. 가마오름 진지는 알프르비행장(모슬포 군용비행장)과 연관되어 그 규모가 가장 큰 진지이기도 하며, 물이 귀한 제주에서 드물게 오름 근처에 샘이 있었던 것도 진지로 가장 적격인 이유였다고 한다.

청수리 평화마을 1166번지에 소재한 평화박물관은 제주도 제 2004-1호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 가마오름 땅굴은 일제가 이른바 '7호 작전'에 의해 1945년 3월 제주도에 제 58군 사령부를 창설, 도 전역에서 연합군과의 최후 일전에 대비해 구축된 진지 중 최대규모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총 길이가 약 2000m, 출



가마오름 땅굴

입구만 10곳이나 되는 이 땅굴은 수직으로 뚫려있는 2층 미로땅굴로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군사령부가 주둔했던 제주지역 가운데 일본군 최고 통치구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곳은 한번 들어가면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로형으로 되어 있다.

현재 개방되어 있는 가마오름 땅굴은 총연장 약 2000m중 300m정도이다. 높이 1.6~2m, 너비 1.5~3m 규모로 연결돼 있는 땅굴 내부에는 당시 사령관실로 추정되는 10평 남짓한 방과 회의실·숙소·의무실 등으로 추정되는 용도의 다양한 공간이 줄줄이 들어서 있다. 또 땅굴 입구에는 1만2천여평의 부지에 연건평 1백여평 규모의 전시실이 신축돼 전시에 발행한 주보 등 전쟁 자료 및 산업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창씨 개명, 공출, 정신대 모집 문건 등이 들어있어 아주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전시실에는 실제로 땅굴을 팔 때 토목공사 및 토지 공사에 사용했던 측량기며 나침반, 바닥을 다질 때 쓰였던 도구와 조명기구, 일본군 식기, 총기와 안장, 달구지, 전동기, 전등, 소화기 등 희귀 자료를 직접 볼 수 있다. 인접 1백여평의 영상실에서는 당시 탄약고, 전쟁시설물의 이동과 관리 등에 대한 증언내용이 상영되고 있다.

① 평화박물관 설립취지문

이 곳은 대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군대가 주둔했던 땅굴진지이다. 후세들이 전쟁의 현장에 찾아와 과거의 역사를 바로 배우고 반성함으로써 화합의 꽃이 피어나는 평화의 전당이 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증거물들을 모아 여기에 박물관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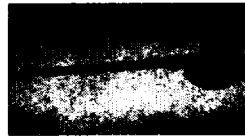


평화박물관

② 전시물

㉠ 땅굴 작업용 조명기구

땅굴 파는 작업을 할 때 벽에 꽃아 불을 밝히던 등잔으로 연료는 석유를 이용했다.



㉡ 바닥을 다지던 도구

땅굴 구축 등 각종 토목 공사시에 바닥을 다지는데 쓰였던 철구



㉢ 측량기

각종 토목공사 및 토지조사 사업 등에 쓰였던 측량기이며 나침반이 함께 달려있다.

측량기

㉣ 식기

일본군의 장교가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식기로서 별문양이 선명하다.



식기

㉤ 전시에 발행한 주보(週報)

당시 일본 정부가 각 부처별로 발표한 전쟁자료 및 산업자료를 일주일마다 발간한 관보성



격의 후보로서 창씨 개명, 정신대모집 문건 등이 들어있다.

(5) 순력 기념비

마을 남쪽 한 길에 지경청(地境廳). 목관 대정경계로써 관원의 순력시찬마소(贊馬所)에는 관원의 순력 기념비 7기 중 유각(有閣) 3기에는 철비(鐵碑) 1기가 있었는데 도난당하였으며, 석비(石碑)조차 보존이 안되고 있다.

(6) 효열부임칠진행적비(孝烈婦任七辰行蹟碑)

전면 중앙에 「孝烈婦任七辰行蹟碑(효열부임칠진행적비)」, 그 오른쪽에 「至哉孝烈 有一無二(지재효열 유일무이)」, 왼쪽에 「短碣表示 萬人仰視(단갈표시 만인양시)」라 음각 되어 있다. 비석이 세워진 연대는 1975년 7월이다. 비의 규모는 너비 34.5cm, 높이 84cm, 두께 17cm이며, 비각 속에 세워져 있다. 이 비문의 내용은 “씨는 풍천인으로 훈장 임성찬의 장녀인데, 15세되는 해에 진주인 훈장 강공우의 장자 수남에게 출가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다. 그러나 남편은 아들이 7살이 되는 무자년 11월 23일 갑자기 별세하여 애통함을 금할 길 없었다. 임씨의 나이 27세 때였다. 의지할 데가 없는 외로운 몸이었지만 극렬히 활동하여 자수성가하였는데, 어린 아들을 가르치고 남편의 삼년상과 시어머니에 대한 정성과 공양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풀이할 수 있다.



효열부임칠진행적비

(7) 이계오름

저지오름 남서쪽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오름으로, 서사면은 완만한 반면에 동사면은 가파르고 넓은 말굽형 화구 모양을 띠고 있다. 오름사면에 해송이 듬성듬성 서 있을 뿐 그 외에는 띠, 억새 등으로 이루어진 풀밭오름

으로 풀밭에는 쑥부쟁이, 슬패랭이꽃 등이 자생하고 있다.

●오름명의 유래·어원 : 처음에 '청수'와 '저지'를 합쳐서 '계지리(鷄旨里: 덕모르)'라고 하였는데 '청수'가 분리되어 나온 후에 현재의 '저지'를 계속 '계지리'라고 부르자니 어감상 좋지 않아 '저지리(楮旨里)'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이계오름의 경우 '이계악(離鷄岳)' 또는 '이계악(二鷄岳)'이라고 한다. '이계악(離鷄岳)'은 저지오름에서 병아리가 빠져 나왔다는 의미이고 '이계악(二鷄岳)'은 저지오름에서 2개의 병아리가 나왔다는 뜻이다.

(8) 장검터

몇몇 장군들이 이 곳을 지나가면서 바위 옆에다가 칼을 놓고 쉬어서 지나갔던 자리였다는 것이 근원이 되어 지금의 지명이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과수원으로 변해서 그 터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장검터'라는 지명은 전해지면서 '장검털'이라고 발음하기도 하였다.

(9) 흑숫물

흑숫물은 가장 큰 식수지로 사용되었다. 흑숫물의 원래 이름은 '홀습물(沍濕물)'이다. 처음에 이 곳에 물이 고이자 사람들이 계속 파기 시작했고 그러자 옆에서 물이 스며 나왔다고 한다. 약 20~30m를 파고 나니 주위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이를 '귀신의 소리'라고 하여 계속 파다가는 마을 주민들을 해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파지 않았다고 한다. 이 곳은 현재는 가시덤불이 우거져서 안을 볼 수가 없었다.



흑숫물

(10) 공동 목장

65만평의 광활한 목장으로 마을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청수리 사람

은 누구나 이 곳에서 가축을 방목시킬 수 있다. 겨울이 되면 집집마다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목장에 그대로 방치시키는 경우도 있다. 집집마다 키우는 마릿수가 많기 때문에 따로 낙인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이 곳은 야영지로 쓰기도 한다. 노루, 말, 소, 꿩, 오소리, 울빼미 등과 새우랑, 춘란, 철리향, 도토리나무, 녹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등이 있다. 앞으로 휴양림으로 개발할 계획도 있다고 한다.



(11) 할망당

지역 주민의 집안의 무병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음력으로 매년 3월 7일과 3일, 13일, 23일과 7일, 17일, 27일 안에 마을 부녀자들이 찾아 치성들이는 곳이다. 보통 저지, 청수리민이 다니며, 관리하는 무당에게 올리는 말을 하면 그 무당이 대신 빌어준다. 할망당에 갈 때 길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 효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할망당

(12) 용암자연동굴

공동목장 안에 있는 것으로써 흙 위로 용암이 흐르고, 흙이 침전하여 동굴이 생겼다고 추측된다. 동굴에서 '순가락'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4·3사건때 피난처 중 하나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암자연동굴

(13) 고래머들

2000평의 돌무지로서 방아돌, 고래돌을 채취, 운반하여 왔던 곳이다. 지금은 200년생 팽나무와 조록나무 등 울창하게 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중심부에 돌굴이 있어 토끼 및 쥐다리(속칭) 등이 서식하고 있다. 고산과 월령 사이의 바다에 나간 배는 이 곳을 위치표시로 하여 이정표로 삼는다고 전해온다.

3. 인문환경

1) 인구현황

청수리에는 2004년 8월 현재 총 170세대, 477명이 살고 있다. 해마다 인구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장년층의 도시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상 문제를 이유로 마을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4·3사건으로 1948년 12월 마을 전체가 초토화(焦土化)되어 고노령자가 많이 생존해 있지 않다.

● 청수리 인구현황

가 구	인 구(명)		
	계	남	여
170	477	227	250

<2004년 8월 1일 현재, 리사무소 제공>

2) 마을단체

마을 자생단체로는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청년 환경지킴이 동호회 등이 있다.

(1) 부녀회

부녀회는 만 65세 이하면 들 수 있으며 현재 40~50대를 중심으로 60여명 정도가 있으며, 부녀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부녀회의 활동사항을 보면, 매달 4번째주 금요일에 경로당에서 국수 잔치를 열어서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한다. 또한 청년회와 같이 해마다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연다. 그리고 일년에 두 번정도 폐품 수집(농약병, 비닐 수거)을 하는데 수고비가 조금 나온다고 한다.

(2) 청년회

청년회는 만20세 이상 만45세까지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청년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6월~9월에는 보건소에서 약품지원을 받아서 3일에 한 번씩 자율 방역작업을 한다. 또한 마을 알림 표지석을 세우며, 식목일 행사와 리 회관 주변이나 대도로변을 청소하고 풀베기를 한다. 또한 연합청년회 조직하에서 방법활동도 하고 있다. 청년회에서 맡아서 마을문고를 운영하는데 독후감 대회를 올 해부터 시작하려고 계획 중이다. 학생들 수가 적어서 공부방 운영은 못하고 독서 교실만 운영하고 있다. 독서 문고는 리사무소 개방시간 동안(오전 9시~오후 5시) 운영한다.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며 접수대장을 통해 대여현황을 관리하고 있다. 독서 문고는 5년째 운영 중이며 2천~3천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 책은 기증을 받거나 북제주군 문고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이익사업으로는 경계석(돌담)쌓기(회사위탁), 표지석 세우기(관 협조를 얻어서 함), 고철모으기(160만원 정도 수입) 등을 한다. 다음은 청년회 정관이다.

【청년회 정관】

•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청수리 청년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리사무소에 둔다.

제2장 목적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단합을 도모하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향통의 명예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회의 여하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제3장 회원의 구성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청수리에 거주하는 자로써 만20세 이상 만45세까지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4장 임원

제5조 (부서와 임원)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부장 1인
4. 총무차장 1인
5. 사업부장 1인
6. 체육부장 1인
7. 감사 2인
8. 직전회장 1인
9. 고문 1인
10. 자문위원 약간명

제6조 (임원중원) 본회의 운영상 임원의 중원이 불가피하다고 회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정하는 바에 구애받지 않고 임원회의에서 선임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만 2년으로 한다.
2. 임원은 연임·재선할 수 있다.
3. 임원의 결원시는 임원회의에서 보선하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만을 재임한다.

제8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선거직임원과 임명직임원으로 구분한다.

1. 선거직임원 : 선거직임원은 회장과 감사를 말하며 이를 본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명직임원 : 선거직임원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말하며 회장이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직능 및 의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와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등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이 되며 가부 동수일 경우 그 결정권을 가진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회장의 유고시나 사임시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총무부장 : 제반사항 및 사무, 재무관리를 하며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
4. 총무차장 : 총무부장을 보좌하고 회무에 주력한다.
5. 사업부장 : 사업의 기획·보도 및 모든 제반사업을 전담한다.
6. 체육부장 : 체육발전에 대한 제반업무 및 본회의 조직관리와 친목 도모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7.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반업무를 조언한다.
8. 고문: 회장의 필요시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언한다.
9. 감사: 업무의 집행과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10. 자문위원 : 회무운영에 관하여 총회 및 임원회에 참석하여 조언 및 발언을 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없다.

제5장 회의

제10조 (회의의 구분)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제11조 (총회의 소집과 의장) 총회의 소집은 다음에 의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안건
5.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제13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중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무는 총회 종료 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을 다음 총회에 낭독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임원회의의 구성) 본회의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회장을 비롯한 전 임원
2. 고문
3.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본 정관에 별도로 정하는 이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제출한 의안
2.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의안
3. 임명직 임원의 임명 인준
4.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임원회의 의사록) 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임원회의 종료 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자기 임원회에서 서명을 받는다.

제6장 사업

제19조 (목적) 본회는 제2장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자체 수익사업
2. 각종 봉사 활동 시행
3. 각종 대회 출전
4. 경로잔치 개최(부녀회 공동 주최)
5. 기타 필요한 사업

제7장 재정

제20조 (수지) 본회의 재정은 사업수익금·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 (회계구분) 본회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1. 일반회계 : 일상의 사업수행에 관한 수지를 정리한다.
2. 특별회계 : 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사업에 관한 수지를 사업별로 정리한다.

제23조 (보고) 재정담당자는 본회의 재정현황을 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재정관리) 본회의 모든 재정은 공인된 금융기관에 유치하여 관리한다.

제25조 (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 및 기금에 대하여 반제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장 관리

제26조 (정관 등의 비치) 회장은 정관 및 재규정이 회원명부 그리고 모든 회의록을 항상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보고서 제출) 본회는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일자로부터 5일 전까지 전년도에 대한 사

업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등 해당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상벌

제28조 (상)

1.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한해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서 결정한다.

제10장 보칙

제29조 (일반관례) 본 회칙 또는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민주주의관에 따른다.

부칙

제30조 (효력) 본 회칙은 통과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환경 지킴이 동호회는 마을 주민 전체가 회원으로서 주로 공동목장 안에 있는 회귀석, 회귀식물을 도굴해가는 도굴꾼을 감시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청년 환경지킴이 동호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청수리 청년 환경지킴이 동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청수리에 둔다.

제3조 (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 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4조 (목적)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연환경 보존에 앞장 서며 회원들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자생 동·식물 관찰 및 자연생태계 보존
2. 회귀식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존
3. 생활쓰레기 및 농로 주변 폐비닐, 농약 등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노력
4. 유관 단체와의 정보교류
5.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자격)

1. 일반회원

- 1) 본회의 취지를 찬성하는 자로써 청수리에 주소를 두고 자연환경에 관심이 있는 청수리민
- 2) 본회의 취지를 찬성하는 자 중에서 임원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2. 명예회원 : 특별히 본회에서 추대된 자

제8조 (고문·자문 위원)

1.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 활동의 기본 계획과 장기 발전 계획 수립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2. 고문과 자문 위원은 임원회의의 제청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위촉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하게 갖는다.
2. 일반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명예회원과 고문·자문위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4.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행사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0조 (자격상실)

1. 회원이 본 정관에 위배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총칙

제11조 (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 (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두 종류로 한다.

제13조 (총회의 소집과 의장)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장이 임원회의를 거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1/3인 이상의 일반회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제14조 (총회의 의결사항)

1. 정관의 개정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4.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정된 안건
5.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

제15조 (총회의 의결)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 일

반회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총무는 총회 종료 후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을 다음 총회에 낭독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임원과 임원회의

제17조 (임원의 구성)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감사 2인
4. 총무부장 1인
5. 사업부장 1인
6. 체육부장 1인
7. 보도부장 1인
8. 환경부장 1인

제18조 (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중에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로 한다.
3. 임원의 임기 종료 후 후임자의 취임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체 회무를 집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부재시에 회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한다. 정기감사는 12월 중,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하고 실시결과는 총회에 보고하며 그 시정을 회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4. 총무는 회원의 관리, 기록업무, 그리고 본회의 재정, 회계를 담당한다.
5. 사업부장은 본회에 필요한 사업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6. 체육부장 : 본회에서 체육행사시 그 업무를 총괄한다.
7. 보도부장 : 대내외 업무부문과 보도부문을 총괄한다.
8. 환경부장 : 환경보호를 위한 제반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제22조 (부원)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각 부서는 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반회원 중 소수를 그 부원으로 확충할 수 있다.

제23조 (임원회의 구성)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으로 한다.

제24조 (임원회의 소집)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25조 (임원회의 의결사항)

1. 총회에 제출하여야 할 사항
2.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3. 회원의 상벌에 관한사항
4. 사업 계획 및 예산결산 등
5. 회원 가입에 관한사항
6. 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기타

제26조 (수지)

1. 본회의 자산은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본회의 경비는 자산으로 충당한다.
3. 본회의 자산을 별도의 회계규정에 따라 운용된다.

제27조 (자산의 단체성) 본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28조 (회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2종으로 구분한다.

제29조 (포상 및 상조)

1. 본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 및 외부인사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친목과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기 위하여 상조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상조금을 지급한다.
3. 포상 및 상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정관은 200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미비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나 총회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노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 노인회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노인회라 칭한다. (이하 한경면 노인연합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청수리 내 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며 노인들의 넓은 지식과 다양한 경륜을 한데 모아 지역사회의 고유문화와 역사를 발굴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켜 어려워지는 사회질서를 바르게 교정하여 명량 사회건설을 기여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한경면 청수리 경로당에 둔다.

제2장 조직

제4조 (회원의 구성)

1. 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한경면 청수리에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구성한다.
2. 총회는 청수리 노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참여권 및 의결권
2. 선거권 및 보선권

제6조 (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준수의 의무
2.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제3장 회의

제7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개최한다.
2.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한다.

제8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 제정·개정
2. 예산·결산 승인
3. 사업계획의 채택
4. 임원의 선출

제9조 (회의) 본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정족수) 본회의 정족수는 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임원

제11조 (임원)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고문: 약간명)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이사 3인
5. 감사 2인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 리 노인회장의 임기에 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단 1회에 제한한다)

1.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이취임은 당해 3월 1일로 정한다.

제13조 (임원의 기능) 본회 임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임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3. 총무 : 회장을 보임하고 제반 서무와 재정을 관장하며 예산결산안을 작성하고 경리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
4. 이사는 임원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심의한다.
5. 감사는 본회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6.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와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4조 (재정의 조달) 본회의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1. 기부금
2. 보조금
3. 특별회비

제6장 보칙

제15조 (보칙)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며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규칙을 제정하여 총회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제16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9년 5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8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1년 2월 12일 개정 시행한다.

그리고 게이트볼 동호회가 있는데 대부분 50대 이상의 노인들로 구성되었다. 7년 정도 되었으며 대한노인회 게이트볼 협회에 등록되어 있어 경기가 있을 때마다 연락이 온다.

【향약과 새마을회 규약】

① 청수리 향약

• 전문

우리 이민 일동은 도덕성과 자조정신을 바탕으로 마을의 모든 일을 긍지를 모아 해결하며 이웃간의 결속을 도모하고, 서로밀고, 서로돕는 화합 풍토를 조성하여 더불어 잘사는 청수리를 건설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리민 총회의 의결로써 이 향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향약은 「청수리 향약」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향약은 우리 마을의 옛부터 전승되어온 상부상조의 정신과 미풍양속의 전통을 계승하고 리행정의 원활한 추진 및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성, 인간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이루는 정의사회를 구현, 마을의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향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제3조 (향원의 자격) 본리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본리 출생자

제4조 (향원의 권리) 향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의 의결
2. 임원 선거와 피선거권
단, 의결권과 선거권은 선거기준일 만20세,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약정사항)

1. 검소한 생활과 건전 가정의례 준칙을 지킨다.
2.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지킨다.
3. 마을 주변의 미화는 물론 향토 문화 보호에 앞장선다.
4.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리행정 발전에 앞장선다.
5. 그 외 리민 총회시 결정사항을 지킨다.

제3장 회의

제6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개발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리의 전반사항을 의논·처리하기 위해 정기총회를 두며 익년 2월 중 리사무소에서 개최하며 개최일로부터 5일전 공고하고 출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기총회가 특별한 사항으로 일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발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개발위원회에서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9조 (개발위원회) 개발위원회는 리 개발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진행하기 위해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개발위원 1/3이상 요구시에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항의 해당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향약의 개정
2. 리민의 규제
3. 임직원의 선출과 해임
4. 예산, 결산 승인과 사업계획 승인
5. 리민의 부담이 되는 재산의 설치
6. 리 재산의 처분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1조 (개발위원회 의결사항) 다음 각 항의 해당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향약의 수정 심의
2. 리이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3. 리민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리민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리민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6. 각종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7.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심의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9. 기타 면장, 리장의 부의한 사항

제12조 (회의록 작성)

1. 각종 회의시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다음 회의 때 발표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회의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회의록 서명인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

제13조 (임직원) 본리에서는 다음의 임직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명 (형편에 따라)
2. 리장 : 1명
3. 새마을 지도자 : 약간 명
4. 개발위원회 : 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15명 내외
5. 사무장 : 1~2명
6. 반장 : 북제주군 반조례에 의거 선출

제14조 (임직원의 자격)

1. 고문은 리 개발에 적극 참여한 자 또는 리민의 신망을 받고 리정 수행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리장이 추대한다.
2. 리장은 리민총회, 주민투표, 리개발위원회, 전형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면장에게 추천한다.
3. 새마을 지도자는 리장이 추천, 개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
4. 개발위원장은 직전 리장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부위원장은 개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6. 개발위원 중에는 여성위원 4명 이상을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7. 감사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8. 자연마을별 동장은 마을 실정에 맞게 구성한다.
9. 사무장은 리장이 개발위원회에서 승인받아 임용한 자로서, 회계처리 능하고 충실하며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있어야 한다.

제15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에 의한다.

(단, 리장은 재선임을 득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시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총회시까지 한다.)

1. 리장: 2년
 2. 새마을 지도자: 2년
 3. 개발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2년
 4. 감사위원 : 2년
- 단, 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무)

1. 고문은 리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며 모든 회의시 참여해야 한다.
2. 리장은 본리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시 의장이 된다.
3. 새마을 지도자는 리장을 보좌하고 리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리장을 보좌하고 리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개발위원은 리장을 보좌하고 리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결산 및 제반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다.
6. 감사위원은 예산·결산의 집행 및 사업계획 추진 상황을 수시 감사하고 개발위원회와 총회에서 보고한다.
7. 동장은 동을 대표하여 리 행정에 적극 협조한다.
8. 사무장은 리 제반 사무처리를 하며 리장을 보좌한다.
9. 반장은 반원을 대표하여 리 행정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제17조 (보수 및 활동비) 예산범위 내에서 리장에게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사무장에게는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한다.

제5장 사업

제18조 (사업계획)

1. 연간 사업계획은 매년 초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의를 받는다.
 2. 수시 사업계획은 개발위원회의 결의로써 총회의 결의를 대행한다.
- 제19조 (사업진행)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개발위원회에서 위임·집행하게 한다.
제20조 (사업감사 보고) 감사위원은 사업의 진행상황 및 수시감사 상황을 개발 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 제21조 (재정) 재정은 리 운영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2조 (예산처리) 리 운영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하고, 과부족시에는 추가 예산을 책정한다.
제23조 (재정관리) 리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항이 없는 한 사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단, 법정관리를 요할시는 개발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4조 (회계) 회계연도는 익년 1월 1일부터 연도 말을 기준하여 익년 총회 시 결산보고 한다.

제7장 재산관리

- 제25조 (목적)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의 증식과 생산적 활동을 도모 함에 있다.
제26조 (적용범위)
1. 이민의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
 2. 독지가가 기증한 재산
 3. 리 공동재산으로 전하여 내려온 재산
 4. 개인재산으로써 리 공동계약 등에 의하여 공동 수익관리 하는 재산
 5. 기타 리 공유의 재산
- 제27조 (리민의 권리와 의무)
1. 리민은 누구나 이 재산을 공공수익 하는 권리와 함께 재산의 조성 과 관리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2. 리민은 누구나 규정된 이 운영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28조 (재산관리와 사용) 이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관리가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일 때는 위임 또는 임대 사용계약 등에 의하여 리민 등 개인에게 관리 및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재산관리 책임자) 재산의 관리 의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재산 관리위원을 두며 재산관리위원은 리장, 새마을 지도자, 개발위원

장으로 구성하고 권리의무를 다하게 한다.

제30조 (임무) 재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책임 지리토록 한다.

1. 리 재산의 일반적 관리
2. 재산 등기신청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결의된 재산에 관한 매수, 임대, 처분 등의 계약처리 사항
4. 기타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 (부동산 등기)

1. 이 재산의 등기는 리민 총의로 하며 3인의 재산관리 위원을 대표로 법원에 등기한다.
2. 재산상의 관리에 변경이 발생시에는 재산관리 위원은 즉시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
3. 재산관계 권리의무에 관한 증서 및 기타 서류는 재산관리위원회인 리장이 책임·보관·관리한다.

제32조 (재산관리 대장) 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리장이 관리한다.

제8장 상벌

제33조 (상) 개발위원회 결의로써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표창 할 수 있다.

1. 리 개발에 유공한 자
2. 리 개발에 유공한 단체
3. 기타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 등

제34조 (벌) 건전한 마을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리민의 명의로 근신, 경고, 고발 조치한다.

1.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저해한 자
2. 각종 행정시책을 저해하는 자
3. 기타 주민들의 지탄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제1조 : 본 향약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 (시행일) 본 향약 서기 1998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청수리 새마을회 규약

•전문

우리 마을사람 일동은 우리의 노력과 알뜰한 정성으로 조성한 마을의 귀중한 재산을 우리의 손으로 가꾸고 관리하여 마을주민 누구에게나 이익이 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더욱 늘려서 우리 마을에 몸담고 살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많고 알찬 마을재산을 돌려주기 위하여 마을총회의 결의에 따라 오늘의 이 규약을 제정한다.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우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조성한 마을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산의 증식과 생산적인 활용을 도모하도록 한다.

제2조 (명칭) 이 규약을 관장하는 단체의 명칭은 청수리 새마을회라 칭한다.

제3조 (사무실) 이 규약을 관장하는 단체의 사무소는 북제주군 한경면 청수리 1636-1번지(청수리 새마을 회관)에 둔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마을기금조성 조례의 적용을 받는 현금, 증권 등 동산과 농협 산림계, 수협 등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마을주민의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
2. 독지가 등으로부터 마을에 기증된 재산
3. 마을 공동재산으로 전해져 내려온 재산
4. 개인소유 재산으로서 마을주민의 공동계약 등에 의하여 공동관리 하는 재산
5. 기타 마을 공유 재산

제5조 (마을재산과 주민의 권리·의무)

1. 우리 마을주민은 누구나 마을재산을 공동수익하는 권리와 재산의 조성·관리·운영에 필요한 부담을 함께 진다.
2. 마을주민이 전출입에 새로 이사를 오거나 이사를 간 때에는 전출입과 동시에 마을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얻고 또 잃은 것으로 한다.

제6조 (사업용 수익재산에 대한 권리관계)

1. 마을양묘, 축산, 감귤원 등과 같이 사업용 재산의 조성·관리에 있어 별도의 약정에 따라 조성·관리하고 있을 때에는, 새로 이사 오는 사람 중 그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사람은 가입금을 부담하고 이사가는 사람에게는 그 의사에 따라 권리 해당액을 환불해 주거나 권리를 계속 가지게도 할 수 있다.
2. 전 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금과 권리금액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재산별 결정에 따라 리, 동 개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우리 마을 재산관리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청수리 리장을 재산관리자로 하여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제8조 (재산 관리자가 해야 할 일) 마을재산 관리자는 마을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한다.

1. 마을재산의 일반적 관리 사항
 2. 재산의 등기신청에 관한 사항
 3. 재산 등기사항의 읍(면) 마을재산 대장예의 등재 사항
 4. 주민총회의 결의된 재산에 관한 매수, 임대, 처분 등의 계약관한 사항
- 제9조 (대표권) 우리 마을재산에 관한 매입, 처분 등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청수리 리장(현직 리장)은 당연히 본 규약 제8조에 의하여 재산관리 대표자가 되어 등기 등 모든 업무에 대표권을 가진다.
- 제10조 (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마을 재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은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주민부담이 수반되는 마을 재산의 설치 사항
 2. 마을재산의 매입·처분. 다만, 경미한 동산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마을재산의 연도 결산 사항
 4. 기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11조 (재산관리 대장) 마을 재산관리를 위하여 별도 서식에 의해 재산관리 대장을 두고 리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한다.
- 제12조 (연도 결산 및 감사) 재산의 관리자는 매년 말 마을재산을 결산하여 리, 동 개발위원회의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받도록 하고, 감사위원회는 그 결과를 익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시행 세칙) 이 규약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리, 동 개발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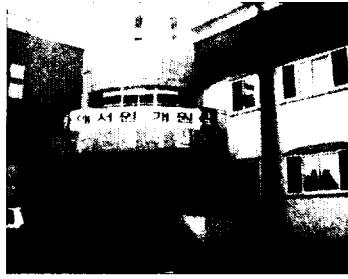
이 규약은 1998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3) 복지시설

(1) 미혼모 복지시설 <애서원(愛瑞園)>

<애서원(愛瑞園)>은 사회복지법인 청수에서 설립한 미혼모 복지시설이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던 임애덕씨는 60여 차례에 걸친 제주도 여성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미혼모 시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 결과 시대적 욕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2003년 8월 사회복지법인 청수 애서원 소재지인 한경면 청수리 573번지

1580평을 매입하여 2004년 6월 3일 애서원을 준공하였다. 2004년 6월 22일 미혼모시설인가를 받고 미혼모 입소를 받고 있는 중이며 현재 2명이 입소되어 있고 1명이 입소 예정이다. 2004년 7월 8일 제주도민들의 깊은 관심과 후원 속에서 공식적인 개원식을 하게 되었다.



애서원

① 사회복지법인 청수 연혁

- 2003. 4. 22 사회복지법인 청수 설립
- 2003. 6. 3 미혼모시설 애서원 신축
- 2004. 6. 22 미혼모시설 애서원 개원
- 2004. 7. 8 개원식

② 사회복지법인 청수 사업 종류

- 미혼모 및 양육모 관련사업
- 입양상담사업
- 모·부자복지사업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사업
- 여성복지사업
- 연구조사사업
- 사회복지 국제교류사업
- 기타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③ 애서원(愛瑞園) 설립목적

- 미혼모들의 안전한 분만
- 미혼 양육모들에게 쉼터 제공
- 사회 재적응과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천

- 미혼모와 미혼 양·육모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 사회적 인식변화와 제도 및 법적 변화를 도모

④ 애서원(愛瑞園) 지원 프로그램 내용

- 숙식 제공 및 분만 의료지원 프로그램
- 입양상담 프로그램
- 미혼모 예방교육 프로그램
- 직업교육 프로그램
- 진로 프로그램
- 결연사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 프로그램
- 문화교육 프로그램
- 상담 프로그램
-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
- 국제입양아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프로그램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 시설현황

대지	4332m ²	건평	788.48m ²
1층	사무실, 의무실, 상담실, 회복실, 프로그램실, 제어반실, 법인사무실, 주방 및 식당, 숙직실, 거실, 대기실		
2층	거실, 다목적실, 휴게실, 사우나, 도서실, 정보화교육실		
정원	연못, 채소밭, 꽃밭, 잔디밭 조성		

(2) 보건진료소

- 보건진료소는 제주 중산간 지역에 있는데 현재 약 43곳에 존재한다. 청수리에 보건진료소가 설립된 지는 약 15년 정도 되었고, 국가에서 건물이나 인건비를 부담한다.

- 진료기관에서 자체로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를 받거나 약을 받아 때는 본인부담금 900원을 내야한다.(의료보험도 가능하다.)
- 한 분의 보건진료원이 청수(월, 수, 금)와 산양(화, 목, 토)을 이동진료를 한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휴무이다.
- 이 곳은 주로 리민이 이용하나 가끔씩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이용한다.
- 보건진료원(간호사)은 약 3년 주기로 발령이 난다. (3년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더 단축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

① 활동

-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혈압이나 당뇨 등을 체크해준다.
- 감기, 설사 등 간단한 질환인 경우 약을 처방하거나 진료를 한다.
- 혈당, 혈압 체크 등은 수시로하며 무료이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직접 방문하며 진료한다.

또한 청수리에는 건강관리센터가 있는데 이 곳에는 여러가지 운동기가 있다. 농업으로 인해서 피로한 몸을 이 곳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한다.

4) 교육기관

청수리의 교육기관은 저청초등학교와 저청중학교, 병설유치원이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한림이나 제주시에 위치한 학교로 진학한다. 이러한 교육시설의 부족은 청수리의 인구감소의 원인이기도 하다.

(1) 유치원

① 연혁

- 1985. 8. 3 저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립 인가 (1학급)
- 1985. 9. 5 저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

- 2002. 9. 1 제 6대 강지순 원장 부임
- 2004. 2. 5 제 19회 졸업 11명(남 1명, 여 10명) 계 321명

② 원아 실태

●연령별 원아 재적 현황

성별 \ 연령(만)	4세	5세	계
남	·	11	11
여	3	3	6
계	3	14	17

●마을별 원아 수

인원 \ 마을별	저자리	청수리	월립리	금능리	계
인원 수	6	9	1	1	17

(2) 저청초등학교

① 학교 연혁

- 1950. 6. 1 저청초등학교 개교(3학급)
- 1951. 9. 1 6학년 6학급 인가
- 1970. 3. 1 6학년 12학급 편성
- 1973. 3. 1 벽지학교 지정
- 1979. 6. 1 문교부 지정 학교급식 시범학교
- 1983. 9. 1 11학급 조정 편성
- 1985. 3. 1 도교위 지정 급식연구학교
농수산부 지정 식생활개선 협력학교
- 1985. 8. 3 병설유치원 설립 인가(1학급)

- 1989. 3. 1 6학급 편성
- 1989. 9. 1 벽지학교 해제
- 1996. 3. 1 초등학교로 개명
- 1999. 9. 1 저청 초·중학교 통합
- 2002. 9. 1 통합 2대 강지순 교장 부임
- 2004. 2. 6 제 53회 졸업 16명, 총 졸업생 수 2,847명

② 학생 실태

• 학급 편성 및 학생 수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		1	1	1	1	1	1	6
성별	남	4	2	11	19	15	11	62
	여	11	10	9	9	11	20	70
	계	15	12	20	28	26	31	132

• 거주지별 학생 수

성별 \ 마을명	저지리	청수리	월립리	산양리	기타	계
남	30	19	7	3	3	62
여	37	17	10	3	3	70
계	67	36	17	6	6	132

• 저청초등학교 졸업생 현황(최근 5년)

회수	남	여	계
49	11	18	29
50	9	15	24
51	14	9	23
52	7	10	17
53	7	9	16

•교직원 현황

내용	직위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계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계	총계
	인원	남			1	3	4			1	1
여			1	1	2	4	1	2		3	7
계			1	2	5	8	1	2	1	4	12

(교장, 일반직 및 기능직은 초·중등 겸임)

•교육 시설

교지

구 분	기 본 대 지					실습지	총 계
	대지	체육장	정구장	주차장	계		
면적 (m ²)	9,145	5,080	703	989	15,917	5,692	21,298.2

건물

구 분	일반 교실	연수 실	방송 실	어학 실	정보 실	과학 실	창고	숙소	화장 실	다목 적실
실수	6	1	1	1	1	1	1	1	3	1
면적 (m ²)	405	67.5	34	67.5	67.5	67.5	62.7	80	90	80.5

•부대 시설

구분	식당	가스실	급식창고	물탱크
실수	1	1	2	2
면적(m ²)	201	7.85	54.85	26

(3) 저청중학교

① 학교 연혁

- 1958. 10. 16 구립 저청고등공민학교 설립
- 1963. 9. 14 구립 저청고등공민학교 교지 9,474㎡, 교사 234㎡를 기본재산으로 중학교 설립인가 신청
- 1963. 12. 4 저청중학교 3학급 설립 인가
- 1964. 3. 4 초대 김진천 교장 부임
- 1964. 3. 10 개교
- 1967. 12. 5 자활학교 육성 우수학교 문교부 장관 표창
- 1973. 2. 28 6학급 증설
- 1985. 9. 2 본관 개축(교실 4, 관리실 1)
- 1986. 8. 30 자연풍경식 석루선형 조경(670㎡) 완공
- 1991. 12. 20 학교체육 운영평가 우수학교 체육 청소년부 장관 표창
- 1992. 9. 12 전도 종별 연식 정구 6연승
- 1999. 9. 1 저청 초·중학교 통합
- 2002. 9. 1 통합 2대 교장 강지순 선생 부임
- 2004. 2. 5 제 38회 졸업 20명, 총 졸업생수 2,466명

② 학생 실태

● 학급 편성 및 학생 수

학년		1	2	3	계
학급		1	1	1	3
성별	남	8	6	10	24
	여	9	9	6	24
	계	17	15	16	48

• 거주지별 학생 수

마을명 성별	저지리	청수리	월림리	산양리	계
남	12	9	2	1	24
여	10	13	0	1	24
계	22	22	2	2	48

• 보호자 직업별 학생 수

구분	농업	자영	축산업	회사원	노동	기타	계
인원	32	3	2	1	3	7	48

• 저청중학교 졸업생 현황(최근 5년)

회수	남	여	계
34	19	12	31
35	12	15	27
36	10	19	29
37	10	17	27
38	12	8	20

• 교직원 현황

내용	직위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계	일반직	기능직	계	총계
		남	1	1	1	5	8	2	2	4
여				2	2		1	1	3	
인원	계	1	1	1	7	10	2	3	5	15

(교장, 일반직 및 기능직은 초·중등 겸임)

• 시설 현황

교지 (단위: m ²)	체육장	정원 및 교사대지		건물면적		실습지	계
	11,437	3,652		1668.79	5,945	21,034	
건물 (단위: 실)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화장실	부속실	계	
	3	7	2	2	4	18	

4. 산업환경

청수리는 한경면의 동쪽 내륙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감귤소득이 전체 소득의 60%이상을 차지하며, 맥주보리와 콩도 많이 생산된다. 보리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감귤재배 면적은 증가 추세에 있다. 즉, 주산업은 감귤이며 복합영농으로 오곡, 콩, 보리, 마늘, 감자 등을 재배하며 하우스 시설로 토마토, 복숭아 등을 재배한다. 상거래는 농업계통 출하를 주로 하되 일반 상인들에게 거래하는 것도 있다. 이 곳에는 감귤수출단지가 있는데 임안순씨는 97년 한라 '웃뜨르(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공해로부터 해방된 지역)'라는 상표등록을 했다.

•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m²(필지수)

계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기타
7,320,961	5,120,435 (1989)	9,783 (3)	2,189,441 (801)	1,230 (1)	72 (1)

<2004. 8. 10 현재 한경면사무소 제공>

• 2003년도 주요 작물 재배면적

토지재배 단위: ha

마늘	양파	김장무	겨울감자	참깨	감귤	합계
13	4	7	8.1	10	160	202.1

시설재배 단위: ha

채소	감귤	합계
2	3.6	5.6

<2004. 8. 10 현재 한경면사무소 제공>

• 2004년도 하작물 피종상황

단위: ha, 호

계		옥도		콩		기타두		감자		조		팥		기타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135	136.5	10	5.0	70	91.8	1	2.9	5	3.4	3	6.9	30	18.2	16	8.3

<2004. 8. 10 현재 한경면사무소 제공>

• 축산 및 가축 현황

소	말	닭
321 두	30 필	24,000

5. 세시풍속

1) 1월

① 정월맹질 : 음력 정월 초하룻날 청수리 사람들은 상에 음식을 올리고 절하는 정도로 차례를 지낸다. 곤밥(쌀밥), 흰떡, 세미떡, 동글락 떡, 인절미, 친떡, 곤떡, 송편 세미(반달떡), 빙떡, 돼지고기·소고기 적, 매물(내물)적, 포적(메밀가루로 만듦) 등을 해 먹는다. 빙떡은 솔뚜껑에 메밀을 지져서 무를 썰어 넣어 말아서 만든다. 떡국은 먹지 않고 메밀가루로 칼국수를 해서 먹는다. 그 후 친족끼리 돌아다니며 세배를 했었는데, 초하룻날부터 보름까지 15일간 세배를 다닐 수 있었으며 감주를 달여서 한잔씩 주기도 했으나 지금은 거의 끊어졌다. 명절 옷 준비는 맴매를 해다가 물레를 돌려 실을 뽑아낸 후 옷을 해 입었다. 놀이로는 별다른 것이 없고 사내 아이들이 연올리기(연날리기)를 하는 정도였다.

② 포제 : 마을 전체의 평안을 기도하기 위해서 포제를 지낸다. 약60여년 전까지는 포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음력 정월 중 좋은 날을 택해서 포제를 했는데 제관은 부르는 사람, 축 읽는 사람 등 7명 정도로 구

성 되었다. 제관은 동네에 있는 사람으로
서 글을 알고 인물이 좋은 사람을 뽑았
고, 재혼한 사람이나 복 없는 사람은 제
관으로 뽑지 않았다. 포제단이 있는 포제
동산에서 제를 지냈는데 그 곳에 천막을
치고 포제단에 음식을 올리고 절을 하였
다. 지금은 곳자왈이 되어 들어가지 못한



포제동산

다. 포제 음식은 마을에서 가장 잘 사는 집에서 마련을 했다. 포제를 지내
기 전 연습이 이루어지며 대개 새벽 1~2시경에 포제를 지냈다.

③ 신구간 : 신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가서 지상에 귀신이 없다고 여겨
서, 이 기간동안 이사, 집수리, 산천리(묘를 옮기는 것)등 그 동안 동티가
날까봐 두려워서 미뤄왔던 일을 한다. 청수리에서는 정월 설달, 입춘 일주
일 전을 묵은 것이 다 넘어가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간에 통시(화장
실)를 고치면 동티가 덜 난다고 한다. 신구간에 이사를 갈 때 이사 가는 사
람이 살던 집을 청소하고 가면 다음 집 주인에게 해를 끼친다고 하여, 이사
가는 사람이 아닌 이사 오는 사람이 집 청소를 한다. 이사 올 때는 솔뚜껑
과 요강 단지를 먼저 가지고 가야 한다.

2) 2월

① 입춘 : 새봄이 되면 집집마다 한해의 소원이나 복을 빌었다. 입춘이
되면 금기하는 것이 많았다. 특히 여자의 바깥출입을 금하였다. 이 날 여자
가 이웃집을 방문하면 재수가 없고, 밭에 가면 검질(김)이 무성해진다고
여겨, 이를 삼갔다. 팔을 뿌려 귀신을 물리치기도 하였으며 '입춘'이라는 글
씨를 써서 대문에 붙이기도 했다. 이 날에는 쌀밥과 고깃국을 먹는다.

3) 3월

① 묘제 : 삼월 삼진날 평소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5대 이상의 조상의
묘에 벌초를 하고, 제를 지낸다. 묘제는 3월 안에 대부분 끝나며 부득이한

경우 가을에 지내기도 한다. 켄당 집에서 날을 지정해 묘제를 지낸다. 이를 테면 열사흘, 열나흘, 보름 등으로 지정한다. 각 켄당끼리 따로 지내며 날 짜는 서로 다르다.

4) 4월

① 초파일: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등을 달고 집안의 안녕을 빌었다. 또한 이 날 갓난아기의 머리를 깎았다. 이 날 처음으로 머리를 깎으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한다. 사월 초파일 날 날씨가 따뜻하고 바람이 선 선하게 불면 그 해 깨 농사가 잘 되고 날씨가 궂으면 깨 농사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② 청명 : 보리 이삭이 하나씩 나기 시작하고 꿩이 새끼를 낳는 시기이다.

5) 6월

① 갈중의 만들기 : 감나무에서 딱 감을 뺏아서 광목 위에 그것을 놓고 손으로 빨래하듯이 문질러 감물을 들인다. 감물을 들이고 말리기를 10번 정도 반복한다. 갈중의를 입으면 땀이 나도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고 시원 해서 여름에 많이 입었다. 음력 5월에 만드는 것이 좋다. 감나무를 키우는 사람도 있었고 없는 사람은 감을 사다 들었다. 예전엔 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옷을 빨아도 지저분해 보여 감물을 들이지 않으면 옷을 입을 수 없었다.

② 닭 잡아먹는 날 : 음력 6월 20일에 무더운 여름을 나며 원기를 다 빼앗겼기 때문에 원기회복을 위해 보신용으로 닭을 잡아먹었다. 돼지고기는 귀했기 때문에 그 대용으로 닭을 먹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병아리를 먹이기도 했다. 예전에는 토종닭을 길렀었는데 이젠 개 때문에 기르지 못한다.

③ 개역 : 보리가 익으면 솔이나 솔뚜껑에 보리쌀을 볶은 뒤에 갈아 미숫가루를 만들었다. 이를 '개역'이라고 한다. 이는 여름 별미로써, 일을 가거나 더위를 피할 때 많이 먹었다고 한다. 여유 있는 집안은 더 좋은 맛을 내기 위해 콩을 같이 갈아 넣기도 했다.

6) 7월

① 백중 : 7월 19일은 물을 맞는 날이다. 청수리에는 마땅히 물을 맞으러 갈 곳이 없어 신창, 안덕 계곡으로 물을 맞으러 갔다. 백중날 물을 맞으면 더위를 먹은 사람은 더위가 깬다고 한다. 또한 물을 맞으면 뚝두드레기(뚝뚝이)에 좋다. 백중물을 먹으려고 보말이 바다에 숨어 있다가 나온다는 '백중 물 먹젠 바당에서 보말 나온다'라는 말도 있다.

② 칠월칠석 : 칠월칠석이 되면 사람들은 절에 가서 가족들의 평안을 위해 불공을 드린다.

7) 8월

① 소분 : 산에 가서 잡풀을 베고 깨끗이 하는 일을 소분이라고 한다. 음력 8월 초하루에 흠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조상의 무덤에 벌초를 한다. 이 때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조상 묘와 제사를 지내는 조상 묘 모두를 벌초하고 제를 지낸다.

② 말뚝 줍기 : 말을 기르는 밭에 가서 말뚝을 주웠다. 주워온 말뚝은 바삭 말려서 방을 댈 때 연료로 사용하였는데 말린 말뚝을 연료로 쓰면 나뭇가지를 쓸 때보다 불(온기)이 오래 간다. 가마 오름에는 일본군이 땅굴을 파 놓아서 말이나 소를 기르지 못하고 마을공동목장에서 주워 왔다.

③ 추석 : 친척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차례를 지낸다. 송편 대신 등절비를 만들어 먹으며 곤떡, 중괘, 약괘, 친떡, 구운 생선 등을 먹는다. 집에서 추석멧질(차례)을 지내고 특별한 놀이는 하지 않는다.

8) 11월

① 동짓날 : 동짓날에는 팔죽을 먹는다. 이날 팔죽을 먹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고, 집 안을 돌아다니며 팔죽을 뿌리기도 한다.

② 지붕 잇기 : 2년에 한번 새로 지붕을 잇는다. 지붕을 이을 때는 지붕 위에서 덮는 사람 1명, 새 올리는 사람 1명, 줄 매는 사람 2명으로 총 4명이 필요하며 주로 사람을 빌어서 한다. 집마다 번갈아가며 지붕을 잇는

다. 지붕을 이을 재료인 새는 새가 익을 때쯤인 음력 동짓달 초하룻날부터 벤다. 지붕을 잇는 날은 택일을 하는데 곰방일(귀신이 불일이 있어 하늘로 올라가는 날, 한달에 한 번 있음)이 가장 좋고 정나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정나일에 지붕을 잇는 경우에도 인 사람이 일을 마친 후 동쪽 지붕에 오줌을 누면 괜찮다고 한다.

9) 12월

① 장 담그기 : 음력 선달에 장을 담갔다. 좋은 날을 택해서 하는 데 그 집안 식구의 띠가 들어 있지 않은 날을 정했다. 특히, 쇠 날에 장을 담그면 맛이 없고, 신묘일에 담그면 장맛이 쓰다고 해서 이 날을 피했다. 술(개)일이 가장 좋으며 말, 닭 일도 좋다. 뱀, 소 일에 하면 메주가 뜨지 않는다고 한다.

방언

〈 목 차 〉

- | | |
|--------------|--------------|
| 1. 농업 관련 어휘 | 4. 주생활 관련 어휘 |
| 2. 의생활 관련 어휘 | 5. 기타 어휘 |
| 3. 식생활 관련 어휘 | |

이 보고서는 2004년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북제주군 청수리에서 조사한 방언을 수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생활에 기본이 되는 의식주에 관한 어휘와 농업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조사는 세 차례의 사전조사와 아홉 차례의 본조사로 행하여졌고, 부분별로 어휘들을 모아 만든 질문지, 조사관련 어휘에 해당하는 그림이 담긴 책을 중심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정리는 방언표기를 분철을 원칙으로 하되, 소리나는 대로 적고 방언을 표제어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표준어를 뒤에 제시하였다. 동일 제보자의 경우, 혼동해서 쓰이는 어휘일 때에는 제보자가 주로 쓰고 있는 어휘로 통일하여 표기하였다. 인용한 제보자의 말 가운데 괄호로 처리된 부분은 질문자의 말이며, / 로 표시된 부분은 제보자에 따라 다르게 발음된 경우 구분 표시이다.

1. 농업 관련 어휘

1) 농작물

(1) 보리

- ① 곶보리
- ② 솔보리
- ③ 맥주보리 : 보리고고리, 보리이삭. 보리고고리가 있지. 이시면 그 곶 저 막 문대겨사 보리가 나오지.

(2) 조

- ① 차조 - 흐린조
- ② 메조 - 모인조
- ③ 개발시리

(3) 콩

- ① 매주콩
- ② 머드레콩 : 푸른 콩. 지금 같은 밤콩이라. 밥에도 넣고 먹는 것이 머드레콩.
- ③ 청대콩
- ④ 준자리/진자리콩 : 잘잘헌거. 콩나물 같은 거.
- ⑤ 약콩/검은콩 : 쨌쨌헌 거. 잘도 고와.

(4) 꿩 - 깨

(5) 산뒤/산뒤

밭벼. 산뒤하믄 곤쌀 나오고. 이디는 나룩은 안되주게 물이 어신디라 부난.

(6) 나룩

논벼. 건논이 셔야. 물션 논 잇어야 나룩 하지. 나룩은 논이 잇엉 밧디 물이 잇어야 나룩 하는거. 여기는 논 엇어.

(7) 강낭대죽 : 강냉이는 육지말이고. 강낭대죽.

(8) 세장대죽 - 사탕수수

- (9) 므물 - 메밀
- (10) 늬뻬 - 무
- (11) 배추늬뉘
- (12) 지슬 - 감자
- (13) 감저 - 고구마
- (14) 양에불리
- (15) 고추
- (16) 마농 - 마늘
 - ① 드릅마농
 - ② 핑마농
- (17) 웨 - 오이

2) 농기구

(1) 장기/잠대(그림 1 ~ 4)

- ① 쟁기 : 멩에 밑에다가 쉼로 고실라고 줄에 메엇는데 그레 잠대를 돌아메가지고 밧을 영 갈앗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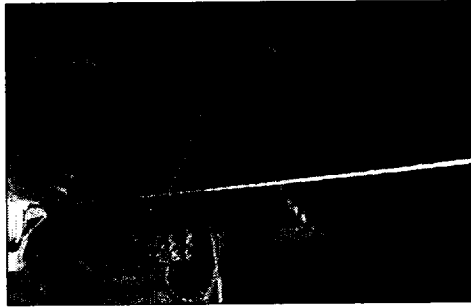
<그림 1>

- ① 보섭 ② 무클 ③ 양지머리 ④ 벧 ⑤ 돌뱅이뿔/돌베뿔 ⑥ 성에
⑦ 새악 ⑧ 설칫 ⑨ 뜸 ⑩ 벧톨레 ⑪ 벧바드레기/벧꽁쟁이



<그림 2. 3 - 벧>

- ⑫ 벧칼 ⑬ 벧 ⑭ 벧고리/벧친 ⑮ 벧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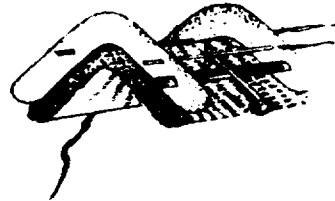


<그림 4 - 멩에>

(2) 질메(그림 5, 6)



<그림 5>



<그림 6>

- (3) 소시랑 : 창 3개짜리
- (4) 독구 : 거름 내는 거. 소거름 ㄴ뎡 거 걷어내는 거. 창 4개짜리.
- (5) 당그네
곡식 널기만 허는 거. 가까이 있는 거 펼치고 너는 거.
- (6) 공생이
밭 갈아가지고 저 땅이 마를 때 췌 가민 병에가 이만씩 저. 이견 병에 두드려 패는 거. 흑병텅이 부수는 거.
- (7) 줄거리
췌 이끌영 땡기기 쉽게 코 꺾는 건디 밧갈젠 하민 말 안들으난 이레 갖다 저래 갖다 오민 디짝에게 줍양 땡기고 이레 가젠 하민 잡양 땡 기고.
- (8) 간석/가른석
그디 코에 강 걸영으네 꺾약 잡양 땡기민 꺾꺾 돌아. 것은 간석이라. 간석. 옆으로 잡양땡기는건 간석이주.
- (9) 췌석
쇠 메영 놔두는 건 췌석. 대로 만들양 줍대 멩에 췌왕이네.
- (10) 모릿들
바닷가에 가면 저 맨들락 현 돌 있잖아. 그걸 헤다가 나무막대 머릴 딱딱 두드리면은 그렇게 보들보들 헤지지.
- (11) 출리
돌 일를 때 낭 말고 췌지 췌.
- (12) 벤줄레
땅 파는 거라.
- (13) 따비
땅 파는 거. 땅 일르는 거.
- (14) 곡쟁이
땅 파는 거. 돌도 일르고.
- (15) 굴쟁이

검질 땀 땀 굴갱이.

(16) 호미

호미로 출 비어당.

(17) 나대/도치 - 도끼

(18) 도끼 - 도리깨

(19) 몽석

짚으로 만든 거지. 나무를 두드려 패가지고 돌 위에 놔 가지고.

(20) 체

(21) 가는체

(22) 푸는체

곡식을 넣어서 푸끄는 거. 어지러운 것들 내보내는 거.

(23) 방에

방아. 방아에 낱.

(24) 그레 - 맷돌

(25) 쉼오리

(26) 툽

2. 의생활 관련 어휘

1) 평상복

(1) 창옷(그림 7)

소창옷. 창옷은 홑옷, 홑. 그 외로 된거. 그것을 보고 창옷이라 했지.

(2) 저고리

(3) 바지저고리

남저도게 바지, 저고리 헝 입곡

(4) 치마

(5) 미녕 - 무명

(6) 두루막/두루마기

두루막은 진저. 겨울에는 두루막도 입고. 두루마기렌 허면 겹쳐진 것.

(7) 갈중이

갈웃. 갈중이. 감 들영

(8) 니비바지

바지저고리가 미녕으로 멘들어 가지고 그것도 바늘로 다



<그림 7>

가 일일이 일센치씩 짜끄나마나 하게 바늘으로다가 재깍 주서. 왔다 갔다 왔다 하명 재깍 주서. 경허난 니비바지 옷이 질기지 그계. 그계 '니비엇다'헤가지고 바늘으로 다가 일센치 일센치 간격을 놔가지고 밧디 갈 때도 입곡. 집에서다 항시 입엇지.

(9) 마패옷

거 마패라고 헤가지고 마패가 지금 수입. 수입 무신 거 저 계 마패렌 헛지. 그거 어느나라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외국산.

(10) 도폭

도폭이란 것은 그 옷이 조금 자락한데 제락하게 만들영 입는거. 거 도폭이렌 해. 옷이 좀 크지. 텃부락허게 만들앙.

(11) 몸뻬

몸뻬가 나기 전에는 다 그런거 입엇주. 몸뻬 지금으로부터 50년, 60년 전에 낫지. 왜정때 나와시니까.

(12) 고장중의

고쟁이. 가달 체진 거. 아래 체여진 거.

(13) 고잠중의

여자 아래 입는거 그것 보고 고잠중의엔 한다. 고잠중의는 여름에 입는거. 봄이나 겨울에 입는 건 고장중의는 되 밑에 터진거 할망들. 오줌누기 좋게 이러케 걸으면 오줌 뉘질거.

- (14) 곶
 웃고름

2) 상복

- (1) 시미웃

(상날 때 상제들 입는 거 기억나 마썸?) 시미웃이렌 헤가지고

- (2) 건대

(남자 쓰는 거 머렌 헤 마썸?) 두건. 남자 쓰는 건 두건. 창호지로 맨 들어 가지고 여자들도 '건대'렌 헤가지고. 근데 그게 좀 틀리지 여자 쓰는 건.

- (3) 행경

(버선 안신고 다른 거 메고 안합니까? 이 끝에) 행경 (끈은?) 그게 행경끈이지

- (4) 방장대

(아이고 아이고 할 때 잡는거 뭐랜 합니까?) 방장대. 아버지가 죽으면 돌아가시민 대나무로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민 머구냥. 그 가시가 그 배쪽하게 난 거 아방은 저 왕대 방장대

3) 모자

- (1) 샷갓

샷갓은 이거 씨른 더 건드립지.(건드렁허다 :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 막 이만이 큰거 멘들양 밧디 갈 땐 비 올아도 쓰고, 외출 할 때 엔 쓰지 안헿 그대로.

- (2) 페랭이

밧디강 일헿 때에 페랭이 줄아 멘들엉 썻주. 모리낭으로 멘들곡 밀낭으로도 멘들곡. 보리낭이나 밀낭으로 헤도 되고. 밀낭이 질기지. 보리낭은 야리고. 밀낭이 곱고 질기지.

- ① 보리낭 페랭이

② 밀낭 페랭이

(3) 츠괭이

하르방들은 츠괭이라고 헤가지고 츠괭이.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
쥬영 거 헤가지고 영행. 퍼가지고 흐민 비바람에도 좋앗지.

(4) 털벌립

머리에 영행 놔가지고 탁 썩우고 우에는 털 벌여 탁 썩고(벌립은 짚
으로 만들어진 마썸?) 아, 그건 털로. 털로 멩근 것. 밧디 갈때 털벌립
쓰고 옛날엔 그런거 썼고 .

(5) 정당벌립

(딤 걸로는 안 만들어진 마썸?) 아 그건 정동으로. 정동이렌 헤가지
고 전화선 닳은 거 헤가지고 들에 가면 그런게 잇는데.

(6) 낮가오리

주로 낮가오리를 보통으로 썼지. 아버지 시대에는 낮가오리 썼지. 뭇
보고 낮가오리엔 허면 이것이 가운데가 꼬부라지니까 낮가오리.

(7) 창통

남자는 머리 쯤 메난. 창통.

(8) 탕건

갓 쓰고 탕건 써난.

(9) 상통이/창통이 - 상투

4) 신발

(1) 초신/짚신

짚으로 초신 멘들아.

(2) 남신

나막신. 낭으로 남신 멘들아. 비 올 때는 노프게. 초신 벗어 된 비 올
때엔 남신 신영 텡겨주.

(3) 가막창신

비 올 때 신는 신발은 남신. 남신이라 헤가지고 앞에 발독에 영 독져

가지고 그냥 신은 거. 돈 잇는 사람은 가막창신이란 거 신었지. 가막창신.

(4) 보선

- ① 미녕보선 : 미녕으로 만든거 이신디.
- ② 광목보선 : 돈 좀 머한 사람들은 광목보선.
- ③ 가죽보선 : 가죽보선이렌 헤가지구 그런 거 잇었주. 셰가죽 ㄱ튼 거 헤가지구 그거 뭐 따스곡 질기고 좋앗지.

5) 재봉용구

(1) 올 - 실

미녕으로 멘네³⁾ 밧디 갈앙 멘네 따다가 물레에 볼랑.

(2) 바농

바농으로 주원.

(3) 골매 - 골무

손에 질러그네.

(4) 바농쌘지/바농쌍지

바농에 실 농곡. ㄱ세 놓고 주먹만이 한거. 바농쌘지.

(5) 바농질레/바농절레

바농하고 실하고. 바농 꽃는건 절레. 절레에 안 지르면 막 욱 들었지.

(6) ㄱ세 : 가위

3. 식생활 관련 어휘

1) 일상음식

(1) 젓갈류

3) 멘네 : 면화

- ① 자리젓 : 자리 갖당 자리젓도 하고.
- ② 멜젓 : 멜도 소금 절여당 먹고.
- (2) 묵차반
묵 사당 장에 놔그넝 콩 보깁 놓고게(게 주루 반찬 헛주게) 거 이젠 먹도 안해게. 알아주지도 안허여.
- (3) 감저주시
그 때사 그물고 먹을게 어시른 감저 주시 감저 주생이 먹고 살아지. 감저 주생이든 감저 물리운 거 찌개 낱 전분 공장 강으네 사당 먹어 낫주게. 혼 곱에 얼마? 천원씩.
- (4) 물룻
밭데 나는 거. 밧고냥에 불리가 낭추룩 굶어. 그걸 딸리민 무신 툷 닭 은 거. 잘 딸리민 들크름 호영 먹고살앗고 달콤홀거여.
- (5) 개역 - 미숫가루
보리낱 솟뚜껍에 보깁 그거 이제 그레에 곶앙. 보리 보깁. 밥 씹거 먹 지 못할 정도 되영.
- (6) 짐지
김치 내불기 아까왕 시어도 먹어. 내불기가 아깁주게. (김치는 뭘로 만들어 먹어 마씨?) 옛날사 뭐 셔? 고추하고 마농 뽕상 마농 짓영 놓고 고추 뽕상 갈아당 이네 거뿐이주. (뭐 배추로 만들언 마씨?) 배추 옛날에서 밧데강 드릅마농, 꿩마농 그런게 짐지 행먹고 둥근나물 이 제는 밧데도 어성 나지 안으여. 둥근나물 해당 이런거 짐지 행먹고 씹쓸허여. 국갈영먹어.
- (7) 국
국 끌여먹을 때 배추. 느물. 넘비. 무수. 여름에 냉국 툷 시장에서 사 당 웨 같은거 웨는 우영에서 만들영 씨낱 뒤사 뭐 우리가 심꿩 먹었 지. 이 동네는 뭐 밧다나 큰거. 이닝마씨 강으네 웨감독 하는 사람 하나 탁하게 지정헤그네. 그사람 지경 누구 타먹지 못허게. 감독으로 그 즈క్క디살명 그 사람은 웨감독 헤준 값으로 일당주명.

- ① 드릅늑물국 : 콩나물로도 국 허주만은 콩도 맷돌에 갈아와그네게
콩국 드릅늑물국.

(8) 죽

- ① 풋죽 : 풋죽도 행 먹고 콩죽도 행 먹고.
② 콩죽 : 짓도 좁쌀냉 좁쌀냉고 콩 갈아놓고 삼키놓고 삼키는게 무
썰어냉 무수나 배추나.
③ 녹되죽 : 녹되도 죽 끝여난.

(9) 반찬

- ① 빼떼기 : 감저 마른거. 감저 빼떼기라고 돌꺾롬허여.
② 즈배기 : 물령 거 모상 가루 만들엉 맷돌에강 갈아당으네 즈배기
(즈배기는 뭐 밀가루로 만드는거 마씨?) 그것만 감저가루로.
③ 무말랭이 : 무도 말루양 반찬하지. 이제라도 하지. 거 무 솔랑솔
랑허주. 썰어뒹 바닥에 널어그네 바싹 말렸다그네 이제도 하는 사
람 셔. 무말랭이. 생길이.
④ 콤포대산이 : 콤포대산이도 장에 들이쳤당 먹고.
⑤ 유채늑물
⑥ 배추늑물
⑦ 범벅 - 보리범벅, 밀범벅.

(10) 지름 - 기름

- ① 유채지름 - 유채기름
② 참기름 - 참기름
췌빠당 참기름 그 땐 비싸지 았앗주게. 요즘은 비쌌주만은 지름 빠
고.
③ 동박지름 - 동백기름 : 동박낭에도 지름나고.
④ 돼만지지름
먹진 안헤연 머리에 싹고 영 바르고 돼만지지름은 먹진 안하곡 돼만
진 다 끓어전. 이젠 돼만지 못봐. (그거는 무사 뽑는거 마씨?) 이제
는 그런거 어려와. 거 뭐 약으로.

- ⑤ 갯늬물지름 : 건 먹고.
- ⑥ 콩지름 : 지금에야 콩지름.
- ⑦ 둌비 : 아들 팔젠하민 잔치 하젠하민.

(11) 장

- ① 된장 - 된장
- ② 고추지 : 고추 장물에 묻엇당 지.
- ③ 묵지
- ④ 단치자

※ 된장. 간장 만드는 법

메주 농곡 소금 농곡 물 농곡허영 큰 항에 메주영 들이쳐놓 벌경헌 물
우러나민 이제 낫다그넝 오래허영 한 1년 놔두민 벌경하민 이제 뜨로 구분
헤여 그 장데미 하곡 장출하고 장물은 장물대로 먹곡. 메준 막 물 쟁으네
항에 뜨시 담양 담으민 된장. (메주 어디 묶영 매달아 놔야될꺼 아니마
씨?) 이제야 묶으지 예전엔 어데 담양놔뒤사지. 쟁이 먹엇부런 쥐들어가는
따른 잘도 어려와. (어디 담양놔난마씨? 옛날엔?) 공간에.

2) 제사 · 명절음식

- (1) 식계 - 제사
- (2) 멩일/멩질
- (3) 떡

- ① 보리떡, 보리빵 : 기주 놔그넝. 막걸리 놔그네.
- ② 기주 : 중편 같은 것을 만들 때에 술 따위를 펴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 ③ 침떡 : 시리떡(시루떡). 시리에 담양 천. 멩돌에 곶앙 쌀 곶앙 그 거행 체로 치영 시리에 놔 떡치고 그계 침떡.
- ④ 세미떡 : 전분 놔그네 손으로 영영 즈므니까 세미떡. 인절미 세미 엔혀.

- (4) 곤밥

산뒤 허여그네 곤밥 허여그네. 그니까 헤양허니까 곤밥 허영.

(5) 켈기젓갈

(6) 표적

술뚜껑에 낱 지정으네 고기젓갈 표적. 그거 꼭 한다.

(7) 우짚

계란 노코 그계 우짚. 계란에 무신 곤쌀가루 약간 넣고 떡이 아니고 우짚. 그거 흐른 제일 우에 놓는거.

(8) 고사리

고사린 따로 쟈시에 콩나물 하고.

(9) 술

술은 집에서 만들양 고수리에 딱양. 술도 집에서 만들 수가 이신 거 주게. 술을 만들젠 흐른 누룩 몰라? 보리 굴양 티왕. 영 저 물 버무령 체더래 낱 딱딱 걸랑 똑 요즘 메주가치 발라노코. 무더세경 도식에 묻영 티왕으네 곰팡이 피왕 항에 담양 그거 물리왕 그거 부시청으네 막개로 막 부시쳐낱 쌀 노코. 거기 남은 건 주세긴 먹지 아네여. (꺽데기 남은 걸 주세기) 경 (주세기를) 먹게끔 멘드는 것도 있고 안 먹게 멘드는 것도 싣주게. 막걸리 멘드는거 동동주. 그건 (주세기) 먹게 되. 쌀 누룩. 누룩도 깨끗한 누룩. 쌀누룩. 쌀. 쌀누룩 씹으른 줍살 서로 모다 뽀사나그네 항에 담앗당 한 3개월 이서낭 꺼내곡 이거 막걸리지. 옛날 제주시녘엔 감주, 감주라고 해명 술도 찌고 그어떻게 만드냐면 줍살에 거 보리 보리 이때도 식초 나시 맥주 만드렁 허는거주. 건 보리내. 보리물도 씻경 내왕. 별나면 물령 바쌍 물령 맷들에 굴양 굴양으네 줍살에 섞영 휘휘 젓어놋당 흐끔 맛 영 조망 먹어방 들코름하른 걸러뵤 흥나질 딸령 막 딸리는 건 옛 만드는 거고, 흐끔 약간 딸령 제사집 갈 땀 거 한 병 가져강 나눠먹고, 감저술 이라고 하는건 사나먹는기고 이녘집에서 만드는건 깨끗하게. 감주. (제사집에 가져가난 마씨? 감주를?) 가져감도 하고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 그게 만들기가 힘들어.

3) 부엌용구

(1) 솥 - 솥

(2) 항

항아리. 큰항은 물담고 보리도 담곡 쌀도 넣고 간장도 담곡.

(3) 허벅

밭디강 오라그네 저녁흔젠흔 물엇엉. 따시 이제 허벅저그넝 물강 지러당 밥헝 먹엇주.

(4) 박세기

비오라나믄 막 박세기 들렁 물 길레가.

(5) 찰리/짚개

짜는거. 헝짚.

(6) 베

찍으로 멘들아 찍으로 노 꼬왕 멘들앙.

(7) 차룽착 - 차룽

(8) 밥차룽

밥만 담앙 된장은 뜯곳더레 담아.

(9) 동고랑

동고랑은 작은 거고 밥차룽은 이만큼 크지. 혼번 푸면 열 사람은 먹지.

(10) 밥동고랑

(11) 쿨락박세기

물 퍼나는 거. 물 거리는 거.

(12) 남박

남으로 멘드랑 푸는 거.

(13) 도구리(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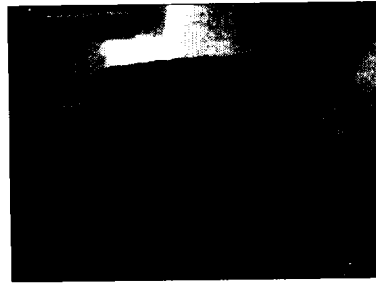
그 큰 대야 닳은거. 장그릇 담는 거. 큰 도구리. 남으로 헤가지고 이만큼 나무로 판거. 도구리. 밥도구리라고 헤가지고 사름이 영장날 때 헝상 지날 적에는 장사 지날정에이. 그거사 밥헤가지고 그것에 퍼 놔가지고 밥도구리에 얹고 더놔가지고 밥자른가 담아가지고 혼 사람씩

다 주는 거.

(14) 남자 - 국자

(국 담아난건?) 직접 솥에서 남
자로 걸영으네. 솥에서 직접 퍼
줬주.

(15) 늦그릇



<그림 8>

4. 주생활 관련 어휘

1) 삼간집

(1) 삼간집

삼간이면은 마루 하나 이시니깐 삼간이거든. 마루 어시민 삼간이 아
니고 이간 밖에 안되주.

(2) 마리 - 마루

(3) 구들

이건 방이엔 허주. 옛날말론 구들.

① 구들지방/툽 : 이건 구들지방인디 툽이엔 헛주.

② 내 - 연기

(4) 구들바닥

(5) 안방

(6) 올레

들어오는 디.

(7) 마릿문

(8) 대문

(9) 마릿지방

- (10) 외달이문
하나밖에 어성 외달이문.
- (11) 통췌 - 자물쇠
마릿문 잠그는 거.
- (12) 거적문
문도 어신 집이 길이 문 어신디 나무 께낭으네 뻘여그네 돌아멘거주.
마리하고 정제하고 이어진 문.
- (13) 정지문
- (14) 마룻뒤
마루 뒤로 터진 문.
- (15) 정제뒤
정제 뒤로 터진 문.
- (16) 어긋담/올레담
문옆의 담.
- (17) 울타리
- (18) 굴묵
방에 불뎐디. 절로 들어강 불뎐민 방이 딱시주게.
- (19) 앞부영
집 앞에 채소 키우는 디.
- (20) 안거레
- (21) 밖거레
- (22) 정주먹 - 정낭 2망.
- (23) 지계문
- (24) 서리꽃텅이
- (25) 집서리

2) 정지

- (1) 솟덕

- (2) 솟강알
- (3) 부지땡이

3) 축사

- (1) 쉼막(그림 9)
 쉼 먹여난 디.
 ① 추녀서리
 ② 거왕
 ③ 굽은도리
 ④ 지실대
- (2) 통제/뚫도고리
 도새기 길러난 디.
- (3) 독집/독도고리 - 닭장
- (4) 디들팍
 통제에서 위에 올라가서 일보는 받침돌.
- (5) 물팡
- (6) 우영팍



<그림 9>

5. 기타 어휘

1) 동물

- (1) 야우
 (쉼영 몰이영 밧테 막 풀어놓지 았애수과?) 여름에 주로 하지. 야우라고 해서 들소라고 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곳대에서 곧장 뜯어 먹으멍 살도록해여. 야우라고 해서 야우. 그건 아주 쉼을 많이 기르는 사람. 집에서 그 쉼을 다 관리할 수는 없으니까 출4)이 경 많지 았

지. 많지 않으니까 아무리 한다해도 많지 않으니까 그건 경 들에서 질르고 강 눈이 이만큼 물을 댄 먹을게 어시면 또 흐여난 출을 다가 좀 길머정 가가지고 영 하나씩 주고 겨울엔 눈 오민 경행 소를 길러져. 그거 야우라고 행 경 질르고. 그 들소. 황췌. 검은췌. 어럭췌(점 찍어진거). 거른낭췌.

- (2) 돛/도새기
- (3) 뭍/몽생이
- (4) 독/독새기/빙아리
- (5) 핑
 - ① 장핑
 - ② 핑병아리/핑뱅이
- (6) 가마귀
- (7) 매
- (8) 족제비
- (9) 소록이 - 올빼미
- (10) 돌뱅이 - 달팽이
- (11) 부거리 - 모기
- (12) 픈리 - 파리
- (13) 말축 - 메뚜기
- (14) 신방말축 - 사마귀
- (15) 곰중이
- (16) 불난디 - 반딧불
- (17) 드릅벌
- (18) 똥소로기 - 솔개
- (19) 버꼭새 - 빠꾸기

4) 출 : 여기 출밭이 많이 이서. 여기 출 비영 호미로 비영 영 왓당 물리우면 물리와 가지고 딱 반반해갓다 묶고 어느정도 요만씩하게 딱딱 묶어가지고 그게 바리로 물고 혼 마흔 거시 해사 혼 바리. 췌 등따리에 마흔 거시 시끄지. 마흔 거시 시경으네 댓물먹지. 소 하나이가 겨울에는 그거 빠멍 소릴 길러갓지.

(20) 두메기

2) 식물

- (1) 풍낭 - 풍나무
- (2) 후박낭
- (3) 가시낭
- (4) 감낭
- (5) 귀똥낭

3) 서답 - 빨래

(1) 서답

여기서 물이 엇으른 저디 지금은 그 물이 엇지만 저디 명월 가면은 그 물이 이 정도 되난 서능한 그 칙칭한 물이 옹포 쪽으로 내려났는데 지금은 그 물이 없어졌어. 없어졌는데 옛날 그 디 가서 큰 서답이 나 깨끗한 서답은 그디서 해낫주.

(2) 물마께 - 빨래방망이

마께로 막 때리멍. 빨래 마께 때리른 구정물이 나오지. 때가 나오지. 주로 비누가 없어 놓으니까 큰 빨래하려면 솥에 솥아가지고 뿔을 놔 사하느냐 오줌. 오줌을 놔가지고 솥아가지고 때가 진대해가지고 그렇게 빨래를 했지.

(3) 홍깃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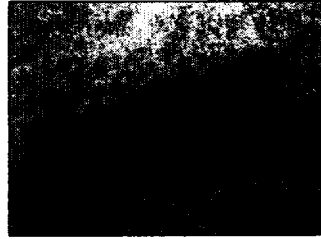
(옛날엔 다려나진 앓애난 마썸?) 그것 굴앙 홍깃대렌 얘기하주. 안반. 안반 홍깃대라고 하주. 안반 홍깃대라고 해가지고 나무판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한 걸 이 놓고 또 홍깃대라고 해가지고 굵기가 이만큼 솔지고 이만큼 솔진거 다리만이 해가지고 이만큼 긴거지. 이만큼 짙어. 이만큼 짙어가지고 그게 나민 아주 고와.

(4) 안반

(때리는 건?) 암반. 이만한 건 홍깃대.

(5) 서담마깨(그림 10)

거 둥그리멍 막 두들기주게. 마주앉앙
거 둥그리멍 몇 시간인지 때리는지는
모르지만 경 때려나민 쭈글쭈글흔거
바짝하지. 풀헤그네 두드리난 빠작하
지. 게서 다림질 허나 마나 그걸로 옷
헝 입으민 아주 점지가다랑지.



<그림 10>

(6) 다리웨 - 다리미

4) 빛, 장신구

(1) 빈네 - 비너

(여자 머리 안 풀어지게 올리는거 머렌헤 마쌌?) 빈네. 머리 조진거
말이지? 그거 낭제 차는 거.

(2) 쳡빳

쳡빳. 쳡빳이라고 잇엇지. 쳡빳은 옛날엔 지금은 니란게 없는데 니가
형편없지. 머리에 니가 형편 없으니까 그걸로다가 빳엇지. 그걸로 빳
으른 니가 달달달달 쏟아졌지.

(3) 얼레기 - 빳

초벌 빳는건 얼레기 막 모작지면 얼레기로 하곡 그 다음에는 쳡빳으
로 빳지. 머리 빳는건 낭으로 멘들언.

(4) 면경/멩경 - 거울

5) 신체부위

(1) 데멩이 - 머리

(2) 임탱이 - 이마

(3) 양지 - 볼

(4) 귀착 - 귀청

(5) 컷자락 - 컷볼

- (6) 귀마리 - 꺾바퀴
- (7) 콧머루 - 콧등
- (8) 야계/야계기 - 목
- (9) 독지 - 어깨
- (10) 젓갱이 - 겨드랑이
- (11) 가심 - 가슴
- (12) 등땡이 - 등
- (13) 팔굽 - 팔굽
- (14) 손등어리 - 손등
- (15) 손가락 : 어금손가락, 검손가락, 상손가락, 새끼손가락

6) 친족 관계 호칭

친족 관계 호칭에 대한 어휘들은 서열에 있어 '큰, 셋, 말젓, 작은'을 붙여 해당 계열의 서열을 부른다. 여기에서 형제자매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큰말젓, 중말젓, 작은말젓'의 순으로 늘어나간다.

이외의 호칭으로 징주(曾祖父), 왕할망(曾祖母), 당주(祖父), 당할망(祖母), 아지방, 아지망, 오라방 동세(同嬪) 등이 있다.

모계와 부계의 구분이 필요할 때에는 모계에는 '외-'를 부계에는 '성-'을 붙인다.

민요

〈 목 차 〉

- | | |
|-------------|--------------|
| 1) 밭 밟는 노래 | 8) 나무 베는 노래 |
| 2) 밭 매는 노래 | 9) 집줄 놓는 노래 |
| 3) 타작 노래 | 10) 흙굿 밟는 노래 |
| 4) 보리 훑는 노래 | 11) 자장가 |
| 5) 마소 모는 노래 | 12) 달구 노래 |
| 6) 맷돌 노래 | 13) 창민요 |
| 7) 방아 노래 | 14) 동요 |

1. 밭 밟는 노래(밭 불리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박명춘 (여, 74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워어으어으어어러러러

요 몰덜도 다 모다들라

어러러 어으어러러 어러 돌돌

산이로구나

어어러러러러러 어으어어어어어어랑 하아랑

②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보자 : 양희봉 (여, 8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양희봉 (여, 80세)

어러러 어러러 어러 어러 어러러
요 뭇생이 저 뭇생이 앞 집으로 가지 말앙
아러러러러 어 아러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요 집 저 집 뛰자 말앙 어러러 어러러
오로로로 아 어러러러러
요 몰 저 몰 훗지¹⁾ 말라
(저 오즘 쌈시네 저 몰덜 보라)
어러러 어러러 와러러 어러러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날은 삭삭 덩공 요 뭇생이 저 뭇생이들 따라 들지 말라
뚝은 삭삭 나고 느네 어멍들은 다 저 몸이 젓엄시네
어서 어서 나고 가자 빨리 허고 나고 가자
(물들도 왕 먹어사 헐 거 아니가)
어러러 어러러러러
(아척이²⁾ 강 몰아왕 물 맥영
따시³⁾ 낫 후제 또 불리젠 허민
자게 물 맥여사 헐다)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러러 아 어러러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1) 헛걸음하지 마라
2) 아침에
3) 다시

이러 이러 이러 저러 어러러 어러러
 요 물 저 물 혼저 글라
 땀남 다 짓엄구나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러러
 아 오로로로로로 돌돌돌
 (저 마당 끝에 나간 거 저것도 막으라 저 뭇생이도)
 막앙 이레 몰아당 따시 물 맥영 또 불리곡 하계4)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
 아침에 몰아당 새로 낚시쫓 되도록 허민
 사름도 버치곡 몰들 다 땀남 버치곡 허민
 강 물통에 강 들이청 물 우터레 낡 물 걸영 지치곡 허엿찌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러러
 요 뭇생이 저 뭇생이 나고 가라
 어명한티 쫓 먹젠 허지 말앙
 어러러러러 어러러 어러러 아 어러러
 요 물 저 몰들 말 아니 들영
 나 우리 오늘 보리 서른 섬 허민
 어땡 허영 다 어두우민 흐느니
 혼저 재계 불려동 물러가라

③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이월 (여, 80세)
 조사장소 : 청수리 영축사 법당



김이월 (여, 80세)

이러 이러 이러 이러
 요 뭇생이 저 뭇생이 돌돌허게 걸어보라
 어허어러 어러러

4) 막고, 이리로 몰아와서 다시 물 먹이고 또 밝게 하자

어러러러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어러러 어허어어러 어러러
 큰똥애기랑 깍드레 사곡⁵⁾
 셋 똥애기랑 가온디 사고
 말겄 똥애기이랑 나 조름더레 바짝 서사⁶⁾ 므설 휘와진다
 그리저리 가민 느도 웃고 므쉬도 가로각산⁷⁾ 혈어진다.
 어러러 어러러 어러어허어어 어러러
 어러러러 이리 저리 이리 저리
 어러러 어허어어러러 으허어랑 하랑

④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송금양 (여, 85세)
 조사장소 : 저청초등학교



송금양 (여, 85세)

어러러 덜덜 어러러 어러러 어러러러러
 러 허랑 하랑

이 므시덜아 신나게 말앙 오신도신 굴로
 로⁸⁾ 자국 노라

간세랑 말앙⁹⁾ 간곡 간세 허지 말앙 요 동산도 불려도라
 어러러러러러 어러러 덜덜 어랑 하랑
 요 므쉬덜아 어서 설설 잘 걸어드라
 간곡 간세 전해도 말앙 요 동산도 불려도라
 오신 도신 자국 노라
 요 므시덜아 어서어서 잘 걸으라

5) 끝에 서고
 6) 내 꿩무니 뒤로 바짝 붙어 서야
 7) 여러 곳으로 갈래 갈래 흩어지는 모습
 8) 팔고루
 9)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이레 저레 허지 말고 구벳하게¹⁰⁾ 걸어도라
어러러 덜덜 어러러러 어러 어어어어랑 하랑
어서 가자 들들허게 오신 도신 자국 노라 에에에어랑 하랑
어서 걸으라 간곡 간세 말앙 혼저 걸으라
아이고 착허다 잘 걸언 좋다
어러러러러러러 허랑 하랑

⑤ 조사일자 : 2004년 8월 1일
제 보 자 : 김숙이 (여, 9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앞 나무 그늘



김숙이 (여, 90세)

㉠

어러러 들들
이 몽생이 불자국에 조 혼낭 낭 글랑¹¹⁾
남이랑 구리대 쏘이랑 칭대입
으물이랑 췌으물 내와줍써 어러러 들들
어랑 하랑
이 몽생이덜 슬랑슬랑 잘 걸어라
연날에¹²⁾ 글 선비가 글발에 노는 거요 어러러 들들

㉡

이 몽생이 불자국 하나에
줍써 한방울 난 걸랑
남이랑 구리대 쏘이랑 칭대입
췌으물 나게 허여줍써 어러러 들들

10) 반듯하게, 쭉
11) 줍써 한방울 놓으며 가자
12) 옛날에

2. 밭 매는 노래 (검질 매는 소리·사데 소리)

①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박명춘 (여, 74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어긴여랑	스아데야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무리나나라
어서 둥둥	다 모여여 들라
어긴여랑	사데로구나
요 세상에	모다들어 요 검질 매자

②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양희봉 (여, 8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이웃스촌	수눔음노난
벧 ¹³⁾ 은 무사	하영 남시니
이 날 저 날	발리왕 노난
뚝만 나곡	일 못 허고
훈저 영	앞 명에 강
저 낭 아래 강	순다리 ¹⁴⁾ 먹곡 점심 먹곡 물 먹곡

13) 별

호꿈 낭 아래 즘 자곡 허당 오게
아이고 더원 몬 살켜 이 뚝 두드레기보라
영 허멍 어느 누계가 살렌 해시니
아이고 야네들아 무사 경 느네 경 햄시니

㉠

이여사나	디여사나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가라
앞명에랑	또 가라
뒷명에야	들어오라
앞명에랑	나고가라
이여이여	이여도사나
디여사나	이여사나
이여사나	디여사나
이여사나	디여사나

③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이월 (여, 80세)
조사장소 : 청수리 영축사 법당

어긴 여랑	사데로구나
검질 짓고	끝나진밧디
고븐췌 ¹⁵⁾ 로	췌 놓앙 간다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나고나가라

14) 쉰 보리밥과 누룩을 적당량 섞어 발효시켜 만든 것
15) 굴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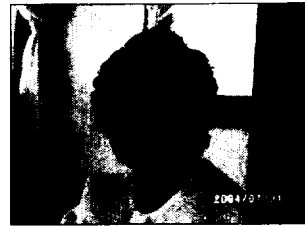
어긴 여랑 사데로구나
 간들 간들 검질을 매나
 브름에도 놀아도 난다
 구름 질로 날아도 간다
 어긴 여랑 사데로구나
 간들 간들 비브름 불면
 정신이도 엄망 난다¹⁶⁾
 어긴 여랑 사데로구나
 사데 불령 검질을 매자
 정신 츠령 매어나 보게
 어긴 여랑 사데로구나

④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임추월 (여, 75세)
 고정효 (여, 83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임추월씨 자택



임추월 (여, 75세)

어긴 여랑 스아데야
 사데 불령 요 검질 매자
 검질 짓고 골너진 밧딤
 앞명에랑 들어나오라
 뒷명에랑 무너나나라
 앞엔 보난 태산이여
 뒤엔 보난 썩지로다
 느각 ㄱ뜰¹⁷⁾ 나 여깬 빌어
 선반 닳은 나 굴레에



고정효 (여, 83세)

16) 엄망이 된다

17) 노각(사슴뿔, 鹿角)같은

돋은 해랑	지도록 흐라
해도 지면	동으로 돌나
달도 지면	동으로 돌나
해와 돌은	오누일러라
앞에 가는	놀용세요18)
가운데 가는	칭춥매요19)
조름에 오는	꼴등매여

⑤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송금양 (여, 85세)
 조사장소 : 저청초등학교



송금양 (여, 85세)

쯔른 사데

헤에에에이용사

어기 여랑	스아데야
어기 여랑	스아데야
앞이 가는	놀용세여
조름에 가는	돌각부리20)
앞인 보난	태산이여
뒤엔 보난	팽지러라
느괵 ㄱ뜨	나 어깁 빌엉
산방 ㄱ뜨	나 골궐 드렁
어서 멩콤	나 여매저
훈 소리에	석 줌 반씩
어서 멩콤	나 여매저

18) 놀령새, 행동이 빠른 사람을 비유한 말
 19) 칭춥이, 흰 털과 검은 털이 섞인 말
 20) 소리만 돌각돌각 내는, 행동이 뜬 사람을 지칭하는 말

앞 멩에야	눈이나 치라
뒷 멩에야	손이나 치라
어서 멩콤	나 여맨다
흔 소리에	석즙 반씩
요만 허민	혈만도 허다
앞이 가는	놀용세야
조름에 오는	들각 부리
어서 멩콤	나 여매라

⑥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춘선 (여, 71세)

조사장소 : 저칭초등학교

진 사 데

에에에에에 에어으에에에에으 여어어어으긴 여어어어으랑 상스데야
 아아아아아아아에에에이요
 곱은어으영 쉼에에에에로 여의멍 가자
 아아아아어어에에에에에 에오오오오으으랑 상스데야
 사데에에에에이에 불령 요 겁질 매자
 아아아아허어어어야아아 에헤에에에이어랑 상스데에야
 앞 멩에에에에이에에랑 들어나 오멍
 뒷 멩어어으영에에에랑 무너나 나라
 아아아아아양 에헤어어어어랑 상스데야

⑦ 조사일자 : 2004년 8월 1일

제 보 자 : 김숙이 (여, 9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앞 나무 그늘

어긴 여랑도	사데로구나
요 밧 검질	골 넘엄구나
앞명에랑	들어오라
요 밧 접고	손 골라 매라
요 밧 검질	골 넘엄고나
훈저 오렌	소를 찬다 ²¹⁾
어긴 여랑도	사데로구나
뒷명에랑	무너나라

⑧ 조사일자 : 2004년 8월 1일
제 보 자 : 김해인 (여, 91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어기 여랑	사데로구나
앞 명에야	들어오라
뒷 명에야	물러가라
앞 명에는	군나장 앓양 ²²⁾
훈저 오렌	손을 친다

3. 타작 노래 (마당질 소리)

①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박계생 (여, 83)
조사장소 : 박명춘 제보자 자택

21) 손을 친다
22) 끝나자 앉아서

에야홍 에야홍
열이 사나 스물이 사나²³⁾
선자위리²⁴⁾가 사공이더라
어야홍 어야홍
어야홍 (허는 것이)
요 마당에 요 도깨질은
어느 누계 알아나주리
에야홍 에야홍

②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이두우 (남, 8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에야홍오옹
날씨는 덥고 벳은 잘 나는 날이로구나 오늘 에야호오옹
날이 좋은 기회 시간 보면서 빨리 두드려 볼까 에야호오옹
낮 후제가 되어가면 쓰네기 주제라도 험사헬티²⁵⁾
빨리 빨리 두드려 볼까
날씨는 더워져도 홀수어시 두드려야만 홀 거이로구나 에야호오옹
빨리 빨리 더워도 두드려 볼까
(아 물 터워 이 안되켜 물질 흐술 잇건 가정오라
흐끔 냉수나 흐술 가정오라)
흐술 먹어보멍 허여보게 에야홍오옹

③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춘선 (여, 71세)

23) 열 사람이 서든지 스무 사람이 서든지
24) 선좌(先坐)머리
25) 소나기 한차례라도 내릴 것 같다

조사장소 : 저청초등학교

어야 흥	어야 흥
요것도 생곡	때려보라
어야 흥	어야 흥
저것도 따리라	생곡이야
어야 흥	어야 흥 어야흥
저 동산도	때려 보라
어야 흥	어야흥
요것도 생곡	때려보자
어야흥	어야흥
저 동산도	멜라지게
어야흥	때려보자 어야흥
어야흥	어야흥
요것도 생곡	때려보자 어야흥
간간이 놀젠	늬으 칩 들언
어느 거	간간이 놀아접시니
어야흥	어야흥
늬으 칩	들엉 등 털어 먹젠 들었다가
요 마당 질만	해염꾸나
어야 흥	어야흥
요것도 생곡	때려보자 어야흥

4. 보리 훑는 노래 (보리 홀트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이두우 (남, 8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어어어영우우우 날은 어둡고
 허다 보난 퀘롭고
 시간도 가고
 어서 재게 보리를 든 막안 이시
 여간 여의전하게 든 홀타사
 내일은 밧디 가야 헐 거로구나
 아무리 퀘롭고 조라와도
 보리를 다 홀타봐사 허컬
 느네 아기들아 울지말앙 그냥 잠시라
 우리 보리 재게 홀타사 헐 거 아니가
 아기들아 울지 말라
 우리 재게 홀탕 든 거저 든 홀담찌
 혼저 이것만 홀타불민 나 이제 그제 강
 느네신티 가마 울지 말암시라



이두우 (남, 80세)

5. 마소 모는 노래 (므쉬 모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 제 보 자 : 이두우 (남, 80세)
-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소 모는 소리

헤야 호오오오오오
 요 소들아 날이 더워도 빨리 걸으라 호오오오오

어서 가서 건드러운 퇴가 놓고
 물도 주어서 서늘한 물도 먹고 빨리 올라가자
 아래서는 놀면 진득도 물고 푸리도 많이 괴고
 모든 잡풀이 많아서 너네들이 고생하니까
 빨리 우에 올라가서 건드러운 퇴가 놓고
 건드러운 퇴로 올라가는 한라산 육소장꺼지라도
 올라가서 놀아보게 어서 걸어 올라가자

6. 땃돌 노래 (ㄹ래 ㄹ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박명춘 (여, 74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박명춘 (여, 74세)

이여이여	이여로구나
이여어어어어어 이여	이여도흐랑
요 ㄹ래야	잘도 굴아진다
이여어이여어어	이여도흐라

②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박계생 (여, 83세)

조사장소 : 박명춘 제보자 자택

이여이여 어어어어	이여동흐라
이엿말랑	말아근가라
요 짓 ㄹ래	혹 어디가니
혹을 좇앙	굴아나 보저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어허으어어	이여동흐라

③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양희봉 (여, 8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이여사나	디여사나
이여도흐라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	이여
풀은 아판 어디 곱아지커까	
그레	아니 몰라부난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아이고 느네도 호꿈 곱아라도 드라 경 허지 말앙	
풀들은 조랍다 퀘롭다 흐명 아니허고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이여	
아이고 ㄱ렌 베연 ²⁶⁾	몬 굴르구나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이여	이여이여	
벧 나건 따시 꺾 ²⁷⁾ 물려사지 ²⁸⁾ 잘 굴지도 못해염찌 ²⁹⁾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아이고 나는 메짚 ³⁰⁾ 밧뒤 가부난 몬 물리완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이여이여	이여도하라	

- ④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이월 (여, 80세)
 조사장소 : 청수리 영축사 법당

이여 이여 허어어어어 이여 허어어어어 이여동하라
 정신 끈고³¹⁾ 복 어신 년은
 그덜 가나 저덜 가나 황당허게 둥군다
 경허지 말앙 요망지게 ㄱ레도 굴라 이여동 하라

26) 무거워서
 27) ㄱ레를, 밧들을
 28) 말려야지
 29) 제대로 굴아지지 않는다, 제대로 갈아지지 않는다
 30) 며칠
 31) 정신 끈고,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여 이여 이여동허라
 어떤 사람은 팔재 좋고 복력 좋앙
 ㄱ레 ㄱ는 소리도 좋게 허는구나마는
 날 ㄱ뜬 건 복 어신 년은 소리도 잘 아니 나온다만은
 송보지 말앙³²⁾ 이 ㄱ레 잘 들려도라 이여동허라 어어
 이여 이여 이여동허라
 질긫 집이 도실낭 싱건³³⁾
 넘어 가는 사람 넘어 오는 사람
 시나 도나 맛 보암서라 이여동허라
 이거 먹여도라
 이여 이여 이여동허라
 간되 가고 간되 오라도
 소리도 못 허고 노래도 못 허는
 우리 인간은 아무디 가도
 그게 그거 아니가
 이여 이여 이여동허라

⑤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송금양 (여, 85세)
 조사장소 : 저청초등학교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이엿말랑	말아근가라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이여이여	이여도허라
요 ㄱ레야	어똥허젠 험시

32) 흥보지 말고

33) 길가의 집에 복숭아나무가 있어서

이여도흐라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엿말란	말이근가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무석목닭은	ㄱ레로구나
굴당봐도	그만이싯곡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성님 성님	스춘성님
시냇살이	어평흡데가
아이고야야	말도 말라
고치장이	맵다흔들
시냇살이	더 맵느냐
맹지치매	대홍치매
눈물 썰기가	반지기더라
이여도흐라	이여도흐라

- ⑥ 조사일자 : 2004년 8월 1일
 제 보 자 : 김숙이 (여, 9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앞 나무 그늘

이여동흐라	
나 놀레랑	산 넘어 가라
어멍 보민	굴을 말 헨다
이여동흐라	
나 놀레랑	물 넘어 가라

- ⑦ 조사일자 : 2004년 8월 1일
 제 보 자 : 김 선 (여, 74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이여 이여	이여동하아라
나 놀레랑	산 넘어영 가라
이여 이여	이여동하아라
나 놀레랑	산도 물도 아니 늠나 ³⁴⁾

7. 방아 노래 (남방에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 제 보 자 : 박계생 (여, 83)
- 조사장소 : 박명춘 제보자 자택



박계생 (여, 83)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엿말랑	말아근가라
요 짓 방에	혹 ³⁵⁾ 어디간되
혹을 돌랑	지어나보라
열이 사나	스물이 사나
디자 보 리 ³⁶⁾ 가	사공이더라
이여 이여	이여도흐라
식콜방에	새글림서라
요 지 이디에	강덩상 칩의
간간 ³⁷⁾ 놀젠	놈의 첩 드난
어디 간간	나 놀아서니

34) 산도 물도 넘지 않는다
 35) 방아 중심에 짊어지는 돌통
 36) 뒤좌(後坐) 불이
 37) 이따금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엿말랑	말안근가라
승시제배 ³⁸⁾	들어젠허난
벧긴 ³⁹⁾ 개가	붕붕붕호고
춤실한 독이	고기육호고 ⁴⁰⁾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연말라근	말아근가라

②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송금양 (여, 85세)
 조사장소 : 저청초등학교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울엉 가민	늬이나 옷나
대로 한질	놀래로 가라
이여이여	이여도흐라
질긋집의	도실랑 싱건
시냐 드냐	맛볼인셔도
지녕 살 인 ⁴¹⁾	맛볼인어선
이여 이여	이여도흐라
다슴어멍	묻은 밧뒤 강 보난
반지느몰	반질반질 해도
비답 재왕	몽케엄서라
원 어멍	묻은 밧뒤 강 보난

38) 승시제화, 흉사(凶事)와 조화(遭禍)?

39) 밧근, 밖에는

40) 꼬끼요 하고

41) 데리고 살 이는

그세느물	고실고실 해도	
눈물 제왕	몽케엄서라	이여도흐라
줍쓸 마니	살을 메 시민	
늪으 침도	사름이 살라	
이여 이여	이여도흐라	
가시오름	강당당침의	
집 신 년아	집 자랑 말라	
밭 신 년아	밭 자랑 말라	
어욱 단뭇	새 단뭇 ⁴²⁾ 드난	
드런 보난	집이더라	
혹도 치민	개벽도 혈만	
종이도 시민	도기도 혈만	
그만 허난	집이 헨다	
이여도흐라	이여도흐라	

③ 조사일자 : 2004년 8월 1일
 제 보 자 : 김숙이 (여, 9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앞 나무 그늘

이여동흐라	이여동흐라	
네쿨방에	새글림서라	
드리 손당 ⁴³⁾	큰아기덜	
무그리	피방에 짓는	놀레로고나
방에 그뜩	천 그뜩 놓앙 ⁴⁴⁾	
메눌 애기	우라 ⁴⁵⁾ 빗질허랜 허난	

42) 역새 다섯 묶음, 새 다섯 묶음
 43) 교래, 송당
 44) 보리 방아 가장자리 가뜩 놓아서
 45) 고라, ~한테

여히 알로 이도밤서라⁴⁶⁾
네콜방에 새라 둥둥 맞으민 허라
드리 손당 큰 아기들
무ㄴ리 피방에 짓는 놀레로고나
새벌오름 강당장칩의
닉콜방에 새글럼서라

- ④ 조사일자 : 2004년 8월 1일
제 보 자 : 김 선 (여, 74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닉콜방에 새글라간다
오동동에 새맞춰오라
이여 이여 이여도허라

8. 나무 베는 노래 (낭 끈치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이두우 (남, 8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어어 날은 시간은 거저 가고 저물언 가고
낭을 재게 꼬쳐사 이걸 거정
해가 지기 전이 이 낭 하나는 몬 그챠두어야 갈전디 예야홍
나대⁴⁷⁾가 무끼엄시나 예야홍 예야홍

46) 이돌암서라, 처마 말의 돌 받침 아래로 피해서 감들고 있더라.

솔각이 나왓시냐 낭이 강흐연 꿩어지질 아니 허염구나
 돌아아장 꿩어보카 이쪽으로 돌아아장 꿩어보카 예야홍 예야홍
 아 꿩엄시난 어떤 낭이 보롬에 그대겨 가긴 허염구나만은⁴⁸⁾ 예야홍
 나대가 무끼엄시냐 예야홍
 나델 흐썰 굴앙이나 허여볼까 예야홍 예야들
 더움도 호고 켈로움도 호고 풀도 아프고
 쉬임 염 뒤에⁴⁹⁾ 나델 흐썰 굴앙 허여보까 예야홍
 (아이고 더윈 이거 춤 언제랑 이걸 꼬친덴 말이라
 이거 이제 그나저나 나대나 굴아그네 또 혼번 해보카)
 이제는 나대도 느실난⁵⁰⁾ 꿩을만 허구나 예야홍 예야홍
 어 빨리 꿩자 낭이 솔각이 먹어간다 예야홍
 솔각엔 또 나대 놀이⁵¹⁾ 토다점시냐
 에 이것 나대 놀이 토다점꾸나 예야홍
 시간 어성 이거 다시 굴수도 웃고
 그대로 꿩영 베긴⁵²⁾ 예야홍 예야홍
 아 이제랑 멀지 앓애영 다 이제 거저 꿩어점쩌 예야홍
 어 꿩어져간다 누워간다 예야홍
 어 낭이 누워찌 아기들 이편들로 와블라 예야홍
 어 낭이 누워찌 뺏쩌 뺏쩌
 이젠 다 꿩어점쩌

47) 나무를 꿩는데 사용하는 농기구

48) 꼬덕이긴 하지만은, 흔들리긴 하지만은

49) 쉬임 현 뒤에, 쉬고 난 뒤에

50) 날이 서서, 날이 날카롭게 되어서

51) 날이

52) 꿩을 수 밖에

9. 집줄 놓는 노래 (집줄 놓는 소리)

①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이두우 (남, 8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

아 줄 갑수과

앞이 줄 와난 받안 둥이기 시작헐네다

자 둥입씨 둥입씨

어 이견 줄 즐란 둥이당 보난 즐르다 이거

영감님 이거 줄 혼저 이 좀 저 앞의 줄 즐란 못 메염시메

늦추도르기 흡씨⁵³⁾ 줄 즈르우다

에에에에 이거 날은 덩고 재게 허여그네 재게 모여불곡 허여사 헐쿠다

흐끔 쉬어가민 또 브름 부럼직 허메서란

이거 재게 브름 불기 전이 빨리 빨리 일공 보여 부려사 헐컬

혼저 혼저 재게 덮읍씨 재게 모여불게

㉡

어 저 집 이는 영감님

빨리 조꺼 줍씨

조끔 시민 바람 불엄직 허메서란

재게 허영 즐도 메여사허곡 허컬

어떻 이제라그네 즐 앞뒤로 주어그네

메게 꾸리⁵⁴⁾ 허여줍씨 아아

경허여 이제 즐 메기 시작허여이 에에

53) (줄을) 느슨하게 하세요

54) 메계 걸계끔

에에 줄 올려이
예 줄 올림수다
에 올려그네 앞뒤로 줄 줍써 메기 시작허커메
자 줄 줍시메이 줄덜 메여
아 앞으로 둥입시다
예 둥이어보자 둥이자 줄 둥이자 둥이자
아 줄 즈르우다
저 영감님 저 뒤에 줄 늦추도르기협써
앞의 줄 보난 즈르우다
에에 빨리 빨리 둥이고 둥이고
이젠 되크라 둥이고
빨리 멍써 빨리 메어부러사
조금 시민 브름 붙엄직 허우다 에헤
빨리 빨리 멍시다

10. 흑긱 밧는 노래 (흑긱 불리는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이두우 (남, 8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집은 지서 놓고 우를⁵⁵⁾ 먼쳐 덮어야 흘건디
이이고 기와 공장엔 간 보난
이렇게 날쌔가 추워부난
빨리 허진 못허켄 허고
땅도 얼려고 밧도 실렵고 해서

55) 위를

담은 십오일만이라도 연기해 도랜 허곡
어찌허민 좋넌 말이라
그렇다고 이거 집에 새 더꿀 수 웃고⁵⁶⁾
빨리 이걸 만들어야 헐건디
나 게민 집이 가그네 발 불 살랑 초불 낭 그저오커메⁵⁷⁾
불 살랑 초명 발 실렵지 아니허게
맨도꾸명⁵⁸⁾ 흑을 빨리 이경 만들어주어야 헐건디
어떻 경 허커메 낭 그저오크메
빨리 어떻 허여줄 거게 허여줘사 허컬
게난 형님 게난 집이 낭 어시수과
낭 시꺼 갈 거⁵⁹⁾ 불사를 거 그정읍씨
게민 불살랑 춤앙이라도 게민 허여보쿠다
어 기여 걸랑 경허라
경 이번 강 허민 나 역불⁶⁰⁾ 게민 구루마 빌어그네
모두 강 집에서 불사를 거 으서도 모두 와그네 그저오크메
불살랑 초명 재게 이거 흑 비와그네 만들어줘사 허컬
아 게민 경 험씨 낭 왕 그저읍씨
불 살랑 초명 게민 일을 재게 허여보나 흐쿠다
경 허믄 나 게민 경 알앙 집이 가시커메
메틀 후젠 오랑 다시 보고 가컬
걸랑 경 험씨게 부지런히 게민 허여보쿠다

56) 덮을 수 없고

57) 가지고 올테니

58) 따뜻하게 하면서

59) 싣고 갈 것

60) 일부러

11. 자장가

①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박명춘 (여, 74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자랑	자랑	자랑	
요 아기 여허	좁도 잘도	자라 아아	
자랑	자랑	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자랑	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랑	자랑	웁이자랑	
요 아기야	훈저 자사		
어명은	일 헐 거 아니가		
웁이자랑	자랑	자랑	

②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박계생 (여, 83)

조사장소 : 박명춘 제보자 자택

웁이자랑	웁이자랑	
울 아기야	훈저 자라	
어명 아방	일 허젠 허염찌	
진조 자랑	호조 자랑	아덜 자랑
웁이자랑	자랑 자랑	웁이자랑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착훈거난	잘도 잠찌	
웁이자랑	웁이자랑	

- ③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양희봉 (여, 8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느네 아방도 죽어불곡 헨디
어떻 살젠 영 우는 아기가 시니
느 자게 죽어불민 나 살길
어떻허민 좋을것고
야야 자야 야야 자야
아기자랑 아기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 왕이 왕이자랑
왕이 왕이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 왕이 왕이자랑
왕이자랑 (흔저 자라 자게 일어남
이제 물 질레 가사곡 헐거 아니가
물도 항에 윈 어선게 야네들
야 이거 어떻허난 영 아니 잠시니
헤에 굽굽도 자게 자라 자게 자라)

- ④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이월 (여, 80세)
조사장소 : 청수리 영축사 법당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설운 아기	흔저 자라	
우리 일을	히려서	아니가
웁이자랑	웁이자랑	웁이자랑
금자동아	좁을 자라	
옥자동아	어서 자라	
금을 주면	너를 사나	
은을 주면	너를 사나	
설운 애기	편안허게 ⁶¹⁾	어서 자라
웁이자랑	웁이자랑	

⑤ 조사일자 : 2004년 7월31일
 제 보 자 : 송금양 (여, 85세)
 조사장소 : 저청초등학교

우리 아기	재와좁씨		
돈밥 맥영	재와좁씨		
돈좁이나	재와좁씨		
자랑	자랑	자랑	자랑
좁을	자라	어서 자라	
어서 놀라	웁이자랑		
우리아긴	돈밥 먹언	좁만 송송	자는 소리
늬의 아긴	꺄치 먹언	감밥 조팝	벌어먹은 소리

⑥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춘선 (여, 71세)
 조사장소 : 저청초등학교

61) 편안하게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 아기	재와드라	느네 아기	재와주마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저레 가는	검등개야		
우리 아기	재와드라	느네 아기	재와주마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우리 아기	재와주라	느네 아기	재와주마
저레 가는	검등개야	우리 아기	재와드라
아기 재와주면	질긴 질긴	총배	
뉘어그네	지푼지푼 ⁶²⁾	헌 물에	
들으챠닥	내챠닥	허키여	
우리 아기	재와드라	너네 아기	재와주마
왕이자랑	왕이자랑	왕이자랑	

- ⑦ 조사일자 : 2004년 8월 1일
 제 보 자 : 김숙이 (여, 9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앞 나무 그늘

왕이자랑	왕이자랑
순 애기	재와주저
어진 애기	재와주저
왕이자랑	왕이자랑

12. 달구 노래 (달구 소리)

- ①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62) 깊은 깊은

제 보 자 : 이두우 (남, 8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에야홍 에야홍 삼시번째영 들러놓고 에야홍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야홍
칠성가치 벌어진 향원님네 다물⁶³⁾가치 모여덜듭시다 에야홍
어젯날에 성탄한 몸⁶⁴⁾ 오늘에는 영골이 되고
천지에 하루의 만물이 영천하고
이럴 줄 이 어찌 영원하리오 에야홍
하물동 같은 시영골이니
오늘날의 영혼이 되여
지옥으로 가서실 때에
석벽⁶⁵⁾치 다려보자
어허어어어어 에헤에에에에
앞엔 보난 노절봉에
뒤를 보면 금계포령⁶⁵⁾
운치 할령에 부귀영화 즈손이 창생
좌청룡에 우백호여
어리어는 보난 영생하고
우쪽 형성에 일월이 뜨여
서산봉에 일몰을 가면
월출동방 달 솟아오네
어허어어종 부귀영화허고 자손 창생이 영원히 허고
이철련 전 진씨황도 좌우철⁶⁶⁾을 둘러메여 조선 팔도를 들고 보니
강원도에다 금강산이 일만 이천이 서나 있어 영광이여

63) 밤에 한군데 여럿이 총총이 모여서 반짝이는 별

64) 탄생한 몸

65) 금계포란(金鷄抱卵)

66) 나침반

청주⁶⁷⁾로다 내려보니 불국스의 종소리는 천하각국을 울리는데
에헤이이기가 영산 (아고, 잊어부렀네)
전라도를 들고 보니 벌초봉의 이절봉은 하초불사 달귀로다
목포로 들고 보니 유달산이 들고 있네 어차불사 달귀로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제주를 들고 보니
금석같은 한라산이 삼스방 동서로다 발을 버쳐
제주 영기가 뒤텔고나 애차불사에 달귀로다
영실 황천에 신령을 두고…….

아이고, 잊어부런 안돼켜.

<조사자 : 잊어부런마씨>

응, 대강만 영영 허라, 잊어부런 안돼켜.

<조사자 : 할아버지, 말로도 해지쿠과? 아까 불러난 소리, 그냥 말로.>

응, 말로도 해지지.

<조사자 : 그믐 말로 좀 곱아주시쿠과. >

응.

<조사자 : 말로라도 곱아주십씨.>

에야홍 에야홍으로 시작 헤서이

칠성꺾치 벌어진 향원님네 다물꺾치 모여덜 듭시다

어젯날 성탄한 몸 오늘날의 영혼이 되어

지옥으로 가실 때에 석벽꺾치 다려봅시다

<조사자 : '에헤헤 달구' 해난 다음에, 이긴 사람들이 달구 하는 거고.>

응, 이긴 협조하는 사람들이 허는 거고.

<조사자 : 그 다음에 또 영영 머렌 부를 거 아니마씨?>

인생살이가 멀다 해도, 초로 인생이 분명하다.

<조사자 : 영 한번 불러나면 '에헤 달구'랜 해 마씨?>

응, '에헤 달구'는 그디 협조하는 사람들 허는 거난.

67) 경주

〈조사자 : 그니깐 인생살이가 멀다 해도 예해 달구하고, 초로 인생이
분명하다 예해 달구하고 예.〉

응.

〈조사자 : 그 다음에도 ㄱ르쳐 줘써.〉

인생살이가 멀다 해도 초로 인생이 분명하다

서산봉에 일몰하니 월출들방에 돌 솟아오네

이철련 전 진씨황도 좌우철을 둘러메여 조선 팔도를 돌고 보니

강원도의 금강산이 일만 이천봉 우리나라 맹산이다

충청도로 내리고 보니 다(多) 많은 수답전은 우리나라 식다(食多)로다

청주로다 들고 보니 불국스의 종소리가 천하각국을 울리는구나

전라도를 들고 보니 목포의 유달산은…….

〈조사자 : 전라도 보면은 벌촌 이수계 벌촌. 그거 말해난거 님은디.〉

응. 그거 말해난거 님은디, 잊어부렀네. 잊어부렀져.

〈조사자 : 넘어갓당이네예.〉

응. 넘어가.

목포로 넘어가니 유달산이 우리나라 맹산이여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제주를 들고 보니

금석같은 한라산이 삼스방 동서로다 발을 버쳐

제주 영기가 뒤고나

〈조사자 : 제주도 영기가 뒤고나 한 다음에 끝이파? 무사 더 있지 않
애 마씨?〉

그걸로 계속 불러놋주게. 달구 불러난거. 아까 나 ㄱ르겨. 예해 달구로
다 행 그 다음부터는 산에는 이런 걸 붙여 가는거라.

〈조사자 : 들어가젠 하문 자손들헌티 머렌 곁는 거 이수계.〉

응.

〈조사자 : 거기까지는 해줘사 우리가 어떻 행 끝을 낼건디 중간에 끊어
붙은 좀 경하주 마씨.〉

글로부터 계속해?

〈조사자 : 예.〉

한라산 동서로 밭을 버쳐 그 다음에는 '군왕지기가 생겼고나' 이런 식으로 가야 할 거주게. 군왕지기라는 건 땅 위치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거라.

〈조사자 : 장지마씨?〉

응. 장지를 말하는 거라. 제주도 한라산이 동서로 밭을 버치면 밭이 영향이 그 한라산이 그 하관이야 입관이야 허는디 그까정 영기가 들어오게 된거라. 동서로 밭을 버쳐 군왕지기가 생겼고나 하는 건 그 현장을 말하는 거고, 군왕지기라고 하는 건. 경 행 그때부터는 이제 그 장지에서 현장을 말하는 거라. 그때부턴 앞으로 보난.

〈조사자 : 앞으로 보난〉

현장에 들어왕 말하는 거 될 차례라. 현장 앞에서 얘기하는 거. 군왕지기가 현장을 말하는 거난, 앞으론 보난 노절봉에 뒤를 보난 금계포랑. 금계포랑도 독이 병아기⁶⁸⁾ 곧 깨원 영 안양 앓은 형태라. 한자로 허문다 해석 나오메.

〈조사자 : 그 다음에〉

좌청룡에 우백호여. 부귀영화에 즈손이 창생. 성즈손엔 문과 급저. 외즈손에 무과 급저. 부귀영화 시켜줍서. 예잇 그만 곱아. 나 이제 모르크라. 잊어부런.

군왕지기가 생겼고나
앞으론 보난 노절봉에
뒤를 보난 금계포랑⁶⁹⁾
좌청룡에 우백호여
부귀영화에 즈손이 창생
성즈손에 문과 급저

68) 병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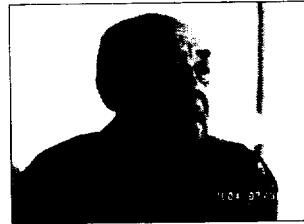
69) 닭이 알을 품은 형상

외손에 무과 급제
부귀영화 시켜 줍서

13. 창민요

① 창부타령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문도하 (남, 81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문도하 (남, 81세)

아니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하늘같이 높은 사랑
하해(河海)와 같이 깊은 사랑
칠년 대한 가문 날에
빗발 같이 반긴 사랑
당명황의 양귀비요
이도령의 춘향이라
일년 삼백육십일에
하루만 못 봐도 못 살겠네

② 노들강변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이월 (여, 80)
조사장소 : 청수리 영축사 법당

노들강변에 봄버들
휘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세월 한허리로

칭칭 동여 메여나 볼까
에헤야 봄버들도 못 믿으리로다
푸르른 저기 저 물만 흘러 흘러서
가노라
노들강변 봄바람
어데로나 가느냐
에헤야 봄바람이 들로 절로나
날아간다

14. 동요

① 원님놀이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박계생 (여, 83세)

조사장소 : 박명춘 제보자 자택

훈다리	인다리
개칭	대칭
원님	스설
구월	나월
산전	밭디
지등에	축

② 원님놀이

조사일자 : 2004년 7월 30일

제 보 자 : 양희봉 (여, 80세)

조사장소 : 제보자 자택

훈다리	인다리
거칭	대칭
율레몰	등부실락

- ③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송금양 (여, 85세)
조사장소 : 저청초등학교

㉠ 아기 어르는 노래⁷⁰⁾

훈나 인나	메울 때
천나 고라	메울 때
너괴 삼촌	어디 갔나
지장 밧디	총 누레 가
부지 땡	

㉡ 도롱이를 잡으며

도롱아 도롱아	나오라
도롱아 도롱아	나오라
느 마농 밧디	나 마농 밧디
쉐영 몰이영	다 먹엄찌
가죽 감투 씨곡	쉐몽땡이 차곡 행 나오라

㉢ 쇠비נם을 두드리며

불 싸라 활 싸라
(반복)

㉣ 잠자리를 잡으며

70) 아기를 즐겁게 달래면서 부름

느려오라 느려와
앗아난 방식에 앓으라
창천⁷¹⁾ 밥주리
곤밥 행 주마

㉔ 가마귀 노래
가마귀야 가마귀야
어디강 오란다
할망신티 불 담으레 행 왔저
계난 무신 밥 줘니
괘우리 밥⁷²⁾ 줘라
계난 뭇 병 누렌 해니
뒗칩 하르방 좃 끊어당 병 누워렌 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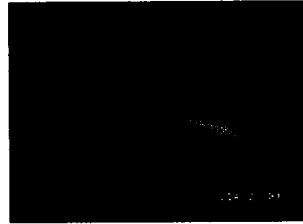
㉕ 낭 허레 가게

ㅁ물떡 좁은등이 딸아	침떡 비염등이 딸아
오라 낭 허레 가게	아이 가켜
무사 아이 갈디	배 아판
무신 배	자라 배
무신 자라	엄 자라
무신 엄	툷 엄
무신 툷	산 툷
무신 산	뫼 산
무신 뫼	골 뫼
무신 골	쉐 골

71) 창천, 푸른 하늘에의 뜻

72) 지렁이 밥

④ 조사일자 : 2004년 7월 31일
제 보 자 : 김춘선 (여, 71세)
조사장소 : 저청초등학교



김춘선 (여, 71세)

㉠ 원님놀이

훈다리 인다리
개천 개
워님 사설
구월 나월
전진 밧디
지등개 척

㉡ 매미를 잡으며

주얼 재얼 내려오라
개똥 범벅 해여주마
주얼 재얼 내려오라
개똥 범벅 해여주마

㉢ 말 잇기 노래

저 산 뒤에 꼬박꼬박 흐는 거 뵈고?
미뻬쟁이여
미뻬쟁인 흰다
희민 할으비여
할으빈 등 굽나
등 굽으민 쉼질멧⁷³⁾가지여
쉼질멧가진 검나
검으민 가마귀여

73) 소의 등에 얹은 길마

가마권 놓든다
놓드민 심방이여
심방은 두드린다
두드리민 철쟁이여
철쟁인 줍진다
줍지민 옛이여
옛은 흘튼다
흘트민 지레기⁷⁴⁾여
지레긴 보리 먹나
보리 먹으면 물이여
물은 탄다

74) 기러기

설화

〈 목 차 〉

- | | |
|-------------------------|-------------------------|
| 1. 흑숫물에서 난 소리 | 23. 각시가 12명인 강림이 |
| 2. 7래머돌 | 24. 장화홍련 |
| 3. 담대동산 | 25. 콩쥐팥쥐 |
| 4. 할망당 | 26. 복 좋은 감은정 |
| 5. 채마소 | 27. 새로 난 똥은 개도 아이 먹는다 |
| 6. 동향묘 | 28. 7형제 간 빼먹은 이야기 |
| 7. 구리쇠비석 | 29. 왕이 되어 돌아온 셋째 아들 |
| 8. 물통이 모여서 생기게 된 청수 | 30. 흑숫물 귀신 |
| 9. 청수의 유래(지방유래) | 31. 비단장수 |
| 10. 힘센 할망 | 32. 각시 얻으러 가다 본 귀신 |
| 11. 영리한 두 아이 | 33. 매누리는 춤추고 할머니는 울고 |
| 12. 천자문 | 34.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 |
| 13. 판잣동산 | 35. 새 혼 |
| 14. 맨 배형 모양의 청수 | 36. 저승과 이승을 오가지 못하는 이유 |
| 15. 천년묵은 주녕이와 전복 | 37. 산 쓰는 정씨 |
| 16. 돌과 개는 삼 년 이상 기르지 말라 | 38. 뱀과 싸운 장수 |
| 17. 남선비 | 39. 도깨비 인형 |
| 18. 김씨장사 | 40. 방구 잘 뛰는 여인 |
| 19. 글 배우러 간 바보사위 | 41. 월계 김좌수 |
| 20. 상가 못간 바보 | 42. 거드랑이에 날개 단 아이 |
| 21. 한라군이 금방댕이 | 43. 힘센 오누이 |
| 22. 강림 이야기 | |

1. 흑숫물에서 난 소리

*제보자: 강성현(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노인회관

• 요약 : 옛날에 봉천수를 이용해서 물을 얻었는데 물이 부족하여 더 깊게 파기로 했다. 그런데 약 20m쯤 파다보니 땅 속에서 “흙비 온다.” 라는 말이 들려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중단하고 흙으로 덮어버렸다. 큰 물은 만들지 못했으나 그 당시로는 가장 큰 물통이 되었다. 그 물통 이름을 흑숫물이라고 한다.

연날에 우리 저 물이 없어가지고 봉천수를 이용했는데 천수 물통 이름이 ‘흑숫물’이라고 했는데

〈조사자: 흑숫물 마씨?〉

응. 그 물을 전부 음료수로 사용을 해여왔는데 그 물이 좀 모자라가지고 더 지프게¹⁾ 물통을 지프게 파자.

〈조사자: 지프게 파자.〉

그래야 물이 많으니까 물이 한발²⁾때는 부족하니까 막 지프게 파다 보니까 한 20미터 쯤 파내려가니까 이걸 더 지프고 넓게 파자해서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땅속에서 “흑비 온다.” 이런 말이 나왔던 말도 있고, 하튼 무슨 소리가 나니까 이것이 이게 뭐냐? 신이 잇지 않느냐? 이거는 문제가 생기겠다 해가지고 중단을 허고 약간 흑을 더퍼붙었어. 완전히 더픈 거는 아니고 약간만. 그래서 그 이상 파들어 가질 안해 가지고 그렇게 큰 물은 맨들지 못했지만 청수에서 그 당시 음료수로서는 최고 큰 물통이 됐거주. 그래서 이름을 흑숫물이라 그렇게 명명을 했고.

〈조사자: 근데 무슨 소리 들었 마씨?〉

그 소리가 여러 가지로 전해오니까 연날 할아버지들이 근거가 없어가지고 명확히 말허기가 말헐 근거는 없고. 하튼 그디서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신이 어떤 작동허는 소리다 해가지고 중단허고 거기다 조금 메와 붙었어.

〈조사자: 신이 어떻 마씨?〉

신이 그저 어떤 뭐가 너무 판다는데 뭐 소리가 난다는 게 우리 사람들

1) 깊게

2) 가뭄

이 잘못을 지나친 잘못을 저지르니까 그런 소리를 허는거 아니냐 그래서 중단을 했어. 장 확 더끄레 헌말도 있고, 또 흑비가 내린덴 헌말도 있고. 여러 갈래라니까 딱 헛가지로 결론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헛 근거가 없고 멧지. 물통에 대한 건 이걸로 낫이고.

2. ㄱ래머들

*제보자: 강성현(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노인회관

● 요약 : 옛날에 청수리는 풍수지리학적으로 서쪽이 비어있어서 이것을 막아야 재앙을 막을 수 있고 행운을 불러 올 수 있기에 ㄱ래머들을 잘 보존하고 나무숲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ㄱ래의 뜻은 옛날부터 변함없이 잘 보존되어 내려오는 것을 말하고 머들은 돌이 모여져 있는 것을 뜻한다.

ㄱ래머들이라고 큰 돌산. 나무숲이 우거진 산이 있는데, 산이 아니고 돌 모여진 거를 머들이라고 해 머돌. 그것이 있는데 그게 연날부터 워낙 큰 머들이 뉘니까 이걸 보존하자. 왜 보존허느냐, 우리 청수리에는 풍수지리학적으로 판단해보니까 동쪽으로는 비어잇질 않은데 서쪽이 비어가지고, 비어잇다는거는 허하다는 말이라.

〈조사자: 아.〉

이것을 잘 보존허곡. 나무숲이라도 키워야 우리 부락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복이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복이 아니라 어떤 행운이 올 수 있다. 이레가지고 보존을 죽 해오다가 근레에 와서는 의식이 뒤바껴가지고 보존을 안 허고 있는데, 연날에는 그 쪽이 비어잇기 때문에 그 머들을 보존허고 이제 더 웅장허게 나무라도 키워야 우리 부락의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촌도 뉘 수 있다고 해서 그 보존허는 머들이 잇주. 그래서

꺄래머들이라는데 고래머들은 무슨 뜻에서 그 이름을 명명을 했느냐 허면 은 연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꺄래라고 허주. 요즘 사람들이 모르주만은. 꺄래부자 무슨 꺄래머들. 꺄래부자란 말이 뭇 말이나? 연날부터 변함없이 크게 내려오는 부자다. 그래서 꺄래부자. 그래서 연날부터 그 보존뉘어서 그 내려오는, 보존뉘는 머들이라 해서 꺄래머들이주.

〈조사자: 네.〉

3. 답댕동산

*제보자: 강성현(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노인회관

• 요약 : 청수리는 서쪽이 허해서 소가 많이 죽는 재앙이나 전염병이 그곳으로 들어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 그 쪽으로 가는 길 옆에 동산이 있는데 그곳 둘로 탑을 지었다. 그 탑을 답댕동산이라고 부른다.

〈조사자: 서쪽 허허댕 행으네 마을에 흑이나 재앙이 내렸댕 적이 잇어 마씨?〉

아 소가 많이 죽든지 병이 이제 전염병들 그런 것들이 오면은 거기 비어 잇기 때문에 그 허한 지역으로 들어 왔다. 그래서 그 머들을 갖고 왔고. 거기 이제 부락 그 쪽으로 가는 길 옆에 동산 잇는데 거기 둘로 탑을 짓었어. 막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그 탑을 둘로 쌓아가지고 거기가 이제 답댕동산이라고 명명을 하고 잇는데 도로확장 지역. 새마을 사업하면서 다 없애 불었주.

〈조사자: 그 둘은 누가 쌓아난 마씨?〉

연날 할아버지들이 그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을 쌓았지. 인공으로 우리 청수리 리민들이 모여가지고.

〈조사자: 현대 그만 돌도 큰거 작은거 이실거 아니라마씨?〉

그럼주. 큰 돌은 밑으레 놓고 작은 돌은 윗으레 차차차차 심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돌을 전부 쌓았었주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담데동산 담데동산 허주. 겐디 지금은 허몰어불영 엿주.

4. 할망당

*제보자: 강성현(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노인회관

● 요약 : 할망당이 있는데 십이지에 해당되는 중에 어떤 날을 택해서 제를 지내고 오면 자식도 잘 자라고 병도 안 든다고 한다. 그런데 할망당을 갈 적에는 아무도 보지 말아야 하고 누가 봐도 인사말을 해도 안 되며 재물을 차릴 때도 많지는 않아도 아주 정성껏 차려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할망신에 정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오늘 빈 것은 무효가 된다.

할망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할망신이 거기를 이제 저 십일에 한번씩 갔을 거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해 가지고 그 십이지가 잊지 않여. 십이지에 해당 되는 중에 그 무슨 날을 했는지는 몰라. 그 날을 택해가지고 거기 가서 제를 지내고 와. 그러면은 자식들이 잘 자라고, 자식들 병도 안 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 할망당에 갔다오는 예가 잇었는데, 갈 적에는 아무도 보이지가 안해야지. 누가 보이면은 안됐고, 봐도 인사말을 해도 안됐곡. 그믄 인사말을 하면은 할망신에 정성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무효다. 가서 빌긴 빌면서도 무효다라고 생각하면서 돌아왔주. 그러니까 동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때에 말도 하지 않고 할머니한테 비는 거주. 요즘은 기도라는 말인데 딱 그 할머니한테 빌고 딱 돌아오면은 오늘은 행운이 우리집에 들어오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병도 안걸렸다. 비는데

그디 비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딱 앉아 있어. 거는 무당허는 사람이주. 그 사람이 빌어주는 거지. 여기 사람이 가면은 비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이제 뭐 재물만 가지고 간단한 재물이지. 많이 체리진 않고, 접시 쪼그만 쪼그만 헌거에 가정 정성만 들이는 거지. 뭐 많인 안 체리고 간단히 체리 돼, 아주 정성껏 그거 헐 때는 무슨 이제 이 무슨 저 뭐 음 좋잖은거. 뱀이 죽은거나 그런 것이 보이면은 안 헤불어. 또 여자들이 생리 그런 시기에는 또 안헤. 그런 것이 부정 탄다고 헤. 요즘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면 말 같지 않다고 이런 때문에 말은 안 허는데, 음 그런 정성을 들여 가지고 거기 가져 가면은 거기 사람은 기다려 있다가 저 대변해 주는거주. 빌어주는 거라. 이 집안에 뭐 자식도 잘 자라고 재앙도 들어오지 말고, 잘 이 좋은 가정 뭐 이뤄 주십사해서 빌어줘. 영 허면은 거기 재물들이나 돈도 올리고 그 사람이 이제 돈 같은 거는 다 갖주.

〈조사자: 거든 거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할망신이 아니고 그 기도 해주는 사람이 또 모시는 신이 할망신.〉

그렇지. 그렇지. 건 그 기도 해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 아니돼. 무당! 무당! 당만 아는 사람이주.

〈조사자: 경행 경 연날부터 잇어나시믄 오래돼네. 어른들 가신디 아 이들 막 죽을 병 전염병 돌 때 막 거기 강 기도행 뭐 잘됐덴 다 나앗젠 하는 얘기 이서마씨?〉

그런거 잇주. 그러니까 아이 자식들이 이제 무슨 졸막 졸막헌 작은 감기 같은 거라도 길게 안 걸려가지고 빨리 낫고 그렇게 한다 이레가지고 집 집마다 다 헤다가. 중간에 뭐냐 그 요근레에 와가지고 이거는 미신이다 그래서 다 제를 못 지내도록 막았어. 막다가 이제는 이것을 그렇게 막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개방해 버리니까 일부 가는 사람은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가고 지금도 다니는 사람 약간 잇주.

〈조사자: 그러믄 예. 연날에 가당으네 사람뿡 인사 헤불고 나쁜 거 봐신디 제 지내불고 행 헤 입엇덴 허는거 엇어마씨?〉

헤 입은거는 엇돼, 가서 그 효과가 무효다. 오닐은 효과 엇이 그냥 앓으

니까 갖다오는 것 뿐이지. 효험은 하나도 엇다해서 돌아갓엇주.

〈조사자: 인사 해볼른 그냥 집에 가불주 무사 또 기도하레 가신고?〉

근디 체려논거 이왕 체려놓은거 가져가야지. 그걸 어떻게 집에 와서 먹으면 더 나쁘지. 뜻하지 않게 그랏습니다만 받아주십사 해서 올렛당 오고 했주. 그런데 효과는 엇지.

5. 채마소

*제보자: 강성현(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노인회관

● **요약** : 옛날 제주 목사가 대정현으로 술력을 나갈 때에 청수까지 오면 대정현에서는 목사를 모셔갈 사람이 와서 목사가 타고 갈 말을 준비해 뒀다가 모관 관리로부터 목사를 인계 받아서 대정현 순회를 하도록 했다. 그리고 순례가 다 끝나고 다시 돌아갈 때는 모관 관리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목사를 모시고 가고는 했다. 그 장소가 채마소인데 목사가 인수인계할 때 정좌해서 앉은 자리를 명당자리라 하여 묘를 만들었다고 한다.

채마소라는 데가 잇주. 음 채마소라는 것은 뭇 말이나, 나 그때도 얘기 했지만, 제주 목사가 대정현으로 술력을 나갈 때에 여기 청수까지 오면은, 제주시가 모관, 모관이라고 하주. 모관에서 대정 경계선까지 목사를 모셔 오면은 이제 대정현에서는 여기까지 와서 대기해 잇다가 말을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주. 말이랑 그 목사가 타고갈 말이랑 준비해 뒀다가 거기를 인계를 하주. 이렇게 허면은 대정현 직원들이 와서 목사를 인계 받아가지고 대정현 이제 순회를 허도록. 그러면은 모관 그 관리들은 돌아가는 거라. 거기서 대정에서 대정현 관리들이 인계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가 어디까지 가 겠다고 허면 다 순례를 시키고 다시 돌아갈 때는, 여기 이제 돌아간다는 연

락을 언제쯤 돌아갈거라고 허면은 여기 청수. 그 채마소라 하는 장소가 있주. 켄디 거기에 다시 모셔 오면은 모관이나 관리들이 대기 헛다가 또 모셔 가고. 그런 채마소라는 데가 있는데, 음. 이렇게 그 목사가 앉아. 게면은 인수인계허젠 허면. 목사가 걸어가 가지고 탁 허게끔 말을 타는게 아니고 정좌해서 딱 앉아 잇는거라.

〈조사자: 정좌해서 앉아이서?〉

응. 에 앉으면은, “이제 다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허민 딱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가는데, 그 장소가 이제 그렇게 명당자리다 헤가지고 묘를 멘들아 불었어.

〈조사자: 묘 만들언 마씨?〉

묘. 묘소.

〈조사자: 아 명당자리에 묘만들었이른.〉

그 자손들은 잘될거주. 경하니까, 그거를 뭐 반대를 허는 쪽도 잇었는데, 이제 뭐 그 목사가 이제 술력을 왓다 가지도 았고, 이거 음 공유지로 남아 잇으니까, 반대하지 말자 해서 내버리니깐, 그래도 권력가에서 거기 묘를 멘들었는데 거기 묘가 아주 큼직하게 지금도 잇주. 그 목사가 았앗던 그 자리라.

6. 동향묘

*제보자: 강성현(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노인회관

● **요약** : 풍수지리학적으로 동향묘가 제일 명당이다. 그 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무슨 병이 있는데 치유해 주십시오 말을 하고 나서 묘 안에 들어가 몇 시간 누웠다가 오면 그 병이 떨어진다고 한다. 동향묘는 가마오름에 있다.

근디. 여기서 풍수지리학적으로는 동향묘가 제일 이제 명당이다. 이렇게 잡주. 여긴 서쪽이니까 북쪽은 향하지 않고, 근디 그 묘가 워낙 좋아노니까, 거기 이제 그 묘 앞에 가서 절을 딱 하고, “나는 무슨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한 몇 시간 동안 누웠다가 오면은 병이 이제 떨어진다. 떨어지는 병은 무어난 허면은, 마라리아 병. 이제 막 추웁 그 떨리고 그 막 고열뉘믄 떨리고 허는게 지금은 보니까 마라리아 병 같은데 그 병을 그 묘에 가서 빌고 그 묘 안에 누웠다가 오면은.

〈조사자: 묘안에?〉

어, 묘안에.

〈조사자: 어떻 묘 안에 넣어줍니까?〉

산담이 막 크게 허니까 그디 절도 허고 허지 않체게.

〈조사자: 산담 안에 들어강?〉

안에. 산담 안에 들어가가지고, 음. 거기 이제 누웠다가 오면은 그렇게 빌고.

〈조사자: 신기하다〉

누웠다가 오면은 병이 떨어진단 말이다. 마라리아 병인가 그 병이, 떨어진다 해서 그 병 걸린 사람은 거기 가서 그렇게 빌고 누웠다 오는 예가 있는데 그 묘가 아주 큰 묘.

〈조사자: 어디서 마씨?〉

어, 가마오름이렌 헌디 가 이서.

7. 구리쇠비석

*제보자: 강성현(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노인회관

- 요약 : 옛날 사또가 지역에 오면 지역민의 소원을 청취해서 들어주

었는데 그 지역민이 고마움의 표시로 구리로 비석을 세웠다.

구리쇠비석도 있었지. 구리쇠비석.

<조사자: 구리쇠비석은 어떻 힌 거 마씨?>

젠디 그거는 우리가 돌비석은 뺏지마는 구리쇠 비석은 안뺏으니깐 모르겠어.

<조사자: 계민 무사 세워신고? 구리쇠비석?>

그건 그. 사또가 워낙 우리 지역에 오면은 뭔가 그 지역민이 소원을 그거를 청취해서 들어가지고, 이제 허면은, 어느 지역에 그 주민 소원이 받아 들여야 될 소원인지라. 그 주민이 아주 그 타당성 있는 소원이니까, 해결해 줘라 해서 그 허부기관에 지시를 하여.

<조사자: 허부기간에 지시.>

어.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 해결을 해 주면은, 이 주민은 그 목사가 그렇게 훌륭하고 너그러운 고마운 분이다 해서, 그것을 세웠던 거지. 거기 글을 써가지고.

<조사자: 연날에 경해났덴 마씨? 글을 써서. 근디 지금은 엇고? 도굴꾼들이 가져강?>

어. 구리쇠로 바깥디 싸 노니까. 구리쇠가 그렇게 예전에는 필요했었주. 그것을 가져가 불고, 돌비석도 그 도로확장허면서 엇어져불고.

8. 물통이 모여서 생기게 된 청수

*제보자: 문창립 (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청수리 큰 나무 쉼터

• 요약 : 제주도에는 대부분 생수가 나는 곳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고이는 땅을 수선해서 그 물이 고인 것을 먹으면서 살다보니 그 물

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물이 고인 곳 한 곳에 자리를 만들고 수선을 해서 물통을 크게 만들면서 살다보니까 여기저기 물통이 생기고 그래서 마을이 형성됐다.

제주도에는 대부분 생수 나는 디가 없으니깐, 이 흙, 흙이라는 건 뭘 말하려나, 좀 땅이 이렇게 움푹하고 땅이 좀 탄탄헌데 물이 고이잖아. 비가 오면은, 계민 그거를 훔수선해서 닦아가지고 물이 아즈면, 그거를 먹고 살라고 허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이 사는 거라.

〈조사자: 아.〉

물을 땡겨.

〈조사자: 그니까 비오면…….〉

비오면 자연적으로 고이는 물이 오래 앓는데…….

〈조사자: 땅 이렇게 쫘 흠파진디?〉

응. 자연적으로. 계속 그것 좀 수선하면은 물량이 많아지거든. 그럼 그거를 떠다가 먹고 살았거든. 그래서 제주도는 그저 물허벅 헤가지고 저가지고 항아리에다가 갖다가 붓고. 그러다 이제 다 먹어 가면은 또 지어다가 놓고 해서, 물 이렇게 수선하면서 통을 만들어가지고, 계서 이 밖에 물통이라고 다 만들어. 어느 부락이던 다 만들어거든.

〈조사자: 그 수선하는 건 어떻게 먹었마씨? 바로 못 먹을거 아니파?〉

바른 못 먹으니까, 가만히 잇이민 가라앉으니까 우에서 살살 떠.

〈조사자: 우에 것만 살짝 떠가지고, 경해도 양 얼마 안돼지 않아마씨?〉

게 그러니까 사람이 와나가면은 지피파고³⁾ 확장을 해서 물통을 크게 해 가지고 이렇게 방 물이 좀 안잠직 헌디 잇이민 자리를 만들고.

〈조사자: 경허당 보난, 영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허당 보난, 영 마을 뒤편이구나 예〉

경허난 또 이디가 정착이 먼저 댜게 아니라, 웨각으로부터 잇었다 말이여.

3) 깊게 파고

〈조사자: 따로 따로 영 딱!〉

9. 청수의 유래(지명유래)

- *제보자: 문창립 (남)
-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 *조사장소: 청수리 큰 나무 쉼터

● 요약 : 청수는 옛날 형이 배형이라고 했는데 배에서도 물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청수라고 했다. 원래 청수는 맑을 청자에 빼어날 수자를 썼는데 사람이 나는데 단명을 한다고 해서 명을 바꿔서 부르되 빼어날 수 가아니라 물 수자를 썼다고 한다.

〈조사자: 청수가 무사 청수 마씨?〉

웨……. 거 마을 이름이 거 연날 성인네가 지어놔서.

〈조사자: 어떻 청수렌 안 불러실거 아니마씨? 연날엔.〉

청수라고 했지 청수. 형이 멘 배 형이라고 하여.

〈조사자: 멘 배형 마씨?〉

배를, 축항에 축항에, 배가 이렇게 울타리를 바락 막아진데, 이제 배를 허민 메는거 아니여. 닷줄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자: 아 배에.〉

배! 배, 바다의 배. 그래가지고 그 배에는 돛대를 달아야, 연날에는 돛을 달아야, 바람에 풍선이라서 그래, 요즘은 기계선이주만은. 바람이……. 게서 이름을 지은 거야.

〈조사자 : 게민 청수는 무사 청수?〉

게서……. 배에도 물이 이서야 사람이 먹을 거 아니? 경해야 작업하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게서, 아마도 경. 청수가 연날에는 빼어날 수자를 썼다는 거야. 빼어난 수자. 물수가 아니고. 맑은 청자에 빼어날 수자를 썼는

데. 사람이 나는데 단맹허다라는 거야. 단맹허니깐 이 명을 바꿔가지고 청수는 청수라고 허뉘. 물 수자로 썼다는 거 아냐. 그런 정도까지만 알고 더는 몰라.

10. 힘센 할망

*제보자: 문창립 (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청수리 큰 나무 쉼터

• 요약 : 옛날에 힘센 할망이 있었다. 하루는 하르방이 말을 안 들으니 힘센 할망은 하르방을 지붕 위에 던져버렸다. 동네사람이 왜 지붕에 올라갔느냐고 물으니 하르방은 창피해서 호박타레 갔다고 했다.

아침에 한 남자가. 연날 초가집 아냐? 초가집에 올라갔어. 올라가시니깐 이웃사람이 "뭇 허레 올라간?". "호박타레." 왜 호박타레 올라갔느냐. 거또 말을 잘해서. 할머니가 세니까 할아방이 말을 안들으니깐이 할아방을 잡아당 던져붙었어. 계난 할아방이 지붕 위에 올라간. 계난 그 말이 잇우다.

〈조사자 : 아. 창피행으네 호박타레 갓덴.〉

계난 그 할망은 콩 스물 닷말 멧개를 담아도 옆 등에 창 강으네. 낭에 강 갓당 탁 놓으민 낭이 뭐 부지직허게 끄낫젠허여. 경 그 할머니는 세어낫덴 허여. 할아방을 뜨리진 못허니깐 지붕우터레 혹 데껴버리난 동네사람은 그걸 봐가지고 "뭇 허레 올라잡디가?". "호박타레"

11. 영리한 두 아이

*제보자: 문창립 (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청수리 큰 나무 쉼터

• 요약 : 옛날에 일곱살 난 두 아이가 있었는데 머리가 영리했다. 두 아이는 눈치도 남달라서 서당에 선생이 출장을 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한 아이는 선생과 동행하고 나머지 한 아이는 선생의 빈 자리를 지키기로 한다. 선생과 아이는 출장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나게 된다. 아이는 피를 내어 선생의 담뱃대에 불을 붙이고는 도적의 입에 박아버려서 도적이 힘을 못 쓰게 해서 위기를 모면한다. 한편 나머지 아이가 지키고 있는 서당에는 한 사람이 와서 자기 밭에 묘에 있는 산송이 너무 커서 농사가 안 되니 송사를 하려하는데 이를 선생께 의논하러 왔다고 한다. 아이는 '농화대화 송화대화 사또 처분 하시옵소서' 라는 글을 써 주어 송사에서 이기게 해 준다.

옛 선생이 글 읽을 때 경 허던디. 일곱살난 아가 잇는데, 아가 두 개가 잇는데, 요즘도 일곱 살 나민 학교 입학을 시키는데, 연날도 일곱살난 아이가 워낙 영리허니깐 서당에 글 가리키러 갔다허여. 글 가리키러 갔는데, 현대 가만서 이렇게 보니깐 에 두 놈이 들어온 아이가 머리가 비상허거든. '어 이놈들 보통머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헛다구. 젠디 애들이 보통머리가 아니라, 보통사람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아니 어떤 모양이여. 가만서 이렇게 보니깐 선생이 눈치가 다르거든. 한 학생이 "선생님 어데 출장가십니까?, 갈 일이 잇습니까" 이렇게 허니깐 "우째서 그런 말을 허느냐." "선생님 눈치가 다른데 마씨, 어 갈일이 잇다면, 선생님이 가는데 제가 동행을 허겟습니다."

<조사자 : 일곱살난 애가?>

어. 경 한 학생이 "선생님의 빈자리는, 방은 제가 직허겟습니다." 이렇게 헛다는거여. 이렇게 해서 이제는 하루는 떠났어. 떠나서 가는데 무인지경에 갔다는거여. 이 무인지경에 갔는데, 어떤 한 걸추한 놈 힘쎈 놈이 턱 나타났단 말이주. "당신 어디가?" 아 요새말로 여기서 굴으면 "제주시에" 연

날 여기서 다 걸었다녔어 제주시에. 우리도 걸영 가와봤는데 그렇게 먼 행을 허는데 무인지경에 가니까 웬 독한 놈이 턱 나타났다는거여. 어디가느냐고 허니깐 요새말로 뭐 시외간다든지, 어뎡 읍내에 간다든지, 테레비에 보민 읍내에 간다는 말을 잘 허는데, 간다고 허니깐 갈라고 허면은, 노자를 가지고 가지 연날 차비 보고 노자라고 헛거든. 노자를 빨리 내 놓으라고. 거 노자가 어디잇느냐고. 켜디 연날 담배가 어려웠거든. 담배통에 담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붙일라고 허는데, 하도 선생이 기가 맥히니깐, 한숨쉬면서 헤어. “담배나 붙이고” 이렇게 허니깐, 아 그 도둑놈이 그 담뱃대 이리 내라고 내가 피우겠다고 막 허니까, 이제는 담배를 줏는데, 불을 붙일려고 허니깐 선생이 붙일라고 허니깐 그 제자가 “아닙니다. 불은 제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경 이놈 딱 허게 담뱃대를 물고 이제 뺏는거여. 뺏면 담배가 붙을 거 아니여. 불을 갖다 붙이면 그 때는 통대를 탁 박았다는 거여. 그 도둑놈 아가리에. 입에 물었는데 콧 박으니까 콧 들어갈거 아니여. 콧 들어가니까 힘을 못쓸 거 아니여. “선생님 이제 가도 되겠습니다.” 그만 허민 얼 먹었겠지. 게서 죽 통과했다는 거. 개는 도통헌 아이들이란 말이지. 경헛는데, 집 직허는 아이가 또 잇더니, 어떤 아줌마가 츠자왔다는 거지. 어떤 아줌마가 츠자와가지고, “하 선생님 어디 가셨느냐?” “어 이리저리 읍내에 볼 일이 있어 가셨습니다. 한 삼일 살아야 돌아올겁니다.” “하 내가 마구 빨리 해서 왔는데 나 모르고 다 왔구나.” 한탄을 헛어. “어쩐일입니까? 선생님한테 할말 잇으면 나한테 허십서.” “너 들을 말 아니다”라고. 아 이제 그래도 막 애가 보챙 들었다는 거여. 보챙 들으니까, “우리 밭에 큰 밭이 있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연날에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잇지?. 건데 여기 리에 돈 높은디인 모양이여. 게서 소나무가 막 많이 잇어. 묘가 잇거든. 산송이라 헤가지고. 산 임자가 딱 허니깐, 산송을 보호한다고 밭 임자가 항상 진단 말이여. 게니까 나무는 점점 커가지. 밭은 큰 밭인데 오전에는 일루 그늘치고, 오후에는 일로 그늘치고, 농사가 안뉘단 말이여. 게니까 이제 선생한테 이제 어떻게 잘 글을 지어가지고 바치면은 이게 이겨질거나 해서 그 의논을 헐라고 왔단 말이여. 게난 사실 이리해서 선생님한테 의논하러

왔더니.” “그러냐고.” 어, 그러더니 일곱 살난 제자가 종이를 하나 딱 내노니, 글을 짹짹 써가지고 “갓다가 사또한테 바쳐보십쇼.” 이런단 말이여. 그래서 이제 가지고 갔다는 거여. 허니까, 그니까 그 글을 뭐라고 썼는가. ‘농화대화 송화대화 사또 처분하시옵소서’ 그렇게 썼단 말이야. ‘농사가 큼니까 소나가 큼니까. 사또 처분하시옵소서’ 그렇게 했다허여. 그니까 그 가서 송사를 이겼단 말이여.

〈조사자: 아.〉

‘농사가 큼니까 소나가 큼니까 사또 처분하시옵소서’ 행 딱 허니까 사또가 그 글 보니까 “어, 그 농자는 천하지대본인데 농사가 크지. 소나는 사름 살리는 게 아니여”

〈조사자: 그 나중에 어떻게 됐든 헛 말은 어서마씨? 가이네 그…….〉

어 그니까 그거 허니까 그 소나를 파라고 딱 허니까 그 밭에 농사가 잘 됐지. 그 짹 처분한거 아니여. 이자, 판결이 끝난거란 말이여.

12. 천자문

*제보자: 문창립 (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청수리 큰 나무 쉼터

● 요약 : ‘천지현황 삼년 독하니 언제 허여 하시존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천자문의 끝에 줄로 홀어머니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삼년을 글을 읽어도 못 읽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탄복하는 노래다. 그런데 삼년 딱 차는 날 어머니가 아들 공부하는 곳을 가 보니까 아들이 종이에 글을 쓰고는 도망을 가버렸다. 그 글을 선생이 보더니 잘된 글이라 하며 놀랐다.

천자문 말 하나 또 허겠는데 이, ‘천지현황 삼년 독허니 언제 허야 하시존고’ 허는 말 들어봐서?

〈조사자: 하늘천따지〉

어. '천지현황 삼년 독하니 언제혀 하시존고'. 혼 아이가 거 흠어명 아덜이라. 이게 언제적 와노니까 제일 천자문의 꺾에 줄이라. 꺾에 줄이라. 천지현황은 하늘천 따지 검을현 헌건 첫째 줄이고, 언제혀헌 헌 것은 제일 그 천자문에서 막 끝줄이라. 삼년 읽어도 그 꺾정을 못 읽으니 어찌허면 좋으리오. 탄복허는 노래라. 겐디 다른 애들은 삼년 동안에 책을 멧권을 읽어서 제껴서 나가는데, 이 학생은 삼년을 읽어도 걸 못 걸 읽엇단 말이라. 삼년 딱 차는 날에는 엄마가 가만서 보니까 공부허는 거를 한 번 못봤는데, 삼년 뉘 날도 모르고 가만서 보니까 종이를 안내서 글을 쓰거든. 그렇게 허니까 거 별일이다. 별일스러운 걸 다 본다고. 이렇게 보다가 딱 쓰젠허니까, 탁 잡고 선생한테 도망갔다는 거야. "이거보시오. 선생님 글이 뉘나 말았느냐" 딱 보니까 선생이 깜짝 놀랐다는거라. 뉘다 이거야.

13. 판잣동산

*제보자: 문창립 (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청수리 큰 나무 쉼터

● 요약 : 놀므르는 판잣동산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배를 타려면 널판을 걸쳐서 탔었는데 이 동산 형태가 널판을 걸쳐 있는 모양이라서 판잣동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조사자: 놀므르라고 잊지 않아 마씨?〉

놀므르는 여기 저 판잣동산. 판잣동산을 얘기허는거여. 연날에는 배에다가 계맛대서 배에 오를라고 허면, 판자 이렇게 놓고 올르고 내렸어. 축항에. 요새말로 말허민, 축항에서 널판을 요렇게 배에 걸쳐가지고, 그것이 이제 맨 배형이니까 저 중학교 그 저기가 놀므르라고 허는데.

〈조사자: 중학교 옆에 마씨?〉

어, 한문으로 봐서 판잣동산. 판자 널판자 판잣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배에 타는데, 으디가민 게왓 게왓 허는데, 게왓이 아니고, 요즘 터지는 말로는 게맛이라 게맛. 글자가 게맛토 아니라게. 글자가 게맛토허잖아. 게맛토자로 해가지고 그 말 발음을 게왓 게왓이라 허메. 게맛이 판잣동산 이렌헝. 배에 탈라고 배에다가 판자를 걸쳤다는 말이주.

〈조사자: 그쪽이 경헌데라부니까 그 놀르라고?〉

아, 축항에 배를 멧는데, 배를 탈라민 널판을 걸쳐서 타잖아. 널판을 걸쳐서 타니까, 이 배타기 위해서 널판을 걸쳐 있다는 동산이라 이 말이지. 형태가 그렇게 된디라 이 말이지.

〈조사자: 아, 땅모양이 경 생겼덴헤부난 마씨?〉

어, 개난 연날 지리학자들이 잇어부난 경 헛던거 같애.

14. 멘 배형 모양의 청수

*제보자: 임두호 (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청수리 큰 나무 쉼터

● 요약 : 청수는 축항에 메어 놓은 배 모양이라 해서 청수에서 태어나 먼 출세를 못한다는 말이 있다.

배형인데, 배를 이제 그저 처음엔 멘 배형이다 허는 거야, 청수가…….

〈조사자 : 멘 배형 마씨?〉

어, 이 돛, 뱃줄로 묶어서 그저……. 멘 배형이라 이른거라.

〈조사자 : 아, 예〉

응, 청수가 이제 멘 배형이라고 허는 거지게. 이 청수 전체가 그래서 이제 돛대 얘기도 뭐, 요기도 이거……. 저 밖에 동산 뭐, 어디 영 그 동산들

이 잇는다. 그게 돛대형이라고. 배는 그 자릿배에는 돛대가 잇엇거든. 그래서 돛대형도 다 잇고 이렇게 헤낫어. 쯤디 지금은 여기도 뭐, 저기 길을 하고 다 이제 부쉬불곡 헤논 판이지만해도 지금은,

〈조사자 : 그 뭐 지금의 청수가 전체적으로 영행 배 모양이라는 거짜?〉

배 그 배형이다 이거야. 멘, 멘 배형, 바다에 떠 잇는 배가 아니고 축항에 기대 멘 배형이다 이거야.

〈조사자 : 아 축항에 기대 멘 배 마씨?〉

축항에 기대 멘 배가 형이다 이거야 청수가.

〈조사자 : 아 뭐 경혜 가든 배, 바다, 뭐 그런 거 옛날 얘기들 할아버지 많이 해주지 않아마씨? 그런 거 어수광?〉

아 그러니까 청수가 멘 배형이니까 청수서 나가가서 큰 출세를 못한다 이거야.

〈조사자 : 아.〉

15. 천년묵은 주녕이⁴⁾와 전복

*제보자: 임두호 (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청수리 큰 나무 쉼터

• 요약 : 옛날에 천년 묵은 지네와 전복이 사람이 되서 결혼을 했다. 천년동안 살아서 사람이 된 동물들은 죽을 때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지네는 사람이 된 후에 나쁜 행동을 해서 그 벌을 받고 죽었는데 죽을 때 다시 지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전복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용이 되기도 하여 물을 뿌린다고 하는데 물을 주지 않을 곳에 물을 주어서 하늘의 왕에게 칼을 맞았다. 칼을 맞은 전복은 도망을 가서 어떤 방에서 간밤을 보내는데 다시 도망을 가려고 하니 문 입구에 열레기가 막아 있어서 도망가

4) 지네

지를 못했다.

그, 어떤 동물이나 뭐든 천 년 이상을 살면은 어떤 거로도 변신, 변해가지고 행동했다는 연말이 이서서. 천년 이상 살면은 동물뿐만 아니고 어떤 거라도. 그래서 이제 주녕이가 천년 이상을 사니까 사름으로 변신케 해가지고 결혼도 허고, 이렇게 헛덴 연말도 잇는데.

〈조사자 : 구랭이 마씨?〉

주녕이, 주녕이.

〈조사자 : 아, 주녕이 마씨?〉

응, 또 바다에 저 전복도 천 년 이상 사니깐 사름으로 변신케 해가지고 그 저 허곡, 또 이 저 우에 올라강, 저 용으로도 변천시켜 가지고 물도 뿌릴 때면 물도 주곡 이렇게 해넛단 말이 이서났져. 그걸 세밀하게 말허젠 허든 상당한 시간이 걸릴거고.

〈조사자 : 아 시간 걸려도 좋으난 얘기해 줍서게.〉

흐 흐

〈조사자 : 할아버지, 손주가 막 듣고정 흐는디 길어도 좋으난 해줍서게.〉

아주 어릴 적에 그 연날 들은 말인디, 뭐 나가 보고한 것도 아니고 들은 말인디, 그 저 주녕이가 천년을 살아가지고 사름으로 변신했다. 또 이제 아까 나 전복이 천년 이상 살아가지고 또 사름으로 변신케 했다. 또 이제 그 용으로도 변신케 했다고 얘기 했는데, 참 그렇게도 변신케 해가지고 용으로 변신케 해가지고 이렇게 비 안와 가지고 하는 지구에 그게 필요허니깐, 그 용이 물을 뿌려주기까지 했다는 이런 말도 이서나고.

〈조사자 : 그 전복이 천년됐든 사름으로 변하든 결혼도 하지 않아마씨? 사름됐든 거 막 그 딴 얘기 어서마씨? 그 전복이 사름으로 변헛당으네 뭐, 어디 집이영 결혼헤신디 전복이 사름뉘 사름은 잘도 용해라. 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이서라. 뭐 그런 것도 엇고 마씨?〉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용도 댓다, 사름도 댓다 얘길 허는디 그래서 이제 전복하고 지네하고

〈조사자 : 주녕이마씨?〉

응, 그 주녕이. 주녕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천년을 살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주녕이와 전복이 결혼을 해서.

〈조사자 : 아 둘다 사람돼신디, 가이네끼리 결혼을 헐 마씨?〉

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젠 뭐까지 헐젠 말이 잇는거고. 그래서 어떻게 그 주녕이는 좀 인간의 나쁜 행동을 헐던 모양이야. 그러니깐 이제 그 이 민간인이, 사름이 그걸 막 쇠 구워가지고 지져붙고 허니깐, 죽으니깐, 죽으면 또 제 복귀된다는 거지. 그니깐 죽은 다음에야 그 주녕이인줄 알았다는거야. 그 사름이 죽여부니깐. 그냥, 죽으니깐 주녕이로 돼붙었어. 게니까 주녕이가 화신했다는걸 그 인정헐다 이거야.

〈조사자 : 아 전복은 어떻게 알안 마씨?〉

아 그러니깐 그 서로 주녕이광 전복까지도 결혼을 헐다니깐, 자식이 잇엇젠 말은 없는거고. 그래서 그 전복이 용이 돼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물을 좀 안줄 디를 쫓던 모양이야. 용보단 저 하늘인가 어딘가 더 높은 그 왕이신 모양이지. 하니깐 왕 한티 칼을 맞아가지고 허니깐 이제 그 행, 어떻게 그 여관 추룩한디 이제 간밤을 새는디, 어떻게 이제 그 도망을 칠라고 하는 기색이 나타나니깐, 이제 머리빗 잇잖아이. 빗을 저 왕 대로 만드는 거야. 대, 대 저기도 저 대 잇지마는, 대로 해서 저 빗을 만들앙 난 거거든. 열레기라고, 이 빗 머리 빗는거. 요즘은 다 나일롱으로 만들이만 헐도, 요즘도 그런거 가문 이실 것이여. 게서 그 문 입구에 그 엘레기를 탁 하나 놔부니깐, 다 왕 대가 각 우겨져가지고 사름이 도망가젠 헐도 도망가질 못헐다는 그 전설이 잇어.

16. 둘과 개는 삼 년 이상 기르지 말라

*제보자: 임두호 (남)

*조사일시: 2004년 7월 30일

*조사장소: 청수리 큰 나무 쉼터

• 요약 : 옛날에 대감 집에 닭과 개, 말을 여러 해 동안 기르고 있었다. 그런데 아침마다 말을 보면 땀이 나 있어서 대감은 이상히 여겨서 밤에 숨어서 닭과 개를 엿봤다. 숨어서 보니까 개가 닭 집을 열어서 나오게 한 후 말 위에 안장을 씌운 다음 닭을 말 위에 태우고 개가 말을 끌고 나갔다. 영감은 이상해서 다른 집도 보니 모두 그러한 후에 서로 경주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 후 아침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원래 자리로 돌아갔다. 영감은 이를 수상하게 생각하여 닭을 없애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침밥을 먹는 자리에 닭이 오니까 통대로 닭의 모가지를 치니 닭이 죽었다. 닭이 죽어버리고 국을 보니 국에 하얗게 가루가 끼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여 이를 개에게 주니 개도 죽어버렸다. 그 가루는 주인이 밤사이 일을 안 것을 눈치챈 닭이 주인을 죽이려고 독약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래서 옛말에 개나 닭은 삼 년 이상 오래 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훈가지는 둥하고 개를 말하고 싶은디.

〈조사자 : 예, 둥하고 개 마씨?〉

응, 그니깐 개나 둥도 경 오래 기르지 말라는 그런, 둥도 삼 년 이상 기르지 말란 그 전설이 있는데

〈조사자 : 아, 둥을 삼 년 기르지 말랜 마씨?〉

삼년 이상 기르지 말란 말이 있는게, 그게 뜻이 있는 말로 보이는 건디, 어떤 말이고 하게 돼면은, 어떤 옛날 대감집에 아주 그 둥도 여러 해를 기르고, 개도 여러 해를 기르고, 타는 몰도 또 딱 아주 그 자가용 요즘 차, 자가용 식으로 몰 딱 그저 행 허고 했는데, 아 보니깐 몰이 아침에 보면은 땀이 나거든. 그 이상하다 싶어 가지고 이제 그 대감이 한 번은 영 상 봤어.

〈조사자 : 예? 뭐 마씨?〉

영 숨어가지고 그 둥광 꺾 안보는 영 한디 숨어가지고 행동을 봤다 이거여. 개광 그 둥 허는 행동을 보니깐, 밤쯤 돼니깐, 그 개가 그 둥 망에 가가지고, 둥은 그저 그 전에는 그렇게 조그만이 망을 만들어가지고, 그슬에 밤이면 올라가고, 붉으면 내려오거든. 게서 그 사람이 또 문도 닫아줘. 그 연날 짐승들 때문에 이랬다 이랬다 이러케 허는데, (손을 앞뒤로 흔들며 문

여는 시늬를 한다) 게서 개가 가가지고 둥 문을 싹 여니까, 둥이 나와, 나오고 그 개가 또, 타는 몰이니깐, 안장을 내려가지고 몰 위에 안장을 싹얏 거든. 게서 이제 허니깐, 둥이 타는 거야. 둥이 타니깐 그 개는 또 그 몰을 끌고 나간다 이거야. 그니깐 그 주인은 '카' 하면서 뺏겨든 행동을. 아, 보니깐 딴 데서도 그렇게 행, 그 나와 가지고 경쟁을 허더라 이거야. 뿔락, 딴 데도 그런 복장을 헤가지고 와가지고 마라톤 식으로, 요즘 마라톤 식으로 그 이제 둥이 몰을 타고, 개는 끌고, 영 헌것에 서로 시합을 허더라 이거야. 그러니깐 그 몰에 뚝 안 날 수가 없는거거든. 그래, 그 시합 끝나니깐 와가지고 또 몰도 그냥 메난디 메버리고, 안장도 또 그디 갖당 놓는다 놔 버리고, 또 둥은 올라가니깐 또 문 닫아붙고 허니깐 모르거든.

〈조사자 : 아 아침 뒤편 모르겠다 예〉

응. 그니깐 그 몰이 뚝난 걸로 봐가지고, 그 수상해가지고 그걸 조사했다 이거야. 그니깐, '아 이거 못쓰겠다. 이 놈은 이 둥을 이젠 없애부려야 뒤편' 허는 생각으로, 이젠 아침 밥상을 딱 이제 그 차려노니깐, 아 저 연날은 담배를 펴도 통대라고 헤가지고 긴 대 헤가지고 담배를 피우거든. 겐디 경 또 연령도 물론 하실꺼고, 대감님집이고 허니깐, 물론 이것도 진 걸테지. 통대도, 게서 이렇게 그 저 창문, 지금은 영헌데 창문이라고 있거든. 문 그 영 행 그 문 흔짝 열어가지고 이제 밥상을 들여오니깐, 걸 먹으면서 이 오른쪽에는 향시 그 경 행 먹젠 헤가니깐, 둥이 왕 주위에 자꾸 영 드나 들고 허니깐, 이거를 영 헤가지고, 저걸 흔 번 가차이 오든, 통대로 때려볼라고. 그런 각오로 사전 준비 헤가지고 영 식사를 허는 척 허니깐, 그 놈 둥이 파짝 거린다 이거야. 그 자기 밥 먹는 몰에 둥이 노는 거 아니야. 파짝 행 노는 흔적이 이서. 겐 보니깐 경 그와 동시에 확 굴기니깐, 그 둥이 모가지 맞아가지고 그냥 죽사했어. 죽어버리고 그 국에 보니깐, 허영게 무슨 ㄱ들이 있단 이거야.

〈조사자 : 가루 마씨?〉

응. 국에 ㄱ루 흩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깐 이제 그 국을 개 주니깐, 개도 개는 그 죽어 부러다 이거야. 그게 아마 농약인 모양이지. 요즘 ㄱ트든

그렇게 연날도 그런 그 둥이 그런 방법까지 다 부러가지고이, 그러니깐 그 거는 자기가 봐서 둥이 허는 행동을 주인이 안 걸로 보니깐, 이 주인을 죽여 부러야 뉘겏다 싶어가지고 그런 그 독약을 해서.

〈조사자 : 그러니까 그 하얀 가루로?〉

응. 그래서 이제 그 둥이 주인 먹는 국에 뿌려버리니깐, 이젠 그 주인은 흑시나 헤가지고 그걸 개 주니깐 개 그냥 죽어붙었지. 게서 둥도 죽어붙고 개도 죽어붙고 했는데 게서 그 다음은 '개나 둥이나 삼 년 이상 경 오래 거르지 말라'는 그런 그 연날 말이 잇엇텨어.

〈조사자 : 어. 잘도 재미나다.〉

17. 남선비

*제보자: 김정여 (남, 75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남선비라는 사람이 각시 둘을 두었다. 첫째 각시에게 아들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둘째 각시는 마음이 나빠서 그 형제를 다 죽여 버리려고 했다. 그래서 한번은 남선비 앞에서 아픈척을 하며 남선비에게 점쟁이에게 갔다 오라고 한다. 점쟁이로 변장한 둘째 부인은 남선비에게 일곱형제의 간을 내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한다. 남선비는 일곱 형제를 죽이고 간을 내어 각시를 주었다.

연날에 남선비라고 헤가지고, 그 사름이 각시를 둘을 헛젠. 둘을 헤가지고 처음에 그 첫 각시에는 아들을 일곱 성제가 낳았고, 그 남자 되는 사름이 그 뜰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는데, 겐디 내중 만난 사름이 아주 그 심보, 믿음이너무 믿음씨가 나빠가지고 어떻게든 요놈이 자기 낳지 아니한 그 아덜들을 다 죽여불라고 했어. 믿음을 그렇게 가졌단 말이주.

〈조사자 : 음, 나쁜 마음을 가진.〉

아. 흔 번은 아파가지고, 저 아픈 척 헤가지고 막 뒹굴었어. 이제 남자들이란 “사름은 왜 경 왜 그렇게 저 그러느냐” 하니까 “저 뒷집에 가가지고 저 점쟁이한테 강 물어 물어봐. 저 물어보다주면은 내가 그 절 할 테니까.” 이젠 그 여자가 이제 살짝 뒷집으로 가 가지고는 그 아 뭐 이 포제기, 분홍색 천 씌운 아진 사름한테 강 물어보라 이거지.

〈조사자 : 뭘 씌운 사람?〉

저 풋다리 딱 씌워가지고 응.

〈조사자 : 보따리요?〉

응. 얼굴 가리는.

〈조사자 : 얼굴 가리는 거〉

어. 그걸로 헤가지고 물어보라고 헐. 근디 이 여자가 살짝 헐게 뒷집으로 가가지고 으렇게 행 얼굴 가려가지고게 저 어 아픈건 뭐냐 허면은, 어 저 아덜 저 일곱 성제 에 내어 먹으면 좋덴 골으더라고. 에 란게 뭐냐면 간이지.

〈조사자 : 아. 간.〉

아. 간을 내 먹는 거. 그 속은 이제 역시 이제 뭐 그 죽은 각시가 탐내어 놓으니까 아덜이고 뭐이고 경 헤가고 그 아덜 일곱 성제를 다 죽여 먹었다 그거지. 그런 이야기가 이서. 어 각시가. 그 남자가 죽여가지고 그 각시를 주었다. 그 죽은 각시 아꼬운 각시를 주었다. 그런 전설이 전해졌데.

18. 김씨 장사

*제보자: 강정여 (남, 75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김씨 장사가 있었다. 이름은 제핵이고 직함은 진장이

여서 제핵진장이라고 했다. 그 하르방은 풍선(風船)으로 일본도 갔다 오고
힘도 썼다. 여러 사람이 밀어도 움직이지 않았고 땀도 옷으면서 던져버
릴 정도였다. 풍수지리도 잘 보아서 산소 자리를 볼 때 나쁜 땅, 좋은 땅을
잘 구분하였다.

김썩디. 제핵진장이라고 말이지. 제핵 진장. 그 저 동네 살아났는데, 아
주 등치도 크고 심이 좋았어.

〈조사자 : 제핵?〉

제핵 진장. 근디 이름이 아마 제핵인가 모르지. 갱 제핵인데 그 직함은
진장이라고 말을 했지. 직함은 진장.

〈조사자 : 진장?〉

에……. 직함은 진장. 그래서 이름은 제핵이고, 제핵 진장이라. 이 하르
방이 있었는데, 이 트멍에 일본도 거 저 풍선(風船)으로 다녀왔덴 말도 잇
고.

〈조사자 : 우와〉

또 이 하르방이 “이여 너네들 날 밀려봐. 밀려그네 건드려봐.” 뭐 혼 두
사름 웬만한 사름 아무리 그 하르방을 밀리려고 해도 감짝도 많이 안해. 조
금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거지. 그런 하르방.

〈조사자 : 오 잘도 신기하다.〉

음, 심이 세지. 뭐 땀들 같은 거 들으는 건 뭐 앓앙가라 웃고서도 거 던
저불었지.

〈조사자 : 그래서 뭐 그 하르방이 훌륭한 일은 헛덴은 안허고?〉

뭐 역사적으로 훌륭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 하르방이 뭐 지금 말하자면
풍수지리학인가. 땅, 산 보는데 좋은 땅, 나쁜 땅 가리는 거. 요것을 조금
참고 헛젠. 그런 걸 좀 참고 헤가지고 헛지.

〈조사자 : 묘도 잘 써 주고 경 헤시큰게 예?〉

응.

〈조사자 : 경허믄. 여기서 보믄 연날예예, 묘 잘못 써그네 헤 입엇덴 헤

그네 허는 애긴 엇어마씨?)

아 그거 묘를 잘 못 쓰면은 이제 참 그 즉시 뭐 자손이 없다 그거지. 묘를 잘 못 써버리면. 지금도 뭐 그 말이 남아있져. 어떤 산천에 하르방묘를 잘 모셨다고 하면은 이제 참 꾸준히 자손들도 잘 태어나고 잘도 잘 살고 허는데, 에 이제 그 관을 조금 못 썼다고 허면은 대략 보면은 이제 그 4·3사건에도 보면은 자손이 절자손이 뉘가지고 아무도 없지. 그런 사람들 많지 참. 그런 사람들. 젠디 그 사람네 산은 잘 모르지만은 산 탓이 아닌가 왜 그런고 그런 생각도 들고.

19. 글 배우러 간 바보사위

*제보자: 송금양 (여, 85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가시아방한테 글 배우러 간 사위가 있었다. 사위는 바보라서 가시아방이 '갑자을축해라' 라고 하면 사위도 똑같이 '갑자을축해라' 라고 하며 가시아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똑같이 사위가 따라했다.

가시아방한테 글 배우러 가난. 강 저 가시아방은 각시아방이거든.

〈조사자 : 가시아방?〉

가시아방은 그 어디 장가가민 각시아방고라 가시아방이렌 허여. 경 가시아방한테 글 배우러 가난. 가시아방은 "갑자을축해라" 사우도 "갑자을축해라"

〈조사자 : 갑잘축?〉

글 배우는 거. "갑자을축해라" "갑자을축해라" 가시아방 곧느냥 ㄱ치 굴아서. "헤렌 말랑버리라" "헤렌 말랑버리라" "이지숙" "이지숙" "너 맞을라" "너 맞을라"

〈조사자 : 따라하맨. 하하〉

“으눔시기 이거 어떻허난 이것도 모른 것이 이시니? 꼭 같이 굴아.” 내 부치는거 이시민 꼭 같이 내부치고, 가시아방도 내부치고, 사우도 내부치고. 이젠 어떻게 누가 물젠헤연 “무사 영들 허멘?” “야 갑자을축 쎄는 거네. 야 갑자을축이 이렇게 사름을, 나를 내부치고. 갑자을축 경 쎄는거네” 경 그리 내부쳐 둔거라. 미치지 못헌거라. 계난 배워져서게. 못 배왓주.

20. 장가 못간 바보

*제보자: 송금양 (여, 85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바보가 처갓집에 가는데 바보라서 같이 가는 친척이 ‘나 말하는 대로 듣고 말하라’고 한다. 그런데 친척이 처갓집에 가서 ‘사돈 나 오랏수다’ 하니 그걸 또 따라 해서 결국 사돈이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하여 바보는 장가도 못 가고 죽는다.

저 처갓집이 구해동 오는다. 암만 구해도 탄데로 장개를 못가반. 바보 ㄴ튼 거난. 이제 그 쁘당이 이제 “이번 강 느만 강 말 잘허민 이번은 뵈거여” 허멍 “나 곁는냥 들으라. 나 곁는냥 ㄴ르라.”

〈조사자 : 응〉

“나 이번 가진 느 들앙 감시메 나 곁는냥 굴으라” 허난 “네” 허여. 이젠 그디강 이제 처갓집이 것도 이제 말만 허민 오게 뵈는다. “사돈 나오랏수다.” 허난에 이제 쁘당추룩 사우도 “사돈 나오랏우다” 허지. 굴이 고르난. “아이고 나 이젠 똥 못 풀믄 말젠. 어디 저 가시어명헌티 사돈이엔 곁는거 어떻게 이시니? 아이고 나 똥 못 풀켄.” 경고랑 탁 털어부런. 경허난 장개 못 가뵈 죽어부런.

21. 한락꾼이 금방댁이

- *제보자: 송금양 (여, 85세)
-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어른들이 수룩을 드려 한날한시에 한 사람은 아들을 낳고 한 사람은 딸을 낳아서 사돈을 맺기로 한다. 이름을 아들은 한락꾼이라고 짓고 딸은 금방댁이라고 지었다. 둘이 커서 사돈을 맺고 금방댁이가 아기를 밴다. 한락꾼이가 저승으로 올라가려 해서 같이 가는데 아기를 밴 금방댁이가 힘이 들어 못 가겠다고 하니 가는 길에 거뭇장시에게 팔고 간다. 거뭇장시가 금방댁이를 못살게 구니 아들이 금방댁이에게 아버지를 찾아달라고 한다. 금방댁이는 아들에게 한락꾼이가 저승 갈 때 준 용얼레기를 아들에게 주고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한다. 저승에간 아들은 한락꾼이를 만나 여러 꽃을 꺾고 다시 삼년 만에 내려와 보니 어머니가 죽은 채 배 밭에 있었다. 이제 아들은 저승에서 오면서 가져온 여러 꽃을 어머니 위에 다 놓고 목화꽃 회초리로 어머니를 삼십번 때리니 어머니가 살아난다. 그리고 거뭇장시 자손들을 한데 모아놓고 멸망꽃을 뿌려 다 죽게 한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옥황으로 올라간다.

옛날에 아기신 어른들이 수룩을 드리레 갖추게. 수룩 드리난, 혼날한시에 수룩을 드리난 .

〈조사자 : 수룩이 뭐?〉

아기 낳젠 수룩 드리지.

〈조사자 : 영 비는 거?〉

비는 거. 수룩 드령 아정 아기 낳젠, 혼날에 수룩 드리난, 혼 사람은 이제랑 혼날한시 헤시니, "사돈 맵시다. 애기나건. 아덜 낳고 딸 낳고 사돈 맵시다." 허면은 게 이젠 딸, 아덜 나난, 아덜은 한락꾼이렌 지어불고, 딸난

사름은 금방댁이렌 지와서. 경 이름을 지와신디 경행 난. 난 이제 크난. 사 돈으로 헤엿주. 헤난 두 가시 똤거 아니. 두 가시 똤난게. 저 아기를 베여서. 아기를 베영 이마니 나오난 이제 돌아 아정 어드레 간다믄 옥황가는거. 한락꾼이 연날에 죽어도 갔다왔다 하늘에 저승도 갔다왔다 헤시네게. 연날에. 계난 이젠 한락꾼이가 이젠 옥황드레 올라가젠. 각시는 가당 가당 버치 나네 아기 배부난 걸지도 못하고 허난. 밤이 이젠 들에 강 아장 영 어욱을 똑똑 꺾으멍 사리를 멘들어서. 어욱으로. 들에 어욱 영 난걸로 사리를 멘들 명.

〈조사자 : 예?〉

그 손으로 멘든거게. 이젠 저 각시히는 말이 “저 똥 울음소리나난 저건 무슨 소리우파?” “거뭇장시 똥 우는 소리여” 개 쫓꾸는 소리에 “저 무신 소리우파” “저 개 쫓꾸는 소리여” 이젠 불그난에, 아침이 불가가난 이젠 소나이 굴아 “난 걸영가질 못하쿠다. 날 풀아동 갑서. 종으로라도 풀아동 갑서. 난 걸어가질 못하쿠다.” 경행 한락꾼이 남저가 올레강 가네. 가가난 개가 뒤로 돌아양 쿵당 빌레 돌아양 쿵당 내 들양 쿵당 헤가난 “저 올레 나강 봐라. 어떠한 올레 개가 저러게 쫓겁신지.” 이제 한락꾼이헌티 말허난. 완에 무신 거 “나는 옥황에 올라가젠 허난 질 버청 가질 못하고 나는 가는 건디. 부인이 아기 이서부난 가질 못허영 종으로 풀아똤 가쿠다.” 계난 “돈을 얼마나 받을레냐?” “은돈 만냥, 금돈 만냥, 이 만냥 받으쿠다.” “그러냐.” 이젠 풀아동 가서. 풀아동 가난 그 아이가 날거 아니. 난 이제 등긱등긱 헤가난. 거뭇장시가 들이들랑 내들랑 “문 올라. 올라.” 문 막 들어오지 못행 헤시니. 경 헤시난 “아이고 아이 이마니 커그네 놀레가 불건 읍서. 이마니 커그네 놀레가 불건 읍서”

〈조사자 : 거뭇장시 무사 경헤신고?〉

그 각시 조들리젠. 계난 이제 영 커가난 이젠 또 오민, “이 아기 커그네 밖에 나가 불건 읍서.” 쟁 혼 그럭저럭 허멍 그걸 혼 여서. 으둑 나도록 질러서. 질르난 이젠 혼번은 하두 거뭇장시는 원체 부자로 살아놓고 허난 막 그 각시만 보젠보젠 헤가난, 아덜이 “어머님 거뭇장시 콩들에 난 콩고질 문

어난디 콩 혼쭈만 주서옵서” 이제 콩이시난 툇툇 주서낭 혼 쭈 주서와시난, 술에 낭 보당 어멍 손가락 꼭 쥘르면서 “어머니 바른말 흡서. 어머니 바른말 흡서”

〈조사자 : 아들이〉

아들이 하도 거뭇장사가 못 뉘게 굴어가난, 아방 아닌 줄 알안. “바른말 흡서. 바른말. 우리 아버님 츠자줍서” 계난 한락꾼이가 저승더레 갈 때에, 그젠 저승 갔다 왔다 할 때난. 용얼레기 딱 꺾건에 각시를 주멍 “니가 야기 나건 이거 쫓어그네 좃으렌”

〈조사자 : 용얼레기가 뭐?〉

연날 용얼레기. 막 굽닥한 레기 나와났져.

〈조사자 : 쫓 같은거?〉

아 쫓도 알랑알랑 한 용얼레기. 연날에 이거 꺾쫓주멍 이거 츠자오렌. 이제 계난 이제 어멍 다른 말 허단에 한락꾼이렌 현 아방이여. 이제 용얼레기를 아덜 쫓거든. 이제 아방 츠자가렌. 어멍은 못간거야니. 못 강 그냥 이시난. 이제 한락꾼이여 옥항에 올라간. 아버님이 쫓이영 보멍 탕기멍 살암시난. “이건 무신 쫓이파?” “이거 꺾 우릴 쫓이여” “이건 무신 쫓이파?” “술 우릴 쫓이여” “이건 무신 쫓이파?” “우슴 우실 쫓이여” “이건 무신 쫓이파?” “멜망쫓이여” “이건 무신 쫓이파?” “말 굴을 쫓이여” 이제 곧느냥 다 꺾쫓 주머니에 담양와서. 저승은 사흘 살민 이디 삼년이라. 계난 사흘 살양 오랑 보난. 어멍이 어서. 어멍이 어디 가신고 허난에. 누게 7라줄 사름도 없고. 아무것도 못 고라쥬. 배 발에 그냥 내분거보난 어멍 죽은거. 이제 저 꺾 우 일 쫓 놓고, 술 우릴 쫓 놓고, 말 굴을 쫓 놓고, 우슴 우실 쫓 놓고, 다 난에 어멍신테 울어레 다 낭으네. 저 회초리 목화쫓에 회초리 언영오랑 “어머니 그만 장 일어납서.” 삼십변을 때리난 어멍이 화들랭이 일어나.

〈조사자 : 어뎡 행 일어난 마씨?〉

그 꺾 우릴 쫓, 술 우릴 쫓, 말 굴을 쫓 다 낭 저승서 꺾쫓당 난. 와들랭이 일어난이네 이제 어멍허고 돌양 나가젠 허난. 이제 한락꾼이 아덜이 흐는 말이 “저 이디 방상이랑 물야기들이고 뭐이고 다 돌양 옵센.”

〈조사자 : 방?〉

방상아기덜 방상아기덜. 켤당이고 누게고 다 앞이 읍센. 다 앞이 오난. 그자 땀망끗을 짝 뿌리난 것들 다 죽언. 다 죽어시난 어멍은 돌아 아전 옥 황으로 올라가비었지.

22. 강림이야기

*제보자: 송금양 (여, 85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아기들을 남겨두고 죽어 저승에 간 강림이가 저승에서 아기들 걱정에 일도 안하고 우니까 염라대왕이 강림이에게 쌀 한짐을 지어 보내면서 이승에 빨리 갔다오라고 한다. 강림이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아기들을 돌보는데 이 사실을 안 하르방은 강림이를 가두어 저승에 가지 못하게 한다. 시간이 다 되도 강림이가 오지 않자 염라대왕은 화가 나서 이승에서 강림이를 찾아내서 다시는 이승에 가지 못하게 한다. 이 후로는 이승과 저승길이 끊어지게 된 것이고 강림이가 편지를 이승가는 까마귀에게 맡기지만 그것도 전해지지 못한다.

연날에는 앞들이 질 갈라전. 삼처서는 사람을 잡으러 땡기는 처서. 강림이. 강림이. 땡기는 질이 갈라전. 이젠 으뜻허게 그 사람을 돌아가 분거야니. 이젠 아기 땡쫂 이신겨 주렁주렁이신걸 놔땡 돌양가부난. 쟁 이 사름은 저승가난 '에휴.....' 이 아기를 나땡그네 어땡허렌' 걱정스러웁 살질 못해. 이젠 염라왕이 "너 이승 살명 땡 허명 살앗느냐." "무시걸허명 삼니까. 어디 강 명지 차그네. 명지 차지민 쏘 훈말 주민 해당 아기들 맥이명 살앗수다." "비단방에 들어강. 비단이나 차라." 비단방에 들어강 비단 차가난에 어땡난 염라왕이 강림이한테 말하기를 "어땡난 그 아주망 보렌." 강림이 고

라. 어떠한 명지차례 들어가신디 포지직 소리도 안허고 지름도 도렌 안허고 말이어서. 이젠 강림이가 “아주망 비단방에 들어가신디 포지직 소리도 안허고 지름 도렌도 안헬져 헤영 염라왕이 들어보렌 험수다” “아이고 나 그 아기덜 즐랑즐랑 나 닥으난 눈물지왕 못살켜. 지름이랑 말앙 명지 바뒤에 눈물로 ㄱ득허니 윈 못허켄.” 케난 이젠 염라왕은 들어분거아니. 갱 쏘 혼 짐 저가불렌. 쏘 혼짐 저가민 그 아이덜 먹영 살거아니. 이제 쏘 혼짐 지어 왕 보내연. “이디 침 박은거 모르게 질레 강오라.” 시간이 막 급허니깐 얼른 강 오렌. 이젠 아기들 매날 울던 아들이 강보난 어명은 더 울엄서. 아이들 이 더 울엄시난 “니네들 무사 울엄디. 이걸로 밥 헝 먹으라” 헤땡 확 가불어서. 저승 띄시 가난. 그땐 저승 갖다왔다 할 때난. 이젠 띄 가난. 야 뒷날은 동넛 할망이 오랑 “아이들이야 아네들은 무사영 울엄시? 이넝이랑으네 아방ㄱ라 강 굴오라. 니네 어명 살려사켜.” 이젠 띄시 살리민 좋은거 아니. 좋으난 이젠 그 ㄱㄱ디 열두살난 딸은 “난 하르방 헌티 굴켜라. 굴으켜라. 하르방헌티.” “궂지말라게. 궂지말라. 나 이제 궂 가켜.” “아니 ㄱ르민 넝 가잡아.” 하르방 헌티 굴으난 하르방오난 메느리 학 끌영 안방더레 탁 들여난. 문 톱 종가불언. 이젠 가질 못헬거 아니라.

〈조사자 : 가지 못 허주게.〉

종가부난. 뒷날 낮 뒬도 윈 저승에선 이제 강림이영 기다려봐도 오지 안앙. 염라왕도 가보렌. “어떻허난 그 여자가 어제 밤에 가신디 오지 았암시.” 이젠 오랑 보난 두리두리 문 종가가지고 윈 그 집이 아무것도 엇어. 그 아이들 대통에 담아놓 안방에서 아이들 연날에 옷 다 입영 옷에 니에 대맹이에 니에 막 허난 그것들 잡으멍 머리 빗겨주고 허는거라. ㄱ만히 안장 이제 강림이 뱅뱅 돌아보당 강림이가 이제 뱅뱅 돌아봐도 그 집이 아무것도 엇거든. 지붕상으로 영 튜영보난 그 안방에 앉아서 글로 머리 이신거를 뽑아 가부난 죽언.

〈조사자 : 어떻게 죽어마씨?〉

강림이가 머리 이신거를 뽑아가서. 이디 어멍 았은걸 강림이가 옥황으로 저두완에 머리 이신거 뽑아가부난에 그 안에서 죽언. 이젠 저승에 갔다

왔다 허단보난 저승에서 툇 막아전 흥번 가난 뜨신 못오는거 이제는. 그 후젠 뒤 흥번가민 못 오는거. 시아방이 딱 그저 가지 못하게 막으난. 이젠 갓 당왔당 해신디. 그 후젠은 이걸로 딱 끈어전. 갓다 허민 못 보는거. 게난 그 어명이 펜지 흥장 허젠. 흥 이승더레 오는 사름흥티 부치난. 이승더레 오는 사람 뒤 이시느냐. 가마귀가 가마귀가 가옥가옥 허난 "이승이나 감시냐?" "이승가우다." "이 펜지나 갓다주라." 가마귀가 주난. 물영 오젠 허단에 몰 죽은 발에 들영 몰 뜯영 먹당보난. 거 어떤 하르방이 흥자 어정 앓안. 가마귀 가옥가옥 허멍 거느령 그 하르방 담배 먹으멍 거 알아져야 놓주게. 이주룩 보내보지 못헨 그 펜지들. 게 영 저승에 흥번 가민 맥이 끈어전.

<조사자 : 그 다음부터 저승에 흥번 가민 그 다음부터 이승에 못 온다.>
그제부터 끈어전.

<조사자 : 그때부터 끈어전. 펜지 영 쥐신디.>

펜지 올 수가 어서. 이제 그 가마귀 몰 죽은 발에 몰 뜯영 먹단 보난 어떤 하르방이 주워전. 놓렌해도 아니난.

<조사자 : 갱 하르방이 가져가부런?>

가져가부런. 거 알아들어져사 놓주게. 한번 가옥허민 가마귀 거 펜지 생각 허느냐.

<조사자 : 가마귀가 예?>

게. 가옥가옥 해도 가마귀 굴아봐도 그 하르방 해독 못헨. 내분거 내치지 못헌거.

23. 각시가 12명인 강림이

*제보자: 송금양 (여, 85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각시가 열두 명인 강림이가 저승회의에 늦어서 저승에서 었

라대왕을 잡아오라는 벌을 받는다. 염라대왕을 잡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강림은 각시들을 모아 놓아 이 사실을 말한다. 큰 각시가 자신이 염라대왕을 잡겠다고 하고는 쌀로 석 달 들어 조왕질리를 한다. 강림이가 가는 날 큰 각시가 밥해서 주면서 가는 길에 물 망태 진 할망 보면 절 3번 하고, 또 가다가 문전 하르방 보면 절 3번 하라고 한다. 큰 각시 도움으로 염라대왕을 잡아온 강림은 똑똑해서 저승처사가 된다.

각시가 열두 겐디, 열두 각신디, 회의하러 가당 보난 강림이가 회의에 참석을 못헤연. 늦게 가지난 저승에 가그네 저 염라 잡아오라는 거. 염라대왕은 강림이보다 더 높은 처사 아니가게. 저승에서는 왕이거든. 계난 옛날에 계난 강림이가 회 참여를 흐끔 늦게 갔다와보니, 염라왕 잡으라는 그 거 복한 걸 말아놔서. 회 참여를 흐끔 늦어 늦어부니까 벌, 벌로 이젠 말아놔서. 벌로 잡아오라.

〈조사자: 갔다오라〉

응. 강림이가 연날엔 죽지 않는 이역을 갔다왔다 허멍 살곤 헛거든. 이젠 그레신디 저승가그네 곧 가그네 늦게 회 참여를 못 가부난, 그 죄 받았 그 죄로써 염라왕 잡아오라 염라왕 잡아.

〈조사자: 염라왕을 어떻 잡아마씨?〉

염라왕을 어떻 잡아 말이니? 염라왕을 강림이는 갔다왔다 허지만은 염라왕은 원체 저승의 왕으로 앉아가지고 꼼짝도 못허거든. 겐디 이젠 강림이가 이젠 각시 열두 각시헌티, 큰 각시헌티 윈 못 가뵈. 아래각시만 돌안. 이젠 각시들한테 다 가그네 “야 저승에 날 염라왕 잡으려는 것을 누가 찾아 벨거야?” 헤두르난, 이 각시헌티 가도 “난 모르쿠다” 저 각시헌티 가도 “난 모르쿠다.” 각시 열둘 씩 모아 열헌티 신디도 멩겨봐도 알켄헿게 하나도 잇어. 큰 각시헌티 가난에 “어떠난 저 올레에 가지 날이라 읍디가? 정월날이라 읍디가? 어떠한 오라진 읍디가?” 윈 안 오라부난게. 계난 이젠 “그런게 아니고 난 회의 참동을 늦게 갔다그네 저승가그네 염라왕 잡는거 어떻허면 좋아? 이 책임은 누가 맡느니?” “나가 허쿠다” 큰 각시가 “내가 그 책임 허

쿠다.”“어떻허젠?” 이젠 쓸 이젠 두 섬 쓸을 혼 섬은 넝기고, 혼 섬 쓸을 서 말에 넝기고, 서 말에 넝겨다 놓고 석 달 들어 큰 각시가 부지런히 조왕질 리 해서.

〈조사자: 조왕질리?〉

조왕질리. 조왕 해서.

〈조사자: 석달 한 상 한 상〉

게난 석달. 근디 큰 각시가 석달 헤가도 큰 각시가 어떻 손맛이 좋은지 그자 매일 밥해도 밥도 맛 좋게 허고, 매일 해도 그제 손맛이라. 그런게 손맛이주게. 게난 이젠 혼번은 막 출령 나산 남편헌티 멩지 떡국 해놓고, 마농 흐끔 싸 놓고, 이제 저 옷 다 행 입지고 저 저승에 강 읍센 보내뵤. “가다그네 물망태 신 물망태 진 할망 봐지건 절 세 번 협써.”

〈조사자: 예?〉

물망태. 지난 연날엔 조왕할망 모셔뵤세. 조왕할망이 예전엔 잇주만은 저 곶은 하르방 봐지건 절 세 번 흐곡.

〈조사자: 물망 할망〉

연날은 이제 물망태 진 할망은 조왕에서 조왕할망이고 또 이디 하르방은 문전 하르방.

〈조사자: 물망 할망이영 문전 하르방.〉

물망태 물망 아니민 물 망탱이, 망탱이 망탱이. 저쪽에게. 게난 조왕할망은 물망탱이 지고. 이젠 이디선 저 대문전 일문전 하르방. 문전 하르방. 게난, 켜 점심만 헤동 가난, 조정에 확 들어가난, 간 강보난, 큰 데 세와 놓고 양쪽 쌍 영 돌아메곡 큰 모둥이 서. 다시 그디 강 계 보난, 염라왕이 그디 양쪽 쌍 돌아멘 큰 배에 염라왕이 그디 이시난, 큰 테가 확 동그난 염라왕이 강림이 가난, 화뜩 겁나그네 이젠, 집이 오라그네 대들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저 탁 머리 낭에 이 낭에 들어가는다, 그걸 불근불근 톱으로 싸가난, 퍼뜩 돌아정 혼져 오켄. 이젠 퍼뜩 돌아정 올거아니 이승더레. 잡앙왓주게. 잡아오난 이젠 참으로 강림이 똑똑허덴. 염라왕이 이제 허는 말이 이승오난 더러 허는 말이 강림이 똑똑허덴. 각시여러 개 헤영 사는 것도 정말

똑똑 하니깐 하는거라. 경허난 저승처사헌덴. 저승 강림이 사름 잡아간덴. 저승 강림이. 쟁 헤불러 가나네, 강림이 일등 좋덴 허멍, 강림이 우리 이승 참여 못 하켄 저승으로 돌아강 강림일 저승처사 만들언.

〈조사자: 저승처사?〉

응, 저승처사 만들언. 강림일 계난 강림이 막 똑똑허덴.

〈조사자: 그믄 저승에서 살아시큰게.〉

저승간 강림이 그 강림이가 이젠 이 사름도 드라간단 험시. 이제도 그 처사루.

〈조사자: 아까 침에 큰 각시가 막 조왕 들엇덴게 저 때문에 염라대왕 잡아온건가?〉

큰 각시가 원체 잘해주니까.

〈조사자: 잘해주난 염라 잡아 온건가?〉

게 잘해주난게 강림이가 심 버쩍 살아난.

〈조사자: 심이 변쩍 살아난?〉

경허난 그 염라왕도 퍼뜩 나오켄 헌디 곶이 오더란다.

24. 장화홍련

*제보자: 송금양 (여, 85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장화와 홍련 자매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작은 각시를 얻어서 온다. 그 각시는 아들을 한 명 데리고 오는데 그 둘은 장화와 홍련을 죽이고 재산을 다 갖으려 한다. 그래서 아들을 시켜 쥐를 잡아오게 한 다음 가죽을 벗기고 장화가 자는 곳에 둔 다음 서방에게 장화가 나쁜 짓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고 한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장화를 내치고 계모는 장화를 외가댁에 데리고 가는 척 하며 바닷물에 빠져 죽게 한다. 계모는 심

방을 빌어다가 굶을 하는데 이때 홍련도 장화가 죽은 사실을 알고 자신도 바다에 빠져 죽는다. 계모도 나중에 별로 벼락을 맞고 죽는다.

아기 뇌둔 어멍 죽어부난. 아방이 각실 언영 육지 사름 얻어 왔거든. 언 어 오난 머슴 난거 신가 돌아오난. 아들. 아 각시가 아들 낭 신거 돌아오난. 그 딸 성제는 딸 성제 이름은 장화 홍련이주.

<조사자: 아.>

장화 홍련 니네 알아지주?

<조사자: 난 모르는다.>

성은 홍련이고, 아시는 장화고.

<조사자: 아. 성이 홍련이고 아시가 장화?>

계난 성제신디. 이 머슴난거 돌아와부난. 이젠 그 딸 성제들, 막 저 재산도 많앙 부제. 영감도 막 부제여난 부제칩. 들어가노난 그, 저 다슴어멍 이 그 딸 성제만 죽여불민 이 재산 우리가 먹게 뒀다 헛거지이.

<조사자: 어야.>

아덜. 아덜. 아덜 ㄱ랑 "너 어디강 어디강 쥐나 흐나 잡아오라."

<조사자: 쥐?>

쥐 무사 좁앙 거죽 베끼민 아기인 줄 딱 아는거라. 사름 새끼 닭넝 허는 거라. 이제 밤이 저 디 토드록신디 강 캄캄헌디 강 "쥐 놈아 어여 나오라. 쥐놈 나오라" 그 머슴놈이 막 들락 헤가난, 쥐놈이 밤중 뒤가난 나완. 나오난 이제 데로 데로 좁져전. 쥐놈을 제물허젠 거죽베견. 거죽 베끼난 사름새끼인거 닭아 빈 생이라. 이젠 다 장화 홍련이 연날엔 모두 머리 내놓고 고운 뎡기 들영 놀지 안헤여서게. 보름달 뜨도록 놀자헤서게 밤이 놀레 갖당 성이영 놀레 갖당 어멍 어시난 아 울멍 뎡겨주게. 울민 집이 와도 좁은 안 들고 앉으난, 아시는 자놓고 성은 좁 안들영 이시난, 흐꿈이시난 기특하덴 다슴어멍이 쥐 잡은거 갖다네 이제 요 알드레 톡 물어두고 강 이제 다슴어멍허는 말이 "영감 잡썬요? 영감 이제 망헛어요. 처녀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헛다고, 아기 젓어요. 아기 젓어요." 쥐 잡아동 물어똥 아기 젓다고 어쩔

좋으나. 이제는 성제가 좀들엉 이신디 이제 아방이 오란. 각시말 들엉. 연날 부자 하르방들 또 각시 말만 들엉 각시말 닳아뻔 게. 이제 보난 "너네 나가라 집에 못 살켜. 나쁜 일 해부니까 니네 나가라" 각시 말 들엉 내쳐불언. 내치난 이젠 그 다슴어멍 돌아온 머슴놈이 "이제 너네 외할망 집이 돌아간다. 외할망 집이. 으레앉아. 외할망집이 돌아간다." 외할망네 돌아가젠 허난. 이젠 으 성을 신거단에 성을 신거간에 바다 물드레 들이쳐불거든. 바닷물에 기어 들어가렌. 숨 못쉬엉 들어가민 들어강 죽엇거든. 죽언. 죽어부난저 죽어부난에 이제 이젠 다슴어멍 허는 말이 이제 "왜 아이고 이제 벌써 죽어부니깐에 심방 빌어당 굿헛거든. 죽어부니까 질 치우켄. 경행 헤가난 이제 아신 막 듣단 딱도 아시도 이제 성신디 성 죽은디 강 물에 빠정 아시 물에 빠전 것도 죽언. 이제 다 죽언.

〈조사자: 그거 무슨 물 마씨?〉

바닷물이라 빠정 바닷물에 다 성제가 다 죽어서. 이젠 에 요 아덜 요새 끼가 이젠 연화못 조끄디 강 영 앉으난, 밤이 이젠 물에 빠진 죽은 아이덜 두 개가 머리광 물에 호야호야 행 나와. 나와 나오난게 그것들이 나오난 영 물에 겁난. 그때 또 겁나. 그 다슴어멍도 계난 조금 지낭 옥황에서 관이 내려와. 어멍 관. 어멍 죽은 관 잇네게.

〈조사자: 친어멍?〉

친어멍 관이 내령 탁 허게 소리나완 나오난, 구신 나오고 또 치녀 구신 두 개 나오고 허난 것들 그때 죽엇텐 헤라. 안뉘언. 재산 못 헛주게.

25. 콩쥐 팥쥐

*제보자: 송금양 (여, 85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아기가 다섯 살 때 엄마가 죽고 새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온

다. 아홉 살쯤 되니 새엄마는 자기 딸만 잘해주고 다슴딸은 잔치집에 가면 서 옷도 안 해주고 조 열 말을 짓게 하고 독에 물을 기러오라고 한다. 그런데 옷은 겹게 더러워져 있고 조는 기름과 물에 붙려 있고, 독은 구멍이 나서 물이 새었다. 하지만 새가 와서 좁쌀을 다 쪼아서 쌀이 나오게 되고, 깨진 독은 죽은 엄마의 도움으로 송진을 얻어 구멍을 막고, 죽은 엄마가 갖다 준 새 옷을 입고 잔치에 간다. 꺾이는 팔을 먹여서 더 말라 죽어가고 콩쥐는 콩을 먹여 더 번들번들해서 나라각시로 가게 되서 잘 살게 된다.

아기 다섯 살 때, 어머님이 죽어부난 아기 다섯 살 뇌똥 아이털 어멍 막 죽어부난. 어머님이 다슴어머님이 딸 흥나 이신겨 돌아오난, 돌아오고 이제 대 여섯난 잔치집아이 놀암시난에 심영 그디 오난. 이제 저 다슴어머님이 오랑 살 아가당 보난, 가가 아홉 살 쫘 낫주게. 아홉 살쫘 나난 이젠 다슴어머님이 지네 아긴 옷도 해여주고, 다슴 딸은 옷도 안 해줘. 거적 옷도 안해주난, 잔치집이 잔치 먹으레 가멍 그 딸 ㄱ라 "저 저 조 열 말 연날엔 조 열 말 몰렸져 조, 좁쌀 조 열 말 지영으네 몰리고, 검은 독 내어낭 물 질어 놓고 다 ㄱ득여." 허연.

〈조사자: 검은 독에?〉

경혜똥 올레에 나가당 들어완에 치메이시메 그 치메 입영오렌헨. 치멘 보난, 아기똥 막 불라정 이신겨.

〈조사자: 어딴는 치마?〉

그 저 뒤에 질에 벗어난겨. 뭇똥에 진겨 씻어난겨. 영 올으레 뇌 똥단 그겨 들여놔단 그겨 입영 오렌. 이젠 조 열 말 나똥 드러 짓당 보난 조에 몰허고 지름허고 뷔부난 조에 벗어지느냐. 짓어 저지나. 조에 지름이영 물이 영 섞어부난.

〈조사자: 아, 조에.〉

게난 막 저서도 짓지 못허고 짓다짓다 버천 물먹으레 와부난, 새털이영 또또또또 그걸 막 정 속어가정. 어멍 저 올레 나가멍 "조 열 말 잘 몰려 그냉 몰령 나 좁쌀 조 다 세똥 가난 흥 말 못 맨들어보라. 너 나손에 죽을

거.” 거난 죽을 거 아니? 이젠 새가 오랑 또또또또 조사불언. “하이구 요 새 야 어멍 아방 다 죽엉 다슴어멍은 혼말 못멘들민 날 죽이켄 헤라. 허이구 이제 조 다 세뵤 강 어뵤헝 좋을거니” 보난 체가 복삭 난 쏘이 나온거 아니.

〈조사자: 쏘이 나와.〉

조가 도도독 새가 오랑 좁쌀을 지름이랑 물이랑 뇌부난 안불려지난, 새가 오랑 조잔 툃툃 조수난 쏘이 나온거라. 새가 복삭 오랑, 이제 또 이젠 마루에 널단 이젠 젓엇젠 마루에 널어뵤 오춤누러가난, 새가 문딱 들러부런. “아이고 어뵤헝 좋고 이젠 다슴어멍 날 죽일로구나게. 이거 혼말 안 뵤부난” 겐디 “나 똥 누른 침 뵤앙 받으라. 나 똥 침 뵤앙 받으라.” 침 뵤앙 받으난, 쏘만 혼 그랭이 나완. 그 조 열 말 정 문딱 쏘 혼 그랭이나완.

〈조사자: 새가?〉

새가 먹언. 똥 그 알트레 침 뵤앙 손 받으난 쏘만 혼 그랭이 나완.

〈조사자: 거 먹어신디.〉

쏘로 나완. 그 뭐시냐 계난 이제 검은 독에 물을 담으난 거 물이 그냥 죽 세어 불언. 검은 독에 윈 구멍이. 이제 가만히 오랑 물통 가정 “굽영보라 굽영보라” 막 허난 툃 보난 가마귀.

〈조사자: 가마귀?〉

가마귀. 검은 독에 굽영 보려희난 독이 터전 말이여. 독이 다슴어멍이 문딱 터좌불언.

〈조사자: 경헝 채워노렌.〉

독 터져부난 물가에 강 보난 송진 잇어. 그 강물이 어뵤헝 날라와산디, 어 그 죽은 어멍이 도운거주게. 이젠 독드레 간 툃툃 부치난.

〈조사자: 송진?〉

송진 소낭에 나오는거 잇주게. 비작비작한거. 거 부치난 이젠 금더레강 툃툃 부치난, 물 얼마 안 질영 허난 문딱 7득. 아 이제 무신 걸 입영가리 헤가난, 뒤에 백마에 안장에 나와. 백마 몰에 안장에 나온 거 보난, 명지 저 고리에 명지 바지에 명지 치마에 가막창신이 잇어라.

〈조사자: 그 위에?〉

그 몰위, 그 백마 몰 위에 경 이시난, 어멍이 죽은 어멍이 다 준겨. 계난 이젠 그것 다 입고 몰 타고 잔치에 갈 거 아니. 다슴어멍은 계난 다슴 딸은 콩쥐아니? 콩쥐란 말은 들어실겨여.

〈조사자: 콩쥐마씨?〉

콩쥐와 풀쥐와. 풀은 쥐다라는건, 풀 맥영 흐끔 잘 생기난 풀죽이난 더 몰랑 죽어가고, 콩쥐야는 콩솔로 맥이난 아이가 번들번들 더 고와. 그건 나라각시로 가서.

〈조사자: 나라각시로 간?〉

계난 그 저 그 명지 옷에 백마에 문딱 시난 그거 다 입고 가막신 신고 행 이젠 방상에 저 다슴어멍 입으니간에 이제 불 숲양으네 밥허곡. 올레에 들어가난 올레에 들어가난 몰 탄 양반 들어왓젠. 방상더레. 막 올레로 걸어가난, 다슴어멍 부에난 보난 다슴 딸이난 부에난.

〈조사자: 부에나주.〉

지네 딸은 풀솔만 맥이당보난 막 허물 끼작끼작 나고, 풀솔 맥이난 좋질 안허고, 그 딸은 하도 고완. 이젠 “잔치집이 어디로 갑니까” 허난 어떤 사람이 가막창신 벗어뵈 가렌. 가막창신 벗어뵈가난.

〈조사자: 가막?〉

가막창신. 바로 연날에 가막창신 저 까망한걸로 창신 멘들앙 들각들각 허게 징 박아 놓고 헤영 소리나민 들각들각.

〈조사자: 소리나는거.〉

응 그런겨. 계난 크제비 버선에 가막창신허난 그 가막창신 흐짝 벗영 놔두난, 그 남자가 이제 나라 댁에 그 각시 해당 살아서. 지네 딸만 풀아불젠 허난, 이 콩쥐야는 바늘을 원체 바늘을 잘허여. 바늘을 원체 잘 허난, 호박궤장에 저 불난디 잇나. 호박궤장에 불난디 쪽 심어놔 영 돌아메민 대롱 허주게. 불난디 대롱헌디 불싼거 노라진거 잇주게.

〈조사자: 아, 그거 가져다그네〉

호박궤장에 담이놔. 실로 줄라멩 영 걸어서 그걸로 옷 해시니. 옷을 멘들젠허난 저 불싸민 불싸시민 다슴어멍 바삭 붙영 허지 못허게 허주게. 지

네 딸만 허렌. 지네 딸 바느질 흠이랑마랑 콩쥐안 그것에 해봐도 바느질 경
잘해서.

〈조사자: 어디에 담아그네 헤신고?〉

호박ㄴ장에. 호박ㄴ장 베롱이 키지 안헤게. 노랑케 것들에 담아냥.

〈조사자: 아.〉

아홉개 심어노난 거 베롱이게. 가이 막 옷 잘헤난 가이 나라각시로 강
막 잘들 살앗져.

〈조사자: 쟁행 마씨?〉

다숨어명광 저 딸은 군텅이명 안뉘엔.

26. 북 좋은 감은정

*제보자: 송금양 (여, 85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부모가 딸 셋을 불러 모아 누구 덕이냐고 물으니 큰 딸과 셋
딸은 어머니, 아버지 덕이라고 하지만 말쑤 딸인 감은정은 누구 덕도 아니
라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는 감은정을 어릴 때 입던 옷과 함께 내쫓는다.
날이 금방 어두워져 큰 마통이와 셋 마통이를 만나지만 둘 다 기분 나쁘다
고 하고 말쑤 마통이는 천탕마구할망 집에 가라고 한다. 그 곳에 가서 다시
세 마통이를 만나고 마음씨 좋은 말쑤 마통이와 아주 잘 살게 된다. 그런데
부모님이 소경이 됐다는 말을 듣고 소경 잔치를 하여 부모를 만나고 옛날
이야기를 꺼내어 부모임을 확인한다.

큰 딸 은정 아기, 녹정 아긴 셋 딸. 감은정 아기 말쑤 딸. 계난 게 그 딸
불러다게 게 허난에 큰 딸과 셋 딸은 어멍 덕이우다 아버지 덕이우다 허곡.
말쑤 딸은 불러오난에 니는 어느 덕곤 허난. "난 아무 덕도 아니우덴. 나 뱃

도롱 아래 선 그릇이 덕이우다”

〈조사자: 예?〉

벧동 아래 선 그릇. 배꼽이 아니고 그 그릇. 이 그 그릇 잊주게.

〈조사자: 아, 그릇.〉

그 그릇으로 산단 말이여.

〈조사자: 그게 무슨 말인고?〉

그 이 원체 복이 태워난 사름이여게.

〈조사자: 원체 복이 태어난 사름.〉

감은정이가 원체 복 이신 사름이여.

〈조사자: 아 복이 이신 사름.〉

맛음도 좋고, 게난 큰 딸애기덜은 맛음도 좋지 안헐. 아시가는 거 성 강 보젠 허당 털어지믄 황주냉이 돼고, 털어지믄 굼벡이 돼고 사름이 안돼.

〈조사자: 또 경행 그러면은 셋째 딸은?〉

셋째 딸은 게 이젠 아무 거믄 덕분도 없던 허난, 어멍 아방이 이젠 내 딸 아니메 기어나렌.

〈조사자: 기어나렌.〉

나가렌. 어멍 덕도 아니고, 아방 덕도 아니우다, 하늘 덕도 아니민 난 나 벧똥드레⁵⁾ 선 그릇 헐 건 난 아무 덕도 아니우덴 허난, “너 어서 기어나라 너 기어나라” 허난, 이젠 나를 쓸 혼도레 싣고, 혼 살 짝에 입던 거, 두 살 짝에 입던 거, 세 살 짝에 입던 거 다 옷 좃엉 놓고 아정 나가렌. 이젠 강 보난 대부분 싣거전 혼 도레 혼 짐 영 진 옷 혼 짐 지고, 쓸 혼 도레 싣고 헐 나간. 이젠 가당가당 보난 조물거 아니. 조물어 가난 이제 큰 마통이 마판더레 강 “일루 영 가믄 어드레 가집니까? 날은 저물고 어멍 험니까?” 허난 “에이 기분 나쁘다. 이제 이만씩 와도 산디, 기분 나쁘게 마통이 만 딱 꺾어지고 마도 아니 나왓져.” 또 셋마통이 마판디 또 들으난 큰 마통이 말 현거라.

〈조사자: 뭐렌?〉

5) 배똥아래

“기분 나쁘다. 꿈에만 신겨와도 구진디 마통이만 딱딱 걸리고 기분 나쁘다.”

〈조사자: 마통이가 뭐?〉

감즈 님은거. 들에 가른 옛날에 먹을거 어시난 파당 먹엉 살앗지. 쓸어 시니까. 그것만 딱딱 꺾어지고 마도 아니 나왔져. 이젠 이 사름이 어디로 영행 가당보난. 따시 말젯마통이 마판디강 “일루 영 가른 어드레 가짐니까? 날은 어둡고 어떻 흡니까?” “네 일루 영 가당 보민 천탕마구할망 서.”

〈조사자: 마구할망?〉

늙은난 귀도 막고 다 막아진거 아니. 계난 “천탕마구할망이 이제 표선 리 촌막에 강 할망 시난 그디 강 저 집을 빌립서. 아니 빌리민 무똥이나 앉읍서.” 말젯마통이가. 말젯마통이가. 겐 말젯마통이 말 들엉 이제 가당보난 천탕마구할망신디 가네 “나 넘어가당 질 어두왕 들어왔우다. 집이나 흐끔 빌립서” 흐난 “아이구 우리 큰 마통이 셋마통이. 말젯마통이 마 팔레강 늙은 거 집이 들어왕 집 빌립젠 흐네. 못 빌리크라” 겐 “무똥이라도 빌립서.” “건 몰라” 무똥에 앉아이시난. 왈크랑 왈크랑 소리가 난. “할므니 저거 무신 소리우파?” “저거 우리 큰 마통이 마 팡 들어오는 거다.” 또 왈크랑 왈크랑 “할므니 저거 무신 소리파?” “저거 셋마통이 마 팡 들어오는 소리” 또 이시난 조롱조롱 소리가 곱게 난. “이건 무신 소리우파?” “우리 말젯마통이 마 팡 들어와서.” 이제 큰마통이만 숲아네 마 실으레 기냥 흙체 침에 숲안. 이제 이제 지넨 흐 존둥이 먹고이. 이 양 곳댕인 누런건 해당 손님도 주곡 어명도 주곡. 셋마통이도. 이제 말젯마통인 마 팡 숲은거 보난. 진 양곳댕이 먹고. 존둥이 문득것만 손님주고 어명주는 거라. 게서 므음이 조앙 잘 뉘는 거여. 계난. 이제 다 헤영 먹어난 그땐 “숫이나 빌립서. 나 밥행 먹쿠다.” 허난 숫은 보난. 뭐 흑체나 숲아난 숫이 숫이라 이게 뭐 흑천지지. 이제 뒷동산에 가네 이제 삼수세 끈어단에 쇠물 동물 쓰림직한 삼수세 헤다냥. 두 블시 블 아홉블 막 씻언. 경행 쓸 아정 씻언 밥 헤연. 밥 헤영 이제 큰마통이 헌테 들러가난. “아고 이거 무신 버랭이 밥이고 이거. 이거 무신거 헤양 허난 버랭이 버랭이. 어거 나 본디 없다. 저레 가라.” 셋마통이헌티 들러가도

그 추룩 굴아. 아이 먹켄. 말젯마통이헌티 들렁가난 “아이고 고맙습니다. 말앙 먹쿠다.” 성들 영 베풀 보난, 아즌디 양 아장 먹으멘. 먹음직이만 먹어. “경 맛 좋은거과?” “무사 아니 먹읍디까?” “거 굼벵이 밥 달망 우리 아니 먹업주게” “이젠 손 받읍서.” 손 받으난 그저 손으로 걸여당 폭허고 노난, “손 떠블라 떠블라” 셋 성 경허고, 이젠 말젯마통이 막 먹으난. 뒷날 볼그난 이젠 큰마통이 마판디 강 보난, 누세 똥 무랑이 누세똥.

〈조사자: 누세똥?〉

셋마통이 마판디 강 보난, 개똥이 무랑이. 누세 똥사. 말젯마통이 마판디 강 보난 이추룩 금 떼 곱은 가마니이서. 금, 금이 탁 나와.

〈조사자: 금이?〉

금. 금이만 풀른 집 땃겔저도 열두 구레 아니? 쟁 막 잘 살앗주게. 말젯똥이.

〈조사자: 말젯똥이 막 잘 살안예?〉

겐 착하난 모습도 좋고 뭐든 그저 잘 똥서. 게난 지금 이젠 잘 살아져 가난, 어멍 아방은 소경 똥젠 말을 들어져 가난 막 걱정스러울거 아니. 어멍 아방 소경 똥젠 행 걱정스러왕, 막 걱정헐. 이제 말젯마통이가 무신 걱정이넌 허난, “난 소경이나 소경잔치 두일레 열나홀만 허른 소원이 엇겔우다. 소원이 그거 밖에 엇우다.” 이제 게난 두일레 열나홀 나거든 이렇게 두일레 열나홀 잔치 허난, 소경 무사 경 하느니게 맨날 오는게 소경이라. 맨날 오는게 소경인디, 막 즈물어 가난 막 못 좃은 날은 경해도 어멍 아방이 목똥이 오돌통한 목똥이 짚엉 혼 길로 내어완. 게난 심브름 사름헌티 “저 올레로 온어른이랑 밥을 놓지말렌. 판데로는 밥을 이레강 밥 먹으렌 앓아도, 이레간 이레 앓아도 안 주고, 이레가도 안주고, “아이고 배고프다. 어멍 어멍 밥이라도 주믄 먹영 가불건디.” 밥을 윈 안주난, 안똥서 똥은 밥은 내 놓고 고만이싯땅 “저 올레 아즌 두 어른네 안트로 들어오십서” “아이고 이런 거지 불러당 어멍 흐젠 그래 허지마라. 나 우린 거지라 부난 그디 무서왕 들어가지 못헤게” 그만이 못 가켄. “우리 밥이나 주믄 불가지믄 어디 므을 에 강 닛당헐 들어가켄. 아이구 그러지 말렌 “경허난 말젯 똥이 이제 장금

뱅이 안트레 읍센헝 안져놓고, 장금뱅이 마당 강 안치른 “엔말이나 굴읍서.”
 “아이고, 우리 엔말 들은 것도 엇우게. 엔말 굴아본적 엇우게. 몰라.” 경하
 자. “엔말을 굴아봅서. 이추룩 산디도 무사 엔말 하나 못 굴읍네까.” “하이
 구, 그건 몰라, 몰라게.” 이젠 딸 이젠 시작헌거라.

〈조사자: 딸이.〉

연날 엔적이, 이제 연날 엔적이 이 아버님 선생인디, 비가 오꼭 허는 날
 에 심심허니까 큰 딸애길 불러다가 “너는 어느 덕에 사느냐” “예, 나는 아버
 님도 덕이요, 어머님도 덕이요, 하느님도 덕이우다.” 계난 셋딸애기도 불러
 당 “너는 어느 덕에 사느냐.” “나도 아버님도 덕이요 어머님도 덕이요 하느
 님도 덕이우다” 둘다 내 딸이렌. 말젯딸야기 물어방 “너는 어느 덕에 사는
 냐” “나는 아무덕도 아니우덴. 나는 벅똥드레션 그릇 것이 덕이주 아무 덕
 도 엇우덴” “아 계민 너랑 기어나렌. 덕 보든 나 덕본 것도 엇는 건 기어나
 렌.” 경허난 그리 내쳐부난 죽은거 나가부난 아니웁. 거라 복 존거 나가부
 난.

27. 세로 난 딸은 개도 아이 먹는다

*제보자: 박이랑 (여, 81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둘째 딸이 잘 살면 양쪽 자식이 못 살고 양쪽 자식이 잘 살면
 둘째 딸이 못 산다고 한다.

우리는 셋째딸은 안 가졌져. 거난 그 연날에 ‘세로 난 딸은 개도 아이
 먹는다’ 허난 경허해영 셋째딸은 (셋을 가리키며) 이제 이거영 세는 우리
 엔말이 셋딸 잘 돼민은 양 끝으로 잘못 산다 헤여.

〈조사자: 아. 무사 경헌고?〉

이제 양 끝으로 잘 살든 셋똥이 못 살고, 그 말이난, 세에서 몰린 똥도
저 그런 그런 밑으로 경 7는거.

근데 영 데게 영 우리가 이제 지나본디, 셋똥 잘 살고 셋 아덜 잘 살든
디 양 끝이 셋 아덜만 못 허여, 셋 아덜 우리가 영 헤가문디 그런 말.

28. 7형제 간 빼먹은 이야기

*제보자: 박이랑 (여, 81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7형제가 있었는데 다슴어멍이 와서 7형제의 간을 빼
먹으면 몇 백 살까지 산다고 듣고 7형제 간을 빼먹으려 했다. 제일 작은 아
들이 그 사실을 알고 7형제가 산을 올라가는데 산에서 산토시가 내려와 산
토시 간을 내어 다슴어멍에게 준다. 다슴어멍은 창고에서 간은 먹지 않고
피만 묻혀 흥내만 냈다. 이를 숨어서 본 7형제는 다슴어멍 머리를 잡고 던
져버리고 다슴어멍은 죽는다.

간 헤여오든, 먹영 살아나지켄 허난 그 참 그, 아덜 몇 성제가 나가당
잡아헤여 오켄. 헤여 오쿠덴헤네, 저 허난 산으로 산토시 영 아래 오난 이
제 그 켈 죽은 아덜이 켈 죽은 아덜이 행 그걸 헤당 허난, 그 저 무신거까
무신 무신거 써나졌던 그 하르방 허난, 저 간 저 누게 아덜 일곱 마리, 참
저 간 내어 먹으든 기가 살아그네 흥 대에 몇 백살까지 산덴 흥난, 경허난
이젠 그추룩 흥연, 흥나네 그 죽은 아덜이 걱정 말랜, 나가 허쿠덴 헤여네,
이제 산들이인들 일곱 성제가 올라가당보난 영 산토시 내려오난.

〈조사자: 아, 산토시.〉

어, 산토시, 산에서 도와쥬. 그 간을 내여당 안내민, 창고냥으로 푹 터
정 보나네, 입더레 피만 볼랑그네 그 자리에 묻어볼고, 묻어볼곡 헤연 여섯

깰 해여 오난 "아이고 이젠 허나만 더 먹어시믄 살아지켜." 이젠 허난

〈조사자: 아이구! 그 어명이?〉

어. 경허난 그젠 머리꿍 심영 내쳐도네 경행으네 무신 경행 허연. 무시
거 정했져 허연.

〈조사자: 경허믄 그저 막내 아덜이 꺾 낸건가?〉

막내 아들 알안, 그걸로 경허연.

〈조사자: 할므니, 참 이상허다. 겐디 거 자기 어명 아니라 무사?〉

아니, 아니게. 아니 경허난 침부터 몰라부난 그거라.

〈조사자: 자기 어명 아니고 게믄 누구라?〉

어명이 아니고게. 그것이, 그 어떻허나믄게 그 무신거 허레 갖다네 그
춤 그게 아방이 그디 그 여자에 빠전. 일분이민 그거 몬딱헨. 영 무신 무신
할망 무신거 무신거 달므난, 어디강 점해여 오랜 허난, 이녁이 어드레 간
저 시렁이 썸 앓앗다네 점허레 가믄, 경 아덜 일곱 성제 해당 먹이민 살리
켄 허연 헛주게.

〈조사자: 게믄 그 어명은 죽어신가?〉

경혜영 보나네 저 통시에 그 영 영 연날 영 우리 영 (문 밖의 화장실을
가리키며) 양 발을 디더그네 허는디, 연날부터난 니네 요새엔 저 그런거 모
를거여. 이제 그 도새기 푼먹는 도구리 파네 골로 도구리 춤 도구리. 이 골
박세기엔헨 도구리 그거 역사가 나오라. 연날에.

29. 왕으로 환생한 셋째 아덜

*제보자: 박이랑 (여, 81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삼형제 중 셋째 아들이 장가를 못 가서 돈을 번 것으
로 절을 지어 공덕을 하며 착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렇게 착하게 살아도 봉

사가 되고 전신마비가 되어 의자에 고스란히 앉은 채로 죽게 되고 유언대로 바닷물에 흩어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왕비가 임신을 해서 왕자를 낳는데 떨어지진 않고 울기만 해서 신하들이 살조라 하여 처치하려 했다. 그때 목탁소리가 나고 아기는 울음을 그친다. 그 목탁소리를 조사해보니 바다로 나고 소리를 따라 인도네시아 산중으로 가보니 절에 부전스님이 하는 말이 셋째 아들이 왕자로 환생했구나 했다.

연날에 연날에 삼형젠디 에 셋째 아덜이 좀 장게도 못 가곡 스십대 나도록.

〈조사자: 즈근 아덜 아니믄 셋 아덜?〉

셋 아덜이. 셋째 아덜게 허는다. 응 건디 이제 장게도 못 가곡 이제 춤 스십껏 돼도록 장남질. 연날은 다 장남질이주게. 돈 어신 사름이 장남이구 쌍놈이주. 저 이제들은 그축해서 연날은 돈 어신 사름이 죽게 돼서. 이젠 살기가 좋을 때난 쌍놈. 양반이 어서도 쌍놈 양반이 어서도. 계난 이제 돈은 막 벌어놓고 홀 일이 없거든. 돈은 막 벌어놓고 장게도 못 가고 홀 일이 없으니까, 이 이제라그네 절이나 짓어그네 이제 공덕이나 허젠. 이젠 절을 짓엇거든. 절을 짓어네 이제 그 불선 안 허젠 허는 사름 고랑 불선 허렌 오랜도 안 허곡. 말젯술 아정 아니 오는 사름 고랑 말젯술 아정 오랜도 아니 허곡. 그렇게 그 봉사를 해도 경 존일을 허여도 어느날 어느 때엔 돼니깐 이 눈이 봉사가 돼드라야. 경 존일을 해도. 또 어전달드렌 전신마비가 돼드라야. 아 이제 경 존일을 경 존일을 해도 이제 전신마비가 돼난, 이제 그 의자에 앉앙 쯤 허는 말이, “나는 아무 날 아무시 돼민 나는 간다.” 부전스님 그라 이녁 밑에 스님 그라게. 허난 그 날은 돌아오난 의자에 아장 오스란히 가부런. 오스란히 오스란히가. 오스란히 가부던 나도 입 꺾엉 딱 훈마디를 허는다 서로 떨어져시믄 모를 꺼라. 에 저 오스란히 가부난 그 날랑 죽거든 에 그 법으로 “이거라 날랑 죽거든에 이제 술앙 바당물더레 흩어도라” 그 유언을 헷다여. 그 연날 그 스님 술앙 바당더레 흩어도라. 계난 연날 그 법으로 이리헨. 이제 바당물더레 흩엇도라 허나네. “허구허망 허구나.” 허여

네 이젠 전에 술양 바당물더레 흘엇다허여. 우리나라에 왕인 모양이라. 우리나라에 왕이 왕비가 임신을 했는다. 우리나라에 왕인 모양이라. 왕비가 임신을 했는다. 이젠 왕자를 낳어. 왕자를 난디 이 바닥에 떨어지지, 떨어 지질 말잔 막 운만 허저든.

〈조사자: 아기가?〉

아기가. 아기가 막 운만 하난 신하들 고라 이런 살조가 어디신엔. 저 이런 살조가 어디신엔.

〈조사자: 살조가 어디신이?〉

어, 이런 살조게. 이런 살조가 어디신에. 처치혜 불렌 해서.

〈조사자: 처치혜 불렌?〉

어, 처치혜 불렌 헨 말 하나를 딱 떨어지니깐, 그 말 하나를 딱 떨어지 니깐, 아 목탁소리가 난단 말이여.

〈조사자: 아.〉

그 말소리가 하나 딱 떨어지니까 목탁소리가 난단 말이여. 이제랑 이 목탁소리. 울음소리는 끊고.

〈조사자: 아.〉

울음소리 끊고, 목탁소리가 난단 말이여. “이 이 목탁소리를 조사 헤영 올리라” 신하들 고라 허나네. 이젠 바다로 난덴 말이여. 바다로 나니까 이젠 배를 탕 바다로 그 목탁소리만 들으멍 간 것이 인도네시를 갔다여 인도 네시. 이젠 인도네시아에 강 이젠 느껴네. 그 목탁소리만 들으멍 가는 것이 산중으로 강 보난, 자그만헌 절에다가 자그만헌 절에다가 이젠 부전스님을 앓아네 경험시난 우리 어멍 아방이.

〈조사자: 부전?〉

부전 부전 부전. 이녀 부하의 스님 7라 부전이렌 혀. 부전 부전. 부전 스님 헨티 허는 말이 헨 이제 우리 이제 어느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행 이렇게 이 목탁소리를 들으멍 오랏는디 허난 “아, 아차 이제야 나타났구 나. 다음에는 왕자로 환생했어.” 했어.

〈조사자: 음.〉

이제 남을 피해안주고 살면은, 여저도 내후에 그 사름이 죽엇당 살아나는게 아니고 그 그사, 아무 사름신디로라도 강 왕비로라도 태어날 수, 왕비로도 태어날 수가 있고, 이제 원체 거세기 한 사름은 이제 우리가 이제 허민 남자는 이제 왕자로도 태어날 수 있고, 계난 그 왕자로 환생했다 허여.

30. 흑숫물 귀신

*제보자: 임춘월 (여 75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흑숫물은 먹는 물인데 옛날 사람들이 손으로 파서 만들었다. 그런데 깊이 파다 보니까 땅 속에서 '장 확 더끄라 흑비 왓져'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무서워 했는데 새벽에 물 길러 가 보니 귀신이 돌담 위에 앉아 있어서 사람인줄 알고 잡으려고 하니 물에 풍당 들어가 버렸다.

거는 저 흑숫물이라고 먹는 물인데, 그 물이 한 이십미터 이상 돼. 근디 사름이 손으로 파서이 그걸이 우리 아주 연날 조상들이 팻는다, 워낙 지프당 보니까 밑에는 막 좁아. 이게 위는 막 너른디, 위는 넓이가 굉장히 너른디, 밑에는 막 좁아 이게. 아주 구데기 그 까놓으면 밑에 돌글락하잖아. 꼭 그거 모양으로 밑에는 이게 막 좁아. 게 막 지프게 파당 보니까 또 들은 말인데 것이 허원인지 진실인지 몰라. 근디 땅 속에 사름 산다는 말은 지금도 없잖아. 암만 과학이 발달돼도 그래도 그 연날 노인들 말이 "야 장왕더끄라 흑비 왓져" 땅 속에서 그런 얘기가 들렸다는 거라. 너무 깊이 파다보니까.

〈조사자: 그럼 그 소리 들어그네 사름들 막 놀래시큰게.〉

놀랐는지 어졌는지 느그 조상덜 우리 나기전이 멧 백년 전이 얘기니까 건 모르지. 근디,

〈조사자: 경행 어떻 헛덴 마씨?〉

그래가지고 막 물도 깊이 파니까 그 얘기를 헛다 그런 전설은 들었어.

〈조사자: 경행 땅 깊이 판 건 어떻 해불언?〉

깊이 파서 물이 고이니까 그 물을 먹고 살았지. 청수 사름들이.

〈조사자: 그믄 그 소리 들어신디?〉

그러니까 무서와. 그 다음부턴 그 물에 뭐 이렇게 머리 허병치고 여자 귀신이 낫다 뭐헛다 아침 새벽에. 연날은 이제 밧에 갈라면은, 새벽이 혼 지금 곱으면은 네시 쯤에 물 길레 가보니까. 그 돌담 우에 앉았더라는 거라. 게 사름인줄 알고 이렇게 잡을라고 그러니까 물에 풍당 들어가 부러다 는거라.

〈조사자: 그 사름 귀신 본 사름 귀신 봤다는 얘기네.〉

봤지. 얘기만 들어서. 난 직접 보도 안허고.

〈조사자: 게 그 다음에 그 사름 귀신 보고 헤시난.〉

아 그 본 사름이? 흑숫물?

〈조사자: 영 잡젠 허난 풍당 들어가부런?〉

계난 막 그 새벽에 물 길레 가젠 허믄 무서와. 우리도 막 물질레 멩겠는 데 그 물을 먹고 살라니까. 그러니까 물을 고인 물을 먹었지. 청수라는 데 는 물이 그렇게 귀헛어. 계난 그 물 이름이 흑숫물.

〈조사자: 흑숫물.〉

흑숫물인데 그게 그 지형이 진흙이기 때문에 말갈진 안헤도 물이 맛이 좋아. 진흙에 고인 물이라서.

31. 비단장수

*제보자: 김해인 (여, 91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비단장수가 장터를 돌아다니며 비단을 팔았다. 하루는 날이 어두워 방을 빌리고 잠을 청하면서 주인 여자에게 첫닭이 울면 나를 깨워 조반을 주라고 한다. 이를 들은 마음이 나쁜 주인 남자는 피를 내서 첫닭이 울기도 전에 닭 울음소리를 내고 장닭이 바닥을 치는 소리를 낸다. 비단 장수는 첫닭 소리로 알아듣고는 여자에게 조반을 빨리 해달라고 한다. 하지만 주인 남자가 비단장수를 빨리 내보내서 따라가 죽이고 비단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아는 주인여자는 천천히 조반을 준비하면서 첫닭소리가 아니라는 노래를 부른다. 이를 이상히 여긴 비단장수는 조반을 먹고 날이 밝아야 다른 마을로 간다. 며칠 후에 아무래도 이상히 여긴 비단장수는 다시 그 마을을 가서 주인 여자를 찾지만 주인 여자는 이미 주인 남자에 의해 죽었다고 듣는다.

칠초명천이라한 것이 뭐냐? 거 비단장수게. 비단 한 짐을 잔뜩지고, 연날에는 걸머지고 장터를 돌아뎡겼거든. 요즘골이 차가 엇어서 연날에는 차가 엇으니까 돌아뎡겼거든. 백 리고 십 리고 걸어뎡겼지. 걸어뎡겼는데, 흐룻날은 질러짐이 이 추룩. 아까 모양 추룩 질러짐이 잇는데, 그 비단 장수가 한 짐 잔뜩 지고 이 마을, 마을 안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돌아 뎡기다가 보니까 날이 어두왔거든. 날이 어두우니까 이제 그 질러짐이 들어가서 방을 좀 빌리락 허니까 여자는 안 빌려 줄라고. 남편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남편이 남을 헤칠 마음만 허는 영감하고 7치 살았거든. 여자는 마음씨가 좋고 경허니 집을 안 빌려주젠 헛지. 비단장사 훈티 안 빌려주려고 허니까, 허니까 그 남자가 방을 빌리겠다고. 나허고 7치 누라고. 그 남자보고. 경헝 여자가 할 수 없이 그냥 집을 빌려줬거든. 빌리니 밤에는 거길 자게 뎡 거 아니여. 저녁 거기서 먹고. 이 먹을 저 먹을 다 돌아뎡기곡. 동네방네 다 뎡기다가 날이 저무니까, 이제 그 밤을 자야만 뎡날 뎡 부락을 지나가게 뎡 거 아니여. 그래서 그 방을 빌리라고 허니 여자는 안 빌릴려고 허는디 그 남자가 빌리겠다고 해서 밤이 자다가, 촛둑 울건 촛둑 울건 나를. 연날은 시계가 없으니까 둑우는 걸로 가늠을 해서. 스뎡 요즘에도 시간 보면은 저

뚝소리가 세시 반쯤에 촛동이 울어. 장닭이 껍뻍 우는디, “울거드네 나를 일렁 조반해영 일러줍서” 여자보고 이런 얘길 했는디. 촛동 울기 전에 그 남자가 뚝소리를 잘히는 남자가 그 주인 남자가 뚝소리를 잘해서.

〈조사자: 응.〉

그 연날은 7랑차기라 현 그대로 조은 차룻이 잇었어. 이 아가씨는 모르지.

〈조사자: 아라져마씨. 차룻.〉

차룻. 연날은 요즘 7치 비뉴류도 안 나고, 모든 어신때난, 데그릇으로 했거든. 제사 때고 뭐 큰 일 때고 그랬는데, 그 차룻착을 둥이 장동이 울젠 허민 널게 파다다 7다닥 쳐. 둥이 장동이 꼬고곡 해영 울젠 허민, 날개 다다닥 다다닥 치는데 그 남자가 주인 남자가, 차룻착 차룻착이라 말허지. 차룻착을 둥 널게 치는거 7치 다다닥 다다닥 치면서 뚝소리를 했거든. 허니까 그 비단 장수 손님은 뚝소리로 알아듣고서는 “아주머니 촛동 울엄심니다. 조반해여 주십서” 허니까 여자가 남자 성격, 자기 남편이 그런 남자니까, 둥이 아니 울고, 뚝소리가 아니니까 조반을 빨리 아니했거든. 밥을 빨리 아녀고 더 이따가 시간 지나서야 날이 세여서 붉아가건 조반을 허고, 손님을 멕여오네 보낼려고 여자는 먹음을 정했는디, 그 남자가 자꾸 뚝소리를 헤여, 켜디 남자가 여자를 막 미워허거든. 어째 저년이 밥을 헤사 빨리 멕여사 남자 내어 보내면은 어디가서 조름에 따라가서 죽여두고 그 저 비단을 뺏아올려는 먹음을 먹었는디.

〈조사자: 그 남편은?〉

손님을 늦게 보낼라고 부엌에 강 안자가지고 쪼끔이라도, 남편은 게 현디.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이 그런 그 나쁜 남편인줄 알고 빨리 밥을 아니했거든. 빨리 밥을 아녀고 옛날에 돌 7레 잇어지. 지금도 텔레비전에 나오지? 거 부엌에 강 앉아서 조금이라도 밥을 늦게 시간 늦춰서 허여서 손님을 내어 보낼라고. 그 부엌에 강 앉아서 7레를 아자서 7래 굴멍 “칠초명 천 굴룻포장 서야 뚝은 아니 둥이더라” 이 노래를 불렀거든. 뚝은 아니라고. 뚝 소리해도 뚝 소리가 아니라고. 이제 그거 그것이 연날에 다소 역사

에 나온 노래야. 칠초명천 골룽포장서야 놀랄 부르니까 그 비단 장수는 '이상하다 그 노래가 묘한 노래다' 헤여서 비단 장수는 딱 그 소릴 듣고, 남편은 '저년 죽여붙어야지 저년' 이제 속곶으로 경 헛거든. 빨리 조반 행 내여 보내민 조름에 딸라강 죽여땡 그 비단을 뺏아올려고 했는데 헤엇는데, 여자가 그 비단 장수를 살릴라고 날이 붉아서 조반을 헤영 맥영 내여 보냈거든. 조반을 붉아서 조반을 행 내여 보내니, 조름에 딸아강 죽일 수가 엇고, 빼앗을 수가 엇거든. 그러니까 그 비단 장수가 수상허다 헤영 이제 그 여자에 고마운 마음은 많이 허고, '저 이상허다' 허연 이제 비단지고 조반 얻어 먹고 뜬다로 뜬 부락으로 지나갓거든. 뜬 부락으로 지나가서 메칠 후에는 메칠 후에는 그 믰음에 또 들어가가지고 '그 집이 소식을 들어야지. 그때 수상허니까' 그래서 그 믰음에 비단 장수가 딱지고 풀레 그 집을 들어가가지고 그 동네 그 믰을 가차운 동네칩이 들어가가지고, "아무게 아무게 헌 집 어떻게 편하게 지냅니까" 물엇거든. 물으니까 "아이구 멧달 전이 멧칠 전이 그 여자 죽엇영." 동넛사람이 그랫거든. 그 여자 죽어버렸어. 그 비단 장수를 헤여 보내서 비단을 혼짐 빼어 오랑 풀아시민 잘 돈을 벌겐디. 여자가 그렇게 안행 늦게 조반을 늦게 헨. 붉안 내여 보내니까 못 빼어오랏거든. 제난 여자를 죽어버렸던 모양이라. 아모레도 그런 일이 잇어 죽여버리니까, 이젠 그 비단 장사가 그 믰을 들어가서 그 집이 소식을 들으라고. 멧개월 후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동네칩이 들어가가지고 "아무게 아무게 집이 편하게 지냅니까" 이렇게 얘길 물으니까 "아이고 그 집이 멧 개월전이 멧칠날 쯤에 여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때 비단장수가 '아이구 내 뺨에 그 여자는 죽어버렸구나' 그 역사가 '칠초명천 곤룽포장 서야 둠은 아니 둠이더라'는 노래가 이서. 나오고 그랫지.

32. 각시 얻으러가다 본 귀신

*제보자: 김선 (여, 74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구엄리로 각시를 얻으러 가는데 셋길에 하얗게 두건을 써서 허울허울 돌아다니는 여자를 보고 미쳐서 같이 따라가다가 동네에 거의 들어가서 넘어져서 그것이 헛깨임을 알고 앓다가 죽었다.

연날에 각시 얻으레 가명 우리 죽은 아버지가. 저 이디서면은 구엄. 구엄리 각시 얻으레. 으 셋길로 곳발질로. 연날에 질 아이 빼서. 곳밭뒤 질 아이 뻔디. 질 가난 각시 얻으레 가단 보난. 이제 그 수건과 달광 헤영게 두건 썬 허울허울 막 돌안 막 돌아가난. 예펜에 미칭 ㄱ치 가젠. 그 예펜에 미칭 ㄱ치 가젠 막 따리난 동네 거저 들어가난. 자왈르레 쿵 허멍 탁 기어드난. '아구 이젠 구신이로구나. 이거 헛깨로구나.' 허연 겁이 난거라. 그 하르방이 우리 죽은 아버지가 그런 말을 들어놨주. 그런말은.

〈조사자: 그 하르방 경허문 아파시큰게? 헛깨 봐브난.〉

경행 돌아가부릿주.

33. 메뉴리는 춤추고 할머니는 울고

*제보자: 강정자 (여, 63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일을 해서 시어머니께 밥을 챙겨드리는 며느리가 있었다. 어떤 행인 지나가다가 보니 할망은 울고 며느리는 춤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 이유를 물으니 며느리가 원래 머리가 아주 길었는데 그 머리를 잘라서 판돈으로 시어머니 밥상을 차려 드렸으니 시어머니는 울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우니까 기쁘게 해 드리려고 춤을 춘다고 했다. 관가에서는 이를 알고 며느리한테 효자상을 내렸다.

어명이 막 저기 어명이, 어명은 가만히 앉았 살곡. 연날에는 메누리가 막 메누리가 막 저기 배고프민 어디 강으네 막 일헤당으네 그 시어머니헌 티 밥 행 덩기고 그추룩 허멍헌디. 어떤 행인이 지나가당 보난.

〈조사자: 행인이?〉

어. 어떤 할망이 거기서 이제 그 메누리는 막 춤추고, 이제 그 할망은 울고 그렇게 험서렌. 게 이상하잖아이. 메누리는 춤을 추는데, 할망은 울어. 이거 이유가 뭐고 허면, 겐 그 이유를 이제 물어봤더니만은, 메누리가 뭘 써서 춤을 춰더렌. 뭇을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허느냐?” 이제 “할망은 울고, 메누리는 춤추는 이유가 뭐냐.”고 허연 물으니까, 자기가 그 머리, 연날엔 그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저기 헛다가, 연날엔 머리를 팔았어. 끈으멍 팔았는데, 그 할망은 메누리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쓸을 사가지고 시어머니헌티 밥상을 차려드렸는가봐. 경행 밥상을 차려드리니까 그 시어머니는 하도 기가 맥혀가지고 우는디, 이제 메누리는 이제 시어머니 우는 걸 봐가지고 기쁘게 할라고 춤을 찾아.

〈조사자: 아이고 착허다예.〉

효년 효녀지 그게 그렇게 해서 그 지나가는 행인이 그런 어떤 관가에 말했어. 그런 그 메누리헌티 효자인 상을 내려줬다는 그런 말이 있어.

34. 뱃 속에 오래 살당 나온 아기 장수

*제보자: 김정자 (여, 63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뱃 속에서 아기가 오래 베어서 기한이 넘어도 나오지 않았다. 기한을 다 채우고 나왔으면 천하의 왕이 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아기를 빨리 꺼내버려서 그러지 못했다. 아기는 날개를 달고 나왔는데 날개를 숨기고 자기가 큰 후에 천하의 센 사람이 되려 했으나 사람

들이 옷을 벗겨 날개를 잘라버려 영웅이 되지 못했다.

〈조사자: 아긴디, 힘도 막 켜고, 아긴디 예 태어날 막 어린 아이라, 어린 아인디 힘도 켜고 막 빠르고 경헛던 현 애긴 어서 마씨?〉

그 저 애기가 오래 베엇던 모양이라.

〈조사자: 아, 배에 오래 베연.〉

응. 배 속에서 오래 오래 베영 아기가 나지를 못헤가지고, 현 이게 어떻게 베여신지 아무튼 그 기한을 지난 막 오래 안 나와가니까 배를 켜연사 나신지 어떻게 행 나신디,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고 날개 달아가지고.

〈조사자: 어디에?〉

천하의 그 왕 천하의 왕이 아니고 천하의 그 세상에서 젤 썬 사름으로 태어날 뻔인디.

〈조사자: 뻔인디?〉

어 뻔인디, 그 자기 그 배속에서 빨리 그냥 나와 부렀다는 거야.

〈조사자: 아 경헛은, 애 태어날 뻔헤신디 너무 빨리 나와부런.〉

응. 조금 현 메칠, 메칠 빨리 나와 부니까 이제 그 천하의 영웅이 못 뻔다는 거야.

〈조사자: 근데 무사 경 빨리 나와부러신고?〉

아니, 아기가 한, 두해 베가문 어떡해? 그 사람 배가, 사람은 궁금할거 아니?

〈조사자: 기주마씨.〉

그니까, 그 아기를 어떻게 그 뭐 해산을 시켜야 허지 이거 안뻔로구나.

〈조사자: 밖에선 아이를 나오게 막 헤부렀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주게, 아기가 아니고, '나는 배 속에서 이제 그 차릴 자기 차릴 거를 다 차려가지고이, 나는 이제 배 속에서 이제 메칠 간 이제 준비를 해서 세상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빨리 아기를 빨리 꺼네부러야 헛다고 헤연 빨리 꺼내니까,

그 '메칠만 더 잇었으면 난 천하의 왕이 됐는데 나는 그것이 좀 아쉽다' 그런 말이 이서.

〈조사자: 아기가 경 말헨마씨?〉

그렇지. 아기가 게 경 곤거 아니.

〈조사자: 요강으네.〉

그렇지.

〈조사자: 쟁 훌륭한 사람은 못 됐신가?〉

그니까 날개 달곡 훌륭한 사람은 됐는데, 천하의 왕은 천하의 그 쟈 사람은 못됐지.

〈조사자: 날개 돌아난 마씨?〉

날개 달앗덴 말 이서.

〈조사자: 날개 달아시난 엄마 아빠가 놀래지 안허여?〉

날개 돌으니까 그 엄마 아빠는 알았는지 말았는지 몰라도 그 옷을 생전 안 벗언.

〈조사자: 안 벗언 마씨?〉

어. 안 벗언.

〈조사자: 어떻 아방이 입으렌도 헤시컬?〉

옷을 영 안 벗으니까, 이젠 어떤 일이고 허연에 옷을 억지론가 베견. 베견 보니까 그 날개가 달앗덴 그런 말이 이서. 헤영 그 때 사람들이 알아 부러텐 말이 이서.

〈조사자: 아 날개 달린거 마씨?〉

어. 날개 달린 걸.

〈조사자: 신기하게 보지 안으카 마씨? 사람들이?〉

그니까 그 사람 그 아기가 그거를 숨겨가지고 자기가 클만이 커가지고 어떻 그 천하 쟈 사람으로 됐젠, 사람이 놀아 땡길 정도민 뭐 보통 사람이 라게? 거니까 그 기회를 기다린거지. 자기가 그 자기가 요그면은 이제 자기가 멧 살이 나면은 천하의 영웅이 됐젠 그런 거를 자기는 기다려가지고 숨기려고 했는데 그 옷 안 벗어가난 옷을 막 베졌덴. 베견 보니까 날개 달

아서.

〈조사자: 나중에 경행 그 사람은 뭐 훌륭한 사람됐고 마씨?
그 거기서게 날개 잘렁 영웅 댄덴 말은 어서.

35. 세 혼

*제보자: 강정자 (여, 63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전해오는 이야기에 사람에게는 세 가지 혼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무덤을 지키는 것, 마지막 하나는 상을 모시는 것이다.

〈조사자: 죽어신디 예, 죽으면 사람은 영 죽었는디 혼은 영 뜨지에? 맞아 마씨?〉

그렇게. 삼혼 삼혼이라고 하잖아.

〈조사자: 삼혼? 무사 삼혼 마씨?〉

삼혼, 제혼, 세혼 그렇지 세혼이라고 하지. 세혼은 왜 혼은 하나 들어가고 하나는 그.

〈조사자: 하나는 하나님 한테?〉

응. 하나는 이레 무덤을 지켜고, 하나는 이제.

〈조사자: 맞아. 하나님을 지켜고, 무덤을 지켜고 마지막 하나는?〉

그 아니, 그 하난 뭐 저기 그 상 놓잖아. 연날에 부모가 돌아가거나 조상이 돌아가난 허면은 그 상 모시잖아. 밥도 놓고이, 그 상 모신 그 상모시는데 혼이 하나 잇덴.

〈조사자: 집에 남양 잇구나.〉

36. 저승과 이승을 오가지 못하는 이유

- *제보자: 강정자 (여, 63세)
-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 아기 어명이 죽어서 저승을 갔다. 저승왕이 껌을 뺏고는 이 껌이 마르기 전에 이승에 가서 아기에게 젓을 먹이고 오라고 해서 어명은 이승에 가서 아기에게 젓을 먹이고 저승에 오지만 껌이 말라버려 다시는 이승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

옛날에 그 아기 어명이 죽었당 와그네 그 아기에게 젓을 맥엇덴. 저승 갔다왔다 헤넛덴. 옛날에는 저승 갔다왔다 헛는데, 그 이제 그 죽은디서, 그 갔다왔다 그 저승을 갔다왔다 헛는다, 그 저승왕이 얘기 젓을 맥영오라 행으네, 강 젓 맥여똥 오곡 헛. 그 껌을 바깥으네, 땅에 껌을 바깥, “껌 마르기 전에 이승 가서 너 아기 젓 맥영 오라” 헤엇는데 그 젓 맥여두고, 뭐 아기 빨래 해두곡 행 가가난 껌이 말라불엇덴. 껌이 말라부니까 이제 다시는 이승 가지 말라. 이승 가지 말라헛 못 오게 헤넛덴.

〈조사자: 게문 아기들은?〉

아기는 산 사름이 뭐 경을 하나 정을 하나 헤실테주.

〈조사자: 껌 툇 뺏은 껌이 마르기 전에?〉

맛주게

〈조사자: 그럼 그 아기 어명은 무사 죽언 마씨?〉

저난 뭐 아팠을 죽던가, 뭐 사름이 뭇 이유가 이성 죽으나, 허허 아팠 죽던가 병들었으네 뭇.

〈조사자: 사고 날 수도 잇고, 하하〉

이승 가지 말라.

〈조사자: 이승 가지 말렌 마씨?〉

응. 이승 가지 말라. 허허 뜨시는 경허니까 그 후로 이승 죽민 이승을 못 온덴.

<조사자: 쟁 그 후로 저승에서 왔다 갔다 못 해신가?>

응.

37. 산 쓰는 정씨

*제보자: 강정자 (여, 63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육지에서 산을 보는 정씨가 와서 산을 봐주니 소 2마리를 준다. 정씨는 소를 데리고 육지를 가지 못하고 2마리를 맡기고 간다. 다시 내려와서 소를 주라고 하니 더 쥐야 할 것인데 그대로 2마리만 주었다. 화가 난 정씨는 피를 내어 동네 사람에게 산을 봐 줄 때 지금 산보다 몇 발자국 더 아래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산을 쓴 사람은 다시 본래 자리에서 아래에 산을 다시 쓰니 집이 망해버렸다.

연날에 말 굴으크라.

<조사자: 예?>

어. 나도 연날에 시집가기 아주 멧해 전에 멧해 전인디. 그 육지에서 어떤 정씨가 와가지고.

<조사자: 정씨?>

어. 산 보는 정씨. 산 보는 정씨가 와가지고, 산을 이제 현 연날에 차도 엇고 허른 저기 막 돌아다니잖아이. 메칠석, 메칠석 걸어땡기멍.

<조사자: 차어시난.>

걸어다니멍. 그 이제 산을 보는데, 그 어디 가서 산, 산을 이제 한 멧돌 간 찾아네연. 산을 봤지. 산을 봤는데, 이제 그 거기 가서 이제 산을 쓰난

이젠 그 정씨는 고향이 육지니까 육지 가불었지. 육지 가가니까 그 산 그 돈도 아이주고 연날에는 그 쉼하고, 몰하고 많이 질렀지. 그 쉼을 많이 질르니까 송아지를 두 겐가 멧게, 하난가 두 겐가 쫓텐.

〈조사자: 육지 가는 사름헌티?〉

아니게. 주니까 그 정씨가 육지 가정 가지 안 혀고. 그 그디 따시 그 뺨작을 쫓텐. 이거 잘 키웁시렌. 잘 키웁시렌 허여네 쫓 놔두난. 이젠 혼 멧 주만에 완보난. 그 흐끔 혼 마리 더 쥐야 될 츠렌디. 더 주지를 안헨. 고대로 그냥 준거. 고대로 그냥 준 것만이 쥐 불었덴. 계난게 부에난 부에나네. 이제 어데 동네칩이 가나네 "발 이것이 혼발이지? 멧 발만 내려 물어 불었 더라몬 아주 좋은 산이 뉘 뻐 헛는다. 아마 처남 형 산이 뉘 건디. 나가 그냥 저 잘못 굴아졌다" 해서. 이 동네칩이 강 굴아부난 이제 동네칩이 그 말 들은 사름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쉼 질른 사름헌티. 그 산 임제헌티 다시 굴아불었지. 굴오난 이제 그 산 임제는 '아 이제 정씨가 그 동네칩이 강 굴아시나네 나가 이제 그 산을 뺨 이제 혼 멧 발 알으레 물어 불어시민 아주 천하 좋은 산이 될건디' 이제 경 헤야켄헨. 경 혀야켄헤연 그 산을 알으레 판 알으레 내려 물어부나네 그디 이제 망헤불언.

〈조사자: 망헤불언? 정씨가 거짓말 궤네연? 쟁헿 망헤불었덴 현 얘기 있어났구나. 아이고 쥐불어시민 뉘 번 헛신디.〉

38. 뱀과 싸운 장수

*제보자: 강정자 (여, 63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동네에 큰 뱀이 있어서 일 년에 한 번씩 처녀를 바쳤다. 다른 지역에서 온 센 사람이 뱀을 죽이려고 도끼로 뱀을 토막내어 보았다. 그러나 예사 뱀이 아니라서 다시 붙여 버렸다. 그래서 재를 몇 가마니

를 해다가 도끼로 뱀을 찍으면 재를 뿌려 해서 뱀이 다시 붙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토막 난 뱀 살 한 점이 하늘로 날아가 힘 센 사람의 집으로 가 불을 붙혀 버렸다.

그 배염. 그 배염.

〈조사자: 배염마씨?〉

응, 배염이 연날에 아 그게 큰 배염인데, 그 동네에서 그거 모션, 그걸 모셨는데, 그 연날에 막 연날 그 배염신디 그 처녀를 바쳐 낫젠.

〈조사자: 아〉

응, 처녀를 바쳐낫젠. 연날에 그 어떻 그 막 센 사름이, 그 배염을 그 처녀 일 년에 처녀 하나 썩 바쳐가니까 그게 뭐허지게, 그 겁날일 아니?

〈조사자: 무사 바침신고?〉

제난 그 노무 뱀이 막 그냥 그 막을의 그냥 불행헌 일들 생기게 하고 막 경험가니까 그 잘뉘게 잘 뉘게.

〈조사자: 뱀이 막 신통력이 이서난 뱀인거 님다 예.〉

그렇지 귀신이니까게 잘 모셔가니까 거난 그런 얘기가 이서 낫젠 허는다.

〈조사자: 센 사름이 어떻험덴 마씨?〉

센 사름은 그 배염을 없애부리야 뉘것다 헤연에 어디 탄데서 온 분이 렌. 탄데서 온 분이 그 배염을 막 그냥 저기 두치론가 그 나무 깨는거 잇잖 아이. 그런걸로.

〈조사자: 아 도끼.〉

그 나무 깨는 걸로 막 찍엉 없야부러험 하더라고. 그제 제가 나무찍는 걸로 막 그걸 막 그냥 나오렌 심강 허여근에 막 나오렌 허난, 나오렌 헤그네, 이젠 그 배염이 나오난 막 도끼로 멧 번 막막 찍으난, 야 그 배염이 그 거 신이니까 보통 배염이 아니니까 그 따시 붙어버리고 막 경험덴. 붙으고 붙으고 행으네 허니깐, 이제 그 재를 재를 멧 가마니 헤다가 재를 멧 가마니 헤다가 이 도끼로 찍으면은 탄 사름 훈테 그 찍은 자리에 재를 막 뿌리 렌 험젠.

〈조사자: 그 뭐 태운 재 마씨?〉

그렇지. 연날엔 게, 그 밥도 그 불에 뎀 헝으녕 불 삶앙 밥헤 먹고 경허
엿네. 그러니까 그 재를 갖당 거 살 사이에 붙이지 못허게.

〈조사자: 아 붙이지 못허게.〉

응. 경헝. 없애려고. 그레신디. 계난 재를 막 서너 가마니 가마니로 막
가져다 막 뿌려도 그게 어디 그 저기 살 혼 점이 하늘로 강 헝 어디 날아간.

〈조사자: 살 혼 점이?〉

응. 살 혼 점이 어디 하늘로 강 헝 막 날아강 하는디 그 사름 칩에 강
불 붙여 부러젠 말이서.

〈조사자: 심 센 사름 이 집?〉

맞주.

〈조사자: 그 살 혼 점이 마씨?〉

응. 그 이 보통 배염이 아니지. 경헝 말이 있어.

〈조사자: 할머니 그 배염 죽어신가?〉

응. 경헝 그 사 받치지 안헤부난.

〈조사자: 아 그 다음부터 사름 안받치고?〉

아니. 다니레 오랏다가 그 처녀가 아가를 벤. 그 배염헌테 갈 처녀가 막
울엄더렌. 아. 막 울고 경허니깐 그게 안타까왔던 모양이야. 안타까와가지
고 그 사름이 영 헤 붙어야지. 그게 이데로 나뒹다가는 여러 사름 목숨이
받쳐야 될 문제니깐. 쟁헝젠. 그런 말 잇우다.

39. 도깨비 인형

*제보자: 강정길 (남, 72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사람이 아프면 무당들이 도깨비 인형을 만들고 굿을 한다.

그래서 굿이 다 끝난 다음에 야외로 가서 도깨비 인형을 먹을 것들과 함께 놓아둔다. 밤에 그 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것을 보고 무서운 생각에 그냥 지나가면 사람이 아픈 집의 액을 맡아서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혼자서 도깨비 인형에게 씨름 내기를 해서 이기면 액도 맡아오지 않고 차린 음식들도 가지고 오게 된다.

도깨비랑 씨름하는 말은, 칩에서 사름이 아프든 무당을 빌어다가 굿을 허잖아. 굿을 허면은 도깨비를 멘들아. 무당덜이.

〈조사자: 아 예.〉

도깨비 형태를 허수아비 같이 멘들거든. 그 허수아비처럼 멘들어놔서 옷도 막, 딱 옷을 입혀.

〈조사자: 예.〉

허수아비에 옷을 사름 옷을 입혀놔서 굿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밤에 어디 야외로 어디 으석진 디로 가서 걸 강 놔둔단 말이여. 경허문 거기에 돈도 놔두고, 뭐 배 모양으로 멘들어 놔서 배집으로 배 형태로 멘들어 놔서, 그디 밥이고 고기고 돈이고 뭉 골은 것도 막 행, 먹을거 막 차려뒀 놔두거든. 놔두꼭 그 도깨비 모양으로 멘든 것도 막 논단 말이여. 딱 놔두면, 거 예, 밤에 좀 그 질에 지나가던 사름이 딱 보민, 그처럼 무섭단말이여. 그디 굿 불에 불꺼지 탁 켜 놔두거든. 불꺼지 탁 켜 놔두거든. 불꺼지 켜 놔두면 지나가다 보민, 불 턱 키고 도깨비 모양으로 허수아비 모양으로 딱 행 그거 그 뭐 행 놔두면 무서운 생각날 거 아니여? 그게 그디 지나 오민 그 아픈 칩에 귀신을 들이고 글로 강 모사 강 거 형태거든.

〈조사자: 아.〉

아픈 칩이 귀신을 글로 야일 모사 간 거여신디, 이 외의 사름은 다니다가 그거 다녔는데 그데로 들어 오민 그 사름이 그 액을 맡양온텐 허는 거지.

〈조사자: 그냥 지나오면?〉

음. 이거 지나가던 사름이 그걸 걸 봐서 그냥 지나오민 무서운 생각만 허다 떠돌민, 그 아픈 칩이 그 귀신을 나쁜 악귀를 내가 맡아온다는 거지.

경허니까 남자가 기심이 이신 사람은 “어 여보. 나하고 씨름이나 혼 번 해 보자.” 그러면은 이제 즈기 냥으로 곧고, 즈기 냥으로 대답하고 흐지. “그럽시다.” 했는다가. “나하고 강 씨름이나 허자. 혼 번 해보자.” “아 그럽시다.” 흐면은, 허허……. 치명 딱 내부처불문 “하하, 내가 이것소, 당신 젓지?” “아, 내가 젓소.” 이렇게 허거든.

〈조사자: 하하 혼자서?〉

어. 경허민 “내가 이것으니까 이거 내 적시 아니요?”

〈조사자: 응.〉

“진 사람 못 먹으니까 이거 내 이긴 사람 적시 아니요?” 헤영 영 돈도 갖고 먹을 것도 이제 먹고 경행 왔다고. 나는 헤보덜 안 헐. 그런 저런 안 헤 봤는데, 연날 사람이 그런 일도 이서났다는 거지.

〈조사자: 경허민 그 사람은 그 씨름 이것잖아예? 이것으믄 액 안가정오는거?〉

경허주게. 돈도 가정오고. 내가 이기민 이건 내 적시. 처음에 약속을 허 거든 “만약에 내가 지면은 이거 당신 적시고 내가 이기면 이거 내 적시니까 우리 씨름이나 혼 번 해보자.” 허면은 “아 그러자.” 허영 즈기 냥으로 곧고, 즈기 냥으로 대답하고 헤영 씨름 행 이기면 “내가 이기니까 이거 내 몫이 아니요? 이젠 내가 가져요.” 허영 허는거지.

〈조사자: 그러믄 그 사람 액 안 가정 온거네?〉

그렇게.

〈조사자: 만약에 무서워그네 금적헤그네 지나가불문 액 가져가고?〉

응. 그렇지. 그렇지.

40. 방구 잘 뛰는 부인

*제보자: 강정길 (남, 72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방구를 잘 꾸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제를 지낼 때도 방구를 꿰까봐 걱정이 된 남편은 부인에게 조심하라고 한다. 하지만 상을 지낼 때 남편이 계속 당부 해도 아내는 겹절에 겹절에 하면서 방구를 계속 꿰다.

연날 사름이 부모네랑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조사자: 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그 아덜레 부부가 사는데, 그 부인이 방구를 잘 꿰더라야.

〈조사자: 하하하〉

방구를 하도 잘 꾸니까, 그 상제질 할 때에, 연날 지금은 얼마 그런 게 었는데 곡을 허거든. 제 지낼 때에 여상제들은 절로 저 문 바끄디들로 가당 그 곡 허영 우는 곡 소리를 낸단 말이여. '아고아고' 허멍 막 강 울곡. 남상제덜은 안에서 그렇고 헌데, 그 곡 할 때에 판 집이 시집 간 촛 딸이영, 판 사름들이 보고 그 웃고 욱 하카부덴 부인보고 뭘 말을 허냐 허면은 "여보." "왜 불러요?" "그 곡도 아버지 제 지날 때에 허면은, 그 방구 좀 꿰지 말라고 말이야. 조심하라고"

〈조사자:(웃으면서) 예.〉

조심하라고 얘길 헛는데, 아 그 상제날 곡할 때는 "복복복복복" 또 그 방구를 꿰단 말이여. 방구를 꿰니까 남편은 그 "에고 에고" 허면서 무슨 말을 허냐 허면은 "당부 당부" 허멍 헛거든. 에고 소리가 아니고 부인이 자꾸 방구 꿰어가니까 "당부 당부" 헤 가니까 또 각시는 뭘 그 말을 허냐 허면은 "겹절에 겹절에 겹절에" 허허허. 웨나면 겹절에 방구가 그렇게 당부허는 걸 불구허고 나오더라. 나왔더라.

〈조사자: 아, 당부 당부하는 거.〉

어, 미리 방구 꿰지 말라고 남편이 당부를 헌걸 불구허고, 그 겹절에 그 곡을 허당 보니까 겹절에 방구를 꿰졌다 그러데, 겹절에, 남편은 "당부 당부" 헤신디.

〈조사자: 남편은 당부당부 허는다.〉

그 부인은 겁질에 겁질에. ㅎㅎㅎ.

〈조사자: 웃어시켜 다. 허허허〉

그렇지. 허허허

41. 월계 김좌수

*제보자: 강정길 (남, 72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옛날에 월계 김좌수라는 학식이 높고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백 년 된 해골 바가지를 쓰고는 사람으로 변한 여우가 남자로 가장해서 김좌수 앞에 나타나 언제 비가 오는지 안다고 했다. 김좌수는 여우를 보고 한 번에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며 쇠 회못을 던졌다. 그리하여 여우 앞에는 바다가 되어 여우의 앞을 막았고 여우는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연날 월계 김좌수란 현 사람은 이서 낫덴 말이 이서. 월계 김좌수렌 현 하르방이.

〈조사자: 예?〉

바로 천재지 천재.

〈조사자: 아, 천재.〉

그 사람이 그 저 여우가 백 년 된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쓰면은,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아강주를 죽 자기가 물면은 여자로도 변덕호고, 남자로도 변덕호덴 해 낫젠 현 말이 잇져. 겐데 그 월계 김좌수가 막 학식이 높은 양반이거든.

〈조사자: 예.〉

학식이 높은 양반인데, 아이덜 글을 가르치는데, 그 여우가 아주 남자

로 가장하영 멋지게 신사복 탁 츠리고완. 이거 우뚝에서 딱 들어와서, “선생님, 아이덜 놀래 뎡깁니다.” 허니깐 “누구냐?” 허니까, “건 뭐 그뎡 그 누구 그 말은 거 대답을 못허겠는데, 이 날씨가 이렇게 요새같이 이렇게 ㄱ물 앓는데 천재 하르방이니까 천지도 알 거 아니오?” 영 ㄱ란. 비도 언제뎡민 비가 온다, 언제 뎡민 한기 온다, 이런 것 알거니까 “날씨가 이렇게 한기한데 언제 뎡민 비가 었습니까?” 허니까 “그 어떻게 사름이 인간으로서 걸 알 수가 잇느냐? 당신은 알지만은 사름이 어떻게 알 수가 잇느냐? 음, 내가 뭐 천지 박사도 아닌데 그렇게 알 수가 잇느냐?” 허니까 “아 그런 천재 양반이 그것도 모르겠느냐?” 허니까 “너는 알겠느냐?” 허니까 “저는 알겠습니다.” 허니까 “너는 알겠으니까 너 사름이 아니구나.”

〈조사자: 아아.〉

“너 사름이 아니구나. 걸 알면은.” 그 월계 김좌수가 무슨 정으로 쇠 회 못을 그 놈 앞에 딱 때리니까 바다가 뎡더라야. 상상한 바다가 뎡더라야. “너네 가라고 넌 사름이 아니니까 가라”고 게, 그 월계 김좌수가 게른 실책이 천지 실책이 너는 사름이 아니, 너는 사름이 아닌걸 딱 그 하르방은 알 앓단 말이야.

〈조사자: 아.〉

음. “너는 사름이 아니다” 경 행 여우가 경 해골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아강주를 무니까 사름으로 편덕 행 딱 와서 그 질문을 딱 허니까, 너 벌써 그 하르방은 알고 ‘너 사름이 아니다’ 경 해서 이놈 가지 못허게 바다를 멘 들어부렀단 말이야. 바다를 멘들어 부니까 그 영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헛단 말이야.

〈조사자: 아.〉

42. 겨드랑이에 날개 단 아이

*제보자: 강정길 (남, 72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아기가 움직임이 너무 빠르고 걷는 것이 나는 것 같아 이를 이상히 여긴 부모가 아기를 보니 날개가 있는 것을 보고 무섭게 여겨 정부에 보고를 한다. 그래서 관에서 아기를 잡고 날개를 불로 없애버렸다고 한다.

아기가 훗 여남은 살이 나가니까, 아이가 아주 빠르거든. 부모네 생각에 워낙 아이가 빨라. 워낙 아이가 빠르고, 이레가만 퍼쩍 허명 걷는 것이 낯는 것 그치 아이가 행동을 허니까, “커 이상하다.”하고 부모네가 아기를 잠잘 적에 즈드랭이를 영 걸영 보니까, 일로 양쪽으로 (등 옆을 가리키며) 날개가 나왔더라 허는거라. 이만씩 날개가 나오니까, 요새 그트민 그런 장수가 잇으면은 오죽 얼마나 좋으냐 말이다. 그렇지만은 연날은 그런 장수들을 낫다가 나라가 망칠까봐서 없야불자고 헨 거거든. 계난 그 부모네가 정부에 보고를 헛거든. 요새 크트믄 경찰일 그치 이만저만 헿 우리 아기는 지금 그렇게 빠로지마는 즈드랭이에 날개가 나오고 잇단 말이여. 법에서는 그 아기를 심어다가 날개를 그만 불로 자져불엇거든.

〈조사자: 아…….〉

계난, 자져불엇는데, 가이는 죽엇는지 살앗는지 몰라. 그런 말이 연날부터 곁는 말이 잇지.

〈조사자: 켜디, 부몬디 무사 말해불어신고?〉

지네가 무서우니까 이런 아이 키우다가 지네가 어떻게 뭐 목살당하카브덴 미리 곁아븐 거지. 불안허연. 지네가 그런 아이를 네서 이 나라에 어떤 행동을 허면은 그 참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헿서 불안하니까 그런 거 연락 헿 것이 았은가 싶지.

43. 힘센 오누이

*제보자: 김정길 (남, 72세)

*조사일시: 2004년 7월 31일

*조사장소: 제보자 자택

• 요약 : 부부가 사는데 딸을 낳고서는 소 열 마리를 잡아 먹이고 아들을 낳고는 소 다섯 마리를 잡아 먹인다. 그 아들이 씨름 선수로 나가니까 누나도 모르게 남자복장을 하고 씨름대회를 나간다. 아들은 다른 선수들이 와도 다 이겼는데 누나인줄 모르고 누나와 씨름을 하다 당해내지 못해서 누나가 최고 왕을 차지한다.

부부가 사는데 딸을 먼저 낳고, 아들은 나중에 낳는데, 오누이를 낳 키우는데, 지금 고향인 천하장사 씨름대회 모양으로 씨름대회에 나갔거든. 씨름대회에 나갔는데, 그 아들은 누니까 뭐 소를 다섯 마리나 멧 마리 잡아먹고, 딸은 누니까 소를 열 마리나 멧 마리나 잡아먹었는데, 그 아들이 이 씨름선수 나간다니깐 그 누나가 모르게 남자복 가장 해내 또 씨름선수로 나갔단 말이여. 씨름선수 나갔는데, 딸 사름덜은 선수덜은 다 와도 그 남자가 다 이기는데, 아 그 누나줄도 모르고 여자가 남자복 가장한 사름. 이 사름헌텐 당허들 못헌단 말이여. 어흐, 그런 말이 이서, 계난 소 열마리 먹은 그 누나가 최고왕을 우승을 했다는 거지. 그 누이가.

〈조사자: 씨름에서 누나가 이겨붙었구나?〉

계난 오누이가 씨름을 해서 누나가 이겨붙거지.

〈조사자: 어떻 딸나난 누나헌테는 열마리 먹이고 아들헌테는 다섯 마리 먹여신고?〉

아 그러니까 열 마리 먹은 사름이 더 썰거 아니? 흐흐흐. 열 마리 먹은 사름이.

신 앙

〈 목 차 〉

- | | |
|---------|---------|
| 1. 개관 | 3. 민간신앙 |
| 2. 공인종교 | |

1. 개 관

청수리의 공인종교로는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가 있다. 절은 영축사와 반야사가 있었는데 반야사는 불상만 모시고 있을 뿐 절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다. 교회는 건물을 신축하고 있었으며, 천주교회는 4년 전 건물이 신축되었으며, 교회에 비해 신도가 아주 많았다.

청수리의 민간신앙은 일제시대와 4·3사건을 거치면서 거의 사라져 그 흔적만 들을 수 있었다. 마을 포제 또한 4·3사건 이전까지만 행하여 그 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공인종교가 많아서인지 가신신앙도 현재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청수리에는 당이 없어서 저지리에 있는 본향당(할망당)을 다니고 있었다. 현재는 거의 당을 다니지 않는다고 했으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유지되고 있었다.

2. 공인종교

1) 불교

(1) 영축사

① 명칭 : 영축사 (처음에는 지형이 가마를 닮은 형상이어서 부악사라고 했으나, 1942년부터 영축사로 개명하였다. 영축사라는 명칭은 절 뒤에 왕석의 모양이 독수리를 닮았다고 해서 독수리 '축'자를 쓰고, 신령 '영'자를 써서 영축사라고 하는 유래가 있고, 부처가 영축산에서 설법을 펼친 것을 계기로 '영축'이란 사찰명이 사용되었다는 유래가 있다.)



영축사 대웅전

② 종파 : 대한불교 법화종

③ 위치 : 한경면 청수리 1223

④ 건물 : 사찰부지 1082평 중 대웅전 1채, 사택 1채, 요사채 1채가 350평 정도이고, 나머지는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⑤ 연혁 : 1934년 부악사라는 절을 현위치에서 전방 100m에 김경호 스님이 창건하였다. 건물은 기와집 3동이었으나 4·3 사건 당시 전소되어 판포리 통천사로 불상을 옮겨 모셨다고 한다. 1950년 한경면 낙천리에 낙천기원사(현재 흥법사)를 짓고 불상을 옮겨 모셨다가, 1962년 현재 위치에 3평 가량의 오두막을 지었다. 1963년 음력 2월 26일 대웅전 상양식을 하고 대들보를 올려 현재의 건물을 지었다.

⑥ 주지 : 오수천 스님 (光首, 66). 28세부터 절에 입도하여 현재 주지를 지내고 계신다.

⑦ 신자 : 약 150세대. 대부분이 청수리 주민들이나, 조수리, 신도리,

산양, 고산, 시내권(30~40세대)에서도 다니고 있었다.

⑧ 법회일 : 4대 기념일, 즉 4월 초파일(부처님 탄생일), 2월 초 여드레(출가일), 음력 4월 초파일(성도일), 2월 15일(열반일)과 4대 절일인 정월, 4월, 7월, 10월 보름에 정기 법회를 연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법회가 있으나 거의 참석하지 않으며, 신자들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기도를 드린다.

⑨ 운영 : 공식적인 법회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사정은 열악한 편이라고 한다.

10. 타 종교와의 관계 : 타 종교와는 별다른 대립 없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님께서 청수리는 모든 종교가 다 자리잡고 있는 축복 받은 땅이라고 하시는 것으로 보아 서로 조화로움을 알 수 있었다.

11. 금기 : 강제적인 금기는 없으며, 부적 등은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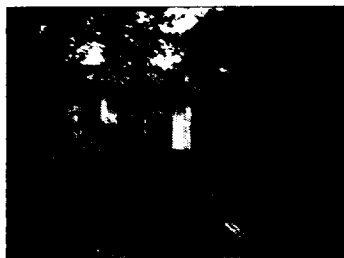
(2) 반야사

1. 명칭 : 반야사(般若寺)

2. 종파 : 원혜종

3. 위치 : 한경면 창수리 1739-4

4. 건물 : 처음에는 50여평의 건물이었으나 주위의 나무들이 자라 지붕 위를 덮어 버리자 바로 뒤 언덕으로 25평의 건물을 지었다. 대웅전 내부에는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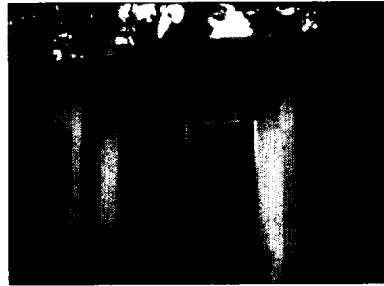


반야사

5. 언혁 : 모슬포에서 태어난 주지스님(김성화 스님)이 한림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던 법당을 물려받아 33세에 반야사라는 절을 운영하다가 1965년 창수리로 절을 옮겼다. 약 20여 년 전 25평의 대웅전을 세웠는데 현재는 관리만 이루어지고 있다.

6. 주지 : 김성화 스님(법명은 기억 못함)이었으나 약 25년 전에 사망하셨다. 현재는 주지스님이셨던 김성화 스님의 부인(김춘선 할머니)이 절

을 지키고 계셨으나, 재정상의 어려움과 할머니의 노화로 인해 약 5년 전부터는 사람들에게 오지 말라고 권유한다고 하셨다. 현재 스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이다.



반야사

⑦ 신도 : 주지스님 생전에는 많았으나(정확히 기억 못하심) 스님이 돌아가신 후부터 점점 줄어들기 시작

하여 현재는 가끔씩 신자들이 방문한다고 한다. 정확한 세대 수는 알 수 없었고 한림의 신자들과 청수지역 신자들이 비슷한 수치이며 모슬포와 시내권에서도 다녀간다고 한다.

⑧ 법회일 : 음력 칠석날, 정월 보름날, 백중날, 사월 초파일, 삼월 열셋날 등이 정기 법회일이었으나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자들만 가끔씩 찾아와 불공을 드리는 실정이다.

⑨ 운영 : 예전에는 자급자족을 하였으나 현재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거의 절의 기능을 할 수 없어 현재는 관리만 하고 있는 상태였다.

⑩ 타 종교와의 관계 : 특별히 전도를 하거나 신도들에게 권유를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찾아온 신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갈등은 없었다. 주민들과의 관계도 우호적인 것으로 보인다.

⑪ 금기 : 칠성불공을 드리면 멀치까지도 먹지 못하게 정성을 들인다. 그 외에 일반적인 금기는 보편적인 불교와 비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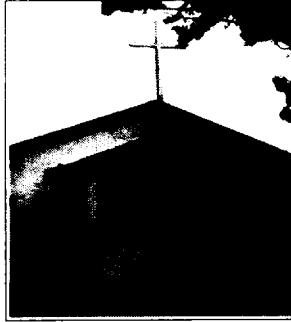
2) 기독교

(1) 청수교회

① 명칭 :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수교회. (처음에는 저청교회가 있었으나 청수교회와 저청교회로 나뉘어 지면서 청수교회라 부르기 시작했다.)

② 위치 : 한경면 청수리 1531

③ 건물 : 현 건물은 교회건물 1채(75평)와 사택 1채가 있다. 2004년 6월 14일부터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고, 완성됨과 동시에 기존 건물을 헐어버릴 예정이다.



청수교회 현재 건물

④ 연혁 : 청수리와 저지리 중간 지점인 학교 앞 가정집을 이용하여 저청교회가 운영되다가 1974년 4월 15일 지금의 위치에 청수교회를 따로 세웠다.

⑤ 대표자 : 최창환 목사님. 현재 8번째로 임기, 5년째 생활 중이다.

⑥ 신도 : 약 70명이나 평균적으로 나오는 신도는 50명 정도이다. 주민들이 절반이고, 애월 등 타지 신도들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에서 전도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오지만 항상 유동적이라고 한다.(한 달 가량 다니고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⑦ 예배 : 수요일예배와 주일 예배, 금요일 예배가 있으며 현재는 신전공사로 매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다. 행사로는 10월에 부흥집회나 여름성경학교, 부활절날 연합예배가 있다.



청수교회 신축 건물 완성도

⑧ 운영 : 신도들의 성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성금은 급식비 지원과 봉사비로 등으로 쓰고 있다.

⑨ 타 종교와의 관계 : 특별한 대립관계는 없으나 제사문화로 인한 재산분배 때문에 전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3) 천주교

(1) 제주교구 고산성당 청수공소

① 명칭 : 천주교 제주교구 고산성당 청수공소

② 위치 : 한경면 청수리 1700

③ 건물 : 대지 1700평 중 성당 건물 93평, 사옥 1채가 있다. 처음에는 마당의 잔디밭에 목조건물(1957년 신축)이 있었으나 2000년 1월 15일 현 건물을 신축하였다.

④ 연혁 : 1957년 당시 신창성당 관하에 고산공소와 청수공소로 있었으나 고산에 신자수가 많아지면서 1990년 2월 고산성당으로 승격(남승택 신부)되고 청수공소는 고산성당 관할로 편입되었다. 2002년부터 선교사가 상주하고 있다.

⑤ 대표자 : 현재 고산성당 허찬란 신부. 청수공소에는 김재웅 선교사(68세)

⑥ 신도 : 238명(세례자). 79세대로 저지와 청수지역의 주민들이다. 세례받은 사람만 신자로 인정하며 고산에서 1년에 2번씩 세례식이 있다.

⑦ 미사 :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고산성당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드린다. 연중행사는 고산성당에서 드리며 이곳에서는 미사만 드린다.

⑧ 운영 : 신자들이 내는 성금과 교무금 등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교사님 급여는 교구청에서 나온다고 한다.

⑨ 타 종교와의 관계 : 별다른 대립 없이 지내고 있으며, 오랫동안 같이 산 토착민들이기 때문에 갈등은 없다고 한다.

⑩ 금기 : 가정과 생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낙태·이혼 등을 금기시키고 있으며, 제사를 지내되 지방만 붙이지 않으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를 지내도 무방하다고 한다.



천주교 성당 건물

3. 민간신앙

1) 포제

마을 포제는 4·3 사건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다. 당시 제관을 지내셨던 분들도 모두 돌아가신 상태여서 어렸을 적 포제를 지켜보았던 몇 몇 할아버지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할아버지들의 기억은 조금씩 달랐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를 취할 수 없어 의견이 다른 부분은 각각 따로 실는다.

(1) 청수리

① 명칭 : 포제

② 제일 : 정월 초

③ 제장 : 포제동산 (위치는 청수에서 낙천가는 방향으로 마을 회관에서 걸어서 20~30분 거리에 있다.)



포제단

④ 제단 : 언덕위에 평평한 곳에 제단처럼 돌이 있었다고 한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은 주위의 풀과 나무가 너무 우거져 있어서 돌이 있는 것만 확인했을 뿐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었다.)

⑤ 제비 : 당시 가구당 백 원씩 (집마다 형편을 고려하여 등급을 매겨서 건음.)

⑥ 제물

⑦ 메는 곤메, 조메(노란조, 검은조) 약 7그릇 정도 올림. 돼지고기는 통째로 한 마리(내장만 빼고)를 올리고 생선은 옥돔 마른 것을 올린다. 음식은 있는데로 다 올렸다고 보면 된다. 과일도 그 당시 흔치 않았으므로 동

네에서 생산되는 과일로 충당했는데 그것이 땡유자였다.(당시에는 굴나무도 흔치 않았음). 고사리와 콩나물을 생채로 올리기도 하고 삶아서 올리기도 하며, 미나리도 올렸고, 제주는 생감주와 청주, 폐백은 무명 한 필을 올린다. (제보자 : 이두우)

㉠ 돼지를 통째로 올림(날 것). 골감주, 조메 3, 곤메 3, 명태, 밤, 대추, 과일 등 (생과 3, 숙과 3), 미나리 소금만 쳐서 생으로 올리고, 고사리를 올린다. (제보자 : 강정여)

㉡ 돼지머리만 올리며, 바닷고기, 꽃감과 대추를 올린다. (제보자 : 문창립)

⑦ 제관

㉢ 7명 정도 - 마을에서 나이가 있고 글자를 아는 사람으로 택한다. (제보자 : 이두우)

㉣ 40~50대 남자 (제보자 : 강정여)

㉤ 삼헌관 - 제관 자격은 40~50대 (제보자 : 문창립)

⑧ 합숙

㉥ 약 보름정도, 집에 머물면서 밖에 나다니지도 않고 정성을 드린다. 금줄을 쳐서 아무나 드나들지 못하도록 한다. (제보자 : 이두우)

㉦ 향사에서 일주일동안 합숙하면서 정성을 들인다. (제보자: 강정여)

㉧ 물을 길어다 놓고 같이 먹고, 자면서 합숙한다. 보통 5일 동안 하고 길면 7일정도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부부간에 동침을 금한다. (제보자 : 문창립)

㉨ 음복 : 포제장에서는 제관들만 음식을 조금씩 나누어 먹고, 마을로 돌아서는 돼지를 삶아 마을사람 모두 나누어 먹는다.

2) 당신앙

(1) 저지리

① 명칭 : 저지 본향당(할망당)

② 당신 : 허릿당 일뤼중저 호근 모루 정씨부인 큰딸애기



③ 제일 : 초사흘, 초일렛날, 열사흘, 열일렛, 스물사흘, 스물일레, 8월 명절 때는 늦은 시간에 가도 되지만, 정월 명절 때는 신에게 과세를 드리는 날이므로 사람이 많아서 새벽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간다.

당 제단

④ 형태 : 궤가 1개인 형태이다.

⑤ 위치 : 저지오름 허리에 위치함

⑥ 제물

㉠ 배 : 2사발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할망, 잡신), 1사발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으나 요즘에는 거의 1사발씩 가져간다.

㉡ 제숙 : 생선 한 마리 구워서 간다.

㉢ 떡 : 다대(돌레떡이라고도 함. 가장 좋은 밀이나 메밀로 만든다). 요즘에는 가게에서 파는 빵·과자를 올리기도 한다.

㉣ 제주 : 소주와 감주를 주로 올리나 요즘에는 대부분 소주를 올리고 환타(음료수)를 사가는 사람도 있다.

㉤ 과실류 : 사과

㉥ 삶은 계란 : 아기들 허물 나지 말라고 빌기 위해 가지고 감. 올렸다가 내릴 때 껍질을 벗겨 통째로 궤에 넣는다.

㉦ 육류 : 옛날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올리지 못했으나 여유가 있을 때는 돼지고기를 가져간다.

㉧ 지전과 보답으로 시렁목(붉은색, 푸른색, 노란색)과 백지를 같이 가져간다. 명실과 소지 3장, 종이 1장도 같이 가져간다.

㉨ 비념 : 집안일이나 주로 자식의 일을 기원한다. 보답에 자식들 이름을 적어서 비는데 여자아이들은 10세가 지나면 적지 않고 아들 이름만 적는다.

⑧ 옛날에는 집에서 옷을 만 들어 입었으므로 남은 천을 잘라 두었다가 가져간 것이고, 요즘에는 농사한 콩이나 팥을 가져간다. 콩과 팥은 허물 나지 말라고 당에 가서 뿌린다고 한다.

⑨ 신자 : 저지, 청수, 월립, 명이동, 저지 수동, 산양 주민들이 모두 다닌다고 한다.



본향당

⑩ 본풀이 할 때는 더운 메를 올리고 뚜껑을 열어서 할망 쪽으로 손가락을 쫓으며, 메 올린다고 말하고 난 후 나이를 말한다.

⑪ 당 신이 세다고 믿어서 당 나무를 건드리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일제시대에 일본 순경이 당 나무를 끊었다가 한 명은 죽고, 다른 한 명은 눈이 안보였다고 한다.)

⑫ 금기 : 당에 갈 때는 비린 데에 가선 안되고, 동네에 영장이 나도 가지 않는다. 갈 때나 올 때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않고, 그릇소리도 나지 않게 정성 들이면서 갔다온다.

⑬ 본풀이

상계문도 열립네다. 하계문도 열립네다. 개문개철 사당 쟁위에 드립네다. 자손 가지덜 더운메 단메 지극 정성허영 오랏수다. 풀 섬 콩 섬 저명 오랏수다. 자손덜 올금년 대한문에 굶은 액년 막아 줍써. —————건어 줍써. 즈손 가지덜 혼달 죽장 땡깁네다. 초일뤼 초사홀 열일뤼, 열사홀, 스물 사홀, 스물 일렛날은 할마님이 아장 볍네다. 진도 본향 어진 한집. 금악으로 내려온 할마닙네다. 이 무당 아자난 무당은 차씨 선생님 아자난 무당입네다. 고씨 선생님 아자난 무당입네다. 진히 이제자 대명 대칭 아장 단골덜 마련헛네다. 할마님아상받읍써. 여~ 잠깐 외방서 오라그네 할마님 말을 들젠 오라수다. 할마님아 아자 천리사 만리보아 이아이덜이라도 땡기는

길에 가는길에 하다 뉘 나게 말고 차를 타고 내다 동서남북 멩깁네다. 뉘 나게 맵싸. 앞바쿠 뒷바쿠에 다디기지 말앙 뉘 나게 맵싸. 혼나게 말앙 꿈에 선몽. 남해일몽 주게 마썸. 할마님은 잠깐 할마님 신디 할마님신디 곱압수다. -----찬 물로 허영 대접허쿠다. 관세음보살.

※ -----부분은 청취불능

3) 가신신앙

(1) 투신제

집 뒤편에서 지내며,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남자 어른들은 제를 지낸다. 비린 것을 보지 말고 몸은 깨끗하게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한다.

①제물

㉠ 메 6개(곤메 3, 조메 3), 침떡, 명태, 생과 3, 숙과 3, 곱감주, 닭고기 와 돼지고기를 생으로 올린다.

㉡ 조메 2, 지장밥 1, 곤메 1를 그릇 채로 찌서 올린다. 삼희생은 돼지머리와 생선(옥돔, 비늘을 그대로 두고 내장은 빼고 올림), 쇠고기를 올린다. 생감주를 올리고 갯은 올리지 않으며 시루떡, 곱감, 대추, 과일을 올리고 폐백으로 무명이나 베를 올린다.

(2) 뉘들임

뉘들이는 할머니를 불러다가 하며, 아이가 놀란 장소에 가서, 그 애기 옷을 가져다가 물을 뿌리면서 아이의 성과 이름, 나이를 말하면서 “뉘드려 줘”라고 하면 아이가 대답을 한다.

(3) 푸다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심방을 불러다가 한다. 제물로는 둥글레떡을 올리고 메, 과일 등을 올린다. 끝나면 올렸던 음식을 먹기도 하고 버리

기도 한다. 버릴 때는 음식을 조금씩 넣고 그 해 터진 방향으로 버린다고 한다.

(4) 성주풀이

집을 지었을 때 하며 심방을 불러서 정성을 들이는데 이 때에도 떡과 메, 과일 등을 정성껏 준비해서 올리나 제물이 정해진 것은 없다. 남자가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동네 사람을 빌어서 함) 도끼로 나무 베는 시늉을 하고 난후 소금과 팔이나 콩을 뿌린다.

(5) 귀양풀이

시신을 묻은 날 밤에 하며 과일, 떡, 술 등을 있는 대로 다 올린다. 제물은 정해진 것은 없고 초상 때 올리고 남은 제물도 올린다.